



8

1992

문학예술종합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2. 8호

(루계 538)



◆◆◆◆◆◆◆◆◆◆

## 차 례

◆◆◆◆◆◆◆◆◆◆

나의 사랑 .....	4
행복의 저녁 .....	6
나는 창성사람 .....	7
어버이장군님 품속에서 .....	8
위대한 수령 <b>김일성</b> 주석께 .....	10
당당한 계승자 <b>김정일</b> 동지 .....	10
최고사령관동지를 우러러 .....	11
주인공의 성격발전과 생활논리 .....	12
백두산정 .....	14
하늘의 계시를 받은 집 .....	16
그이의 은정이랴오 .....	17
명제해설 .....	18
직장장의 하루 .....	19
참된 녀은 대를 이어 .....	28
건설장소묘 .....	30
그대의 나날 .....	42
존경하노라 .....	44
인테리형상과 지성세계묘사 .....	45

푸른언제 .....	51
젊음에 대한 생각.....	54
남해의 파도소리 (외 1 편).....	55
병사여 말하라.....	55
사랑의 권리 .....	56
청춘의 값높은 시절 .....	61
깃을 펴라.....	62
쌈.....	72
그도 아버지다.....	74
과학환상소설의 특성과 예술적품격 .....	75
집안의 유산 .....	78
판문점 .....	79
황지에 꽃은 피어나리.....	80

# 나의 사랑

인훈

## 1

사랑이여, 나도 모르게  
나의 가슴속에 싹튼 사랑이여  
너 언제부터인가 나를 부르며  
행복을 속삭이기 시작한것은

어린 시절 들길우에서  
들새마냥 떠돌던 나의 걸음이  
해방의 감격을 안고  
보란듯이 마을길을 활개치던 그날부터였는지

기쁨으로 한가슴에 흘러드는  
내 고향의 강물소리를 들으며  
달빛어린 수양버들가

그 나날  
어머님의 그윽한 두눈가엔  
처음으로 맑은 이슬이 맺혔고  
내 마음은 마냥 즐거워  
도말아 트랙의 꽃밭에 물을 주었거니

아버지 어머니도 줄수 없었던 사랑  
목이 타던 그 사랑에 가슴적시며  
내 뛰어다니던 버들방천  
민들레 웃는 학교길이어

잔디 푸른 봄언덕  
희망으로 부푼 가슴 열어젖히고  
이웃집 분이와 저물도록 바라보던  
지평선 멀리 고향하늘가 노을이여

그 모든것 아버지수령님께서 찾아주신  
고귀한 나의 사랑이였더라  
그 누구도 다칠수 없는  
그 누구도 뺏을수 없는

허나 하루아침  
황홀한 꿈을 실어보던  
고향하늘가 그 금노을이  
전쟁의 포연속에 잠길 때

정다운 교정의 꽃밭이  
여지없이 폭탄에 파헤쳐지고  
나에게 글을 배워주던 선생님이  
총을 메고 전선으로 떠날 때

날뵈도록 잠못들던 그날부터였는지  
사랑이여, 너는  
참을수 없는 분노를  
보복의 탄알마냥 이 가슴에 채우며  
증오라는 울타리를 둘렀노라  
꽃피어나던 나의 생활-만발한 그 화원에

분노의 이 가슴 흔들며  
밤마다 떠나는  
군용렬차의 노한 기적소리  
우리 어찌 그대로 보낼수 있었으랴

둘의 나이를 합쳐  
금방 서른을 넘어서던 그 시절  
분이와 나-우리모두는  
나이를 뛰어넘어  
분연히 군용렬차에 몸을 실었다  
전선으로! 전선으로!

## 2

산도 바위도 모든것이  
폭격에 날아나는 불타는 고지에  
문득 기별도 없이  
아버이수령님께서 찾아오시였다

땀과 먼지로 얼룩진 군복자락을  
미처 여밀새없이 만세!- 만세!-  
감격의 환호로 들끓는 전사들을  
뜨겁게 손잡아주시던 아버지수령님께서  
아, 그이께서 내앞에 멈춰서시였다

-꼬마동무구만!  
고향의 어머니가 보고싶지 않아?

한없이 친근하신 그이의 물으심에

보고싶다고 보고싶다고

높뛰는 심장은 진정을 아뢰이는데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대답

-아닙니다, 보고싶지 않습니다

씩씩한 나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이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신다

-아니, 보고싶을거요  
싸움판에 나선 우리 영웅전사들은  
모두가 사랑이 큰 사람들이요!

그 순간 확 열리는  
나의 가슴속 큰 길로  
사랑의 물결이  
와-와- 소리치며 강물처럼 흘렀거니

판가리결전의 그 나날  
강철의 령장 우리 수령님께서  
나에게 안겨주신 사랑의 그 힘,  
필승의 신념으로 이 가슴에 차넘쳤어라

내가 겨누 총구앞에  
원썩들이 비명을 지를 때  
백배 천배 증오의 불길을 지피며  
나의 심장속에 타오른 사랑이여

총알이 비발치는  
삶과 죽음의 계선을 뚫고  
남진하던 결전의 그 걸음마다에서  
비로소 나는 느꼈노라  
사랑이란 그 얼마나 강한것인가를  
비로소 나는 깨달았노라  
나와 사랑이 그 얼마나 작았던가를

### 3

사랑이여, 너는  
피로 지킨 이 땅에  
증오를 안은 심장들이  
뜨겁게 안고사는 불!

수령님 찾아주신 내 조국에서  
처음으로 싹을 틔운 그 사랑  
포연서린 고지우에서 수령님을 맞던 그날에  
폭포처럼 나를 휩쓴 그 사랑

사랑이여, 너는  
승리하고 다시 만난 분이의 그 모습  
내 성실한 노력으로 안아올린  
고향마을의 새 모습

사랑이여, 너는  
언듯 이마를 스치는  
한오리 바람결에도 실렸어라  
저기 저 강반의 물결에도 어렸어라

사랑이여, 너는  
세월이 갈수록 넘쳐나는  
내 삶의 힘이며  
내 노래의 젖줄기

이 사랑을 지켜  
다시는 상봉을 기약할수 없는  
준엄한 적후의 밤길로  
서로 웃으며 우리 떠나지 않았던가

흐르라, 사랑이여  
락원의 이 거리거리  
정다운 눈빛들에  
행복한 우리의 생활우에

사랑이 있어  
삶이 아니더냐  
사랑이 있어  
인간이 아니더냐

오, 사랑이여 나의 가슴속에  
꼭 차고넘친 사랑이여  
세상에 둘도 없는 사회주의 내 조국을 지켜  
너 불타라 불타올라라!

# 행복의 저녁

리종덕

언제부터인지  
습관처럼  
저녁 보도시간이 되면  
하던 일들을 미루고  
온 식구들이 텔레비죤앞에 앉는다

외국손님들을 접견하시는  
자애로운 영상 모셔지면  
바로 이 순간이런듯  
우리 수령님이시다!

오,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이는 환성  
아버이수령님 정정하시여  
오늘도 대외사업 보신다

수령님의 활달하신 걸음걸음에서  
산을 안은듯 느껴오는 힘  
벽차오르는 가슴이여  
오,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  
우리의 행복이다

봄이면  
봄이 와서 기다려지고  
가을이면  
가을이 와서 모시고싶던 수령님

그날의 봄날처럼  
눈내리던 그날의 겨울처럼  
수령님 바쁘시여

우리 농장에 자주 오시지 못해도  
정정하시여 나라일 보시는  
그 모습 뵈은 기쁨이여, 환희여!

누구 하나 말이 없다  
숨소리조차 없는듯싶다  
어머니도 딸애도 안해도  
말할수 없는 숨엄함에 잠겨  
수령님 생각뿐

이윽고  
안해의 목소리도  
딸애의 웃음소리도 더 높아지고  
우리 집 방안은  
금시 더 환해진듯싶어라

오, 이 세상 더 바랄것 무엇이랴  
만시름을 다 잊은 편안한 마음이여  
전화의 그날처럼  
전후의 그날처럼  
우리 수령님 오늘도 정정하시다  
온 세상에 소리치고싶은 자랑이여

나는 잠자리를 편다  
행복의 꿈속에 들련다  
천년이고 만년이고 이어질  
활기로운 새날을 안은  
아버이수령님 모신 조국의 밤이다

# 나는 창성사람

전병구

산이 높고 골이 깊어  
이름조차 부르기 힘들었더나  
창성이여  
나를 낳은 산천이여!

산꽃을 꺾던  
어린 시절의 내 가슴에  
그 세월의 한숨소리처럼 자리잡은  
어머니의 베틀소리만이  
전부이던 고장

바위그늘아래 쉬여넘던  
성골령의 고개마루  
그 어느 타판땅에서  
못사람들의 고향자랑에  
부러움에 젖군하던  
나는 창성사람

입은것이 부끄러워  
먹는것이 한스러워  
창성이여 네가 나를 버렸더나  
내가 너를 떠났더나

산비탈을 뚫으며  
터갈라진 어머니죽안에서 구울던  
도토리 몇알로 이어지던  
나의 생명

물어보자 창성이여  
언제부터 너의 이름  
온 나라에 떨치기 시작하였고  
내 그 어느고장에서나  
창성사람임을 떳떳이 말할수 있게 되었던가

구름도 산허리에 흰피를 두르던  
령을 넘어  
울며 떠나갔던 사람들  
웃음속에 불러주신 수령님

돌길이란 돌길을 다 걸으시여  
휼산도 찾아주시고  
골짜기란 골짜기를 다 뒤횈이시여  
다락논도 풀어주신 사랑

한포기 풀  
한그루의 나무도  
안아주시고  
가꿔주시며  
황금의 열매를 무르익혀주신  
아버이 크나큰 그 은덕이여

창성을  
꽃비단으로 감싸게 하고  
창성을  
양떼 소떼로 뒤덮게 하고  
창성땅에  
벼바다 강냉이바다 물결치게 하고  
창성을 황금산으로 설레이게 하여주셨나니

아, 산도 변하여 산울림도 변한 땅  
머루다래향기 백살구향기  
향기속에 젖어 꽃피는  
정든 내 고향이여

그 이름 부르기조차  
가슴이 저리던  
내 고향이여  
노래를 엮어  
온 세상에 빛나는 조선의 창성  
너를 자랑하리니

아버이수령님품에서  
행복의 대명사처럼  
이 땅에 새롭게 태어나 불리우는  
내 고향 창성이여

# 어버이장군님 품속에서

-1930년대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싸운 한 경위대원의 이야기-

(중국) 김성

## (1)

그는 열다섯살 꽃나이  
항렬로도 다섯째 막둥이었네  
일본놈 친다고 어벌도 커  
형님들 따라 홍산골로 들어갔네  
장군님 품에 안겨 총가목 잡았네

항일에 참가한 《교》 씨가문 오형제  
장군님은 다섯째를 신변에 두시고  
사령부경위원으로 근무시켰네  
영준하고 기민한 꼬마경위원  
치렬한 《토벌대》 저격전에서  
적탄에 맞아 손뻐 부서졌네

상처는 악화되고  
고통은 심해가고  
뼈수술 받아야 하련만  
의료설비 부족한 형편-  
장군님께서 잠 못 이루고 걱정하시더니  
소독한 면도칼로 손수 수술하셨네  
수술받는 모진 아픔 헤아리시여  
옛 이야기도 해주시며

-중국 삼국시기 관운장이라 있었소  
그는 화살에 맞아 수술을 받았지  
독소를 뽑는 수술말이요  
《장이다! 군이다!》  
이렇게 장기를 두면서말이요  
관운장은 말을 잡노라 아픔도 잊었소...

장군님의 이야기에 호기심 끌려  
꼬마경위원 두눈에 정기들고  
이지러진 얼굴이 밝아지고  
옥다문 입가에 밝은 미소 피었어라

장군님 손이 령기가 있어  
장군님 손이 약손이 되어  
수술도 성공하고  
상처는 아물어가고  
코노래도 흥얼대는 꼬마경위원  
허나 그이께선 한시도 마음 못놓으셨네

사령부 안팎일 것처럼 바쁘신 몸  
아침시간 어길가  
저녁시간 어길가  
꼬마 상처에 약을 갈아주고  
몸소 데리고 바깥출입 다니시며  
허리띠도 매여주었네

어린 나이에 수술 받고  
집생각은 얼마나 나겠는가  
응석도 부릴 나이 부모슬하 떠나  
나를 믿고 찾아온 혁명동지인데  
내가 돌봐줘야 밤이 놓이신다시는  
장군님의 다심한 보살핌-  
친어머니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어

## (2)

해살도 이깁초리에 감기여  
하아얀 고드름으로 얼어붙는  
장백의 천고밀림 오동지달-  
눈보라 뚫고 몇고개더나  
생눈길 헤쳐 몇골짜기더나  
장군님 모신 빨찌산 행군길  
엄한도 기가 꺾이였노라

숙영지의 밤, 깊어가는 밤-  
이글이글 우등불 타오르고  
《토벌》을 뚫고 행군한 전사들  
우등불 둘러앉아 신발을 말리네



장군님께선 환히 웃으시며  
꼬마경위원 신발 말려주시네  
퐁퐁 언 버선을 따끈히 말리우시네

장군님 그 사랑에 목이 메어  
죄송스러움 금할바 없이  
두어깨 들먹이는 꼬마경위원  
-사령관동지!  
어찌 저의 신발까지...

-왜 우오 다섯째  
또 집생각이 나는게지?  
하하하... 울지 마오  
조중 두 나라 인민은 한 형제요  
우린 다 왜놈을 쳐부시는 전우요  
피로워마오, 동문 아직 부상병이니깐...  
장군님 넓은 품에 와락 안긴 꼬마경위원  
그 사랑에 목이 메어 흐느끼었네

아!  
혁명의 만리길우에  
너무도 많은것을 잃으신 그 한가슴에  
쓰리고 쓰린 애절한 고통이 쌓여  
인간존엄의 귀중한 사랑  
이십대 장군님 열혈가슴에 서리였나니

그 소중한 사랑의 넓은 품이  
전사들 요람이 되고  
거룩한 사랑의 손길이  
전사들 신들메 매여주고

준엄한 행군의 진두에 서시여  
장백의 험한 산밭 주름잡아  
삼도왜적을 족치었노라

### (3)

장군님 체온이 따스히 스민  
장군님 체취 차분히 배인  
오 담요, 호랑담요-  
그이께선 쭉-옥 반쪽 떼여  
꼬마경위원에게 주었네  
장군님을 걱정하시는 백성의 지성  
그이는 전사와 절반 나누셨네

반쪽의 호랑담요  
어찌 한 전사에 대한 사랑이라고만 하랴  
혁명동지를 아끼시는 육친의 그 사랑-  
언제 어디서나 전사들 심장속에  
그이의 체온이 따뜻이 흘렀어라

하기에 그이의 체온을 받아  
장백의 설령도 봄빛 따사로워  
혁명의 씨앗 움텔고  
민족의 넋이 소생했고  
구국의 주체대오 자랐었다!

장군님의 호랑담요-  
그 담요의 온기 백두혈맥 타고  
삼천리에 전열되어  
식어가는 겨레의 가슴에 열을 주고  
산산한 국토에 온기를 주어  
아침의 나라에 새봄을 맞이했나니

아, 담요-  
인민의 마음속에 소중히 포개여둔  
혁명의 담요!  
장군님의 체온이 따스히 스배인  
호랑담요!

##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

비슈와나스

강과 들을 지나  
대륙과 대륙 넘어  
**김일성** 주석  
그이의 영광 전해지고  
그이의 노래 높이 울리네

세기를 두고 억눌리던 인류에게  
미래에 대한 휘황한 꿈 새겨주신 그이  
그이의 사랑의 빛발은  
사람들의 가슴 환히 밝혀주고  
모든 꽃과 나무들을 꽃피워 자래우네  
인류는 그 빛발 받아 희망을 안고  
제국주의자들 공포에 떨고있거니

아 광휘로운 태양의 빛 받을 때마다  
나의 성스러운 어머니강 간지스의 물처럼  
내 생은 환희로 끓고  
내 붓은 거침없이 달리네

아 그이는 령장  
근로하는 인민의 영웅  
우리의 행성우에 밝아온  
그 이의 탄생일은  
시대의 기념일  
모든 사람 이날을  
가장 기쁜 날로 맞는다네

(필자는 인디아시인임)

## 당당한 계승자 김정일동지

꿀리발리 아다마

**김정일**  
그이는 장구하고 숭고한 혁명전통의 계승자  
민족구국의 해불높이 일찌기 투쟁을 벌려온  
가정의 혈통 이어받으셨거니

**김정일** 그이는 찬탄의 상징

시대의 탁류와 생활의 곤난  
생존의 불행과 전쟁의 심연도  
그이 지니신 불굴의 의지 꺾을수 없었거니  
주체의 리념에 충실하신 그이께서  
중대한 계승을 맡아나서시었어라

뛰어난 총명으로 과학의 첨단을 뚫으시고  
온갖 교조를 반대하시며  
위대한 주체사상을 완전무결하게 체득하시고

그 빛발을 환히 밝혀주시어라

인민들은 젊으신 그이를  
희망으로 가슴에 새겼나니  
그이는 당당한 계승자  
고상한 혁명전통  
인정과 정의  
해방투쟁의 계승자이시어라

뜨거운 열정 너그러움 지니시고  
전세계의 이목을 끄시는 그이

(필자는 부르끼나파쑈주체사상전국  
소조성원임)

# 최고사령관동지를 우러러

김시권

어디에 서면 그 어디에 서면  
그이를 가까이 더 가까이  
뵈올수 있을가  
수천수만의 설레이는 군중들속에서  
이 로병사도 가슴 들먹이며  
우러르고 우러르노라

열병식광장에 메아리치는  
금빛나팔들의 장엄한 취주악  
근위사단들의 위훈에 찬 군기들  
륙해공군의 기상넘친 발구름들  
금빛혼장들을 절령이며  
끝없이 흐르는 열병대오

아, 주석단에서  
밝은 미소로 굽어보시는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적무장력에  
축복을 보내시며  
높이 흔들어주시는 그 손길

영접들어총 높이  
발구름을 올리노라  
이 로병사도 감격에 목메어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그 영광 그 환희 안고  
저 광장에 흐르는  
열병대오와 함께 발을 구르노라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  
우리 병사들의  
초소를 찾아  
손잡아 일당백장수로 키워주신  
강철의 령장  
고향에서 온 편지도  
병사들과 함께 허물없이 읽어주시며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창공에 솟구치는 비행기조종대앞에서  
파도를 헤가르는 갑판조종실에서  
몸소 우리 륜해공군부대들 이끄시며

우리 식으로 우리 병사들을  
백전백승의 쇠소리나게 키워주신  
그이는 군사의 영재  
명장중의 명장

울려라 열병대오의 발구름이여  
울려라 가슴마다 넘치는 영광이여  
우리 혁명무력을 령도하시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  
그이는 곧 우리의 힘!  
그이는 곧 우리의 승리!

그이의 비범한 담력과 지략  
군사적예지의 빛발아래  
원췌무리들 공포에 무릎꿇고  
영원히 침묵하리  
우리 인민의 미래는 무궁히 꽃피리라  
인류는 자주화된 세계에서 살리라

영광이여라  
기쁨이여라  
저 열병대렬과 마음을 함께 하는 이 로병사는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전사로  
복무하는 공지와 자랑  
광장을 울리며 나가노라

아, 최고사령관동지를 위하여 복무함!  
병사들의 지축을 올리는 발구름들  
일떠서면 성벽으로  
나가면 불길되는  
무적을 시위하는 불패의 인민군대오-  
영광을 올리는 만세의 환호성 환호성  
손길높이 흔들어주시는  
위대한 령장 **김정일**동지

격정으로 설레이는 인민들의 마음담아  
이 로병사는 선언하노라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  
그이는 우리 혁명무력의 무궁한 힘!  
그이는 우리 주체조선의 영원한 승리!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은 우리 인민의 고귀한 사상문화적재부이며 혁명적 문학예술의 빛나는 본보기입니다.》

김정일

## 주인공의 성격발전과 생활론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옮긴 장편소설 《한 자위단원의 운명》 창작과정을 세심히 지도하여주시였다.

감격도 새로운 1972년 12월 15일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문학창작을 지도하는 몇몇 일군들을 당중앙위원회로 친히 불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이 올리는 인사를 반갑게 받아주시고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불후의 고전적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옮긴 장편소설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읽어보았는데 원작의 심오한 사상을 잘 옮겨놓았다고 말씀하시였다.

순간 일군들은 감격을 금치 못하였다.

나라일에 것처럼 바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얼마전에 올린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은 부피 두터운 장편소설의 초판을 친히 읽으시고 따뜻한 말씀을 주시는것이 아닌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일군들의 마음을 헤아리신듯 잠시 동안을 두시였다가 부드러운 음성으로 소설 전반을 놓고 볼 때 주인공의 혁명화과정, 세계관형성과정과 《자위단》에는 들어도 죽고 안들어도 죽는다, 오직 살길은 일제를 반대하는 혁명투쟁에 나서는 길밖에 없다는 작품의 사상주제적과제를 잘 해명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여곡절에 찬 주인공의 생활을 깊이있고 심각하게 파고들면서 진실하게 형상하였다고 평가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주인공의 뒤생활과 내면세계가 그

러졌기때문에 성격의 전모를 리해할수 있어 좋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소설이 다른 형식과 구별되는 우점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잠시 일군들의 얼굴을 지켜보시다가 소설에는 일부 진실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다고 하시면서 그것을 고칠 방도에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소설에서 인물의 성격발전을 생활론리에 맞게 전개할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자위단》에 끌여가는것도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적들도 사정하면 봐줄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계급적각성이 없으며 순박하고 어진 청년을 소설의 앞부분에서 벌써 상당한 정도로 적에 대한 적개심이 있는 각성된 인물로 그렸다고 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의 마디마디는 소설에 나타난 부족점을 정통으로 찌르는것이였다.

사실 작가들은 세계관형성발전의 단계를 깊이 인식하지 못한데로부터 그 단계를 뛰어넘어 처음부터 각성된 인물로 그렸던것이다. 일군들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뜻을 옳게 받들지 못한 자책감에 휩싸여 머리를 들지 못하자 그이께서는 잘못된것은 고치면 된다고 하시며 방도적인 문제까지 가르쳐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사람의 혁명화과정, 세계관형성과정이 매우 복잡하다고 하시면서 작가가 이런 생활적론리를 무시하고 사람들의 성격발전과정을 마음대로 취급하여서는 안된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확신에 넘쳐어조로 주인공 갑룡은 계급적으로 각성되지 못하고 적개심이 없는 어진 인물이었는데 피땀한 생

활의 우여곡절을 거쳐 점차 한결음한결음 각성되어 마침내 적들을 싸눕히고 조선인민혁명군대에 들어서는 인물이라고 하시면서 주인공의 민족적, 계급적 각성과정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잘 그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을 받으며 일군들은 주인공의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과정을 생활론리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실하게 그리지 못하고 마치 비약하는 영화의 화면처럼 경충경충 뛰면서 주인공의 성격을 억지로 납득시키려 했음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주인공이 반변할 때 하는 연설내용도 고쳐야 하겠다고 지적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화를 보시고 하신 교시대로 감룡이 반변연설을 할 때 일본놈들이 자기 아버지만 죽었다고 말하는것으로 하지 말고 왜놈들이 우리 조선민족을 마구 닥치는대로 죽였는데 우리 아버지도 억울하게 죽었다는 내용으로 말하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을 받고나니 소설에서 나타난 부족점도 명백히 알게 되었고 그를 극복하기 위한 방도도 환히 내다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날에 하신 말씀은 주인공의 성격과 세계관형성과정을 생활론리에 맞게 진실하게 형상할수 있는 길을 밝혀준 참으로 현명한 가르치심이었다.

작가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을 전달받고 너무 기뻐 환성을 올렸다. 그들은 신심과 열정에 넘쳐 주인공의 성격발전의 론리에 맞게 줄거리를 세우고 복잡한 축적단계를 거쳐 주인공의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진실하게 그려나갔다.

그리하여 계급적으로 각성되지 못한탓에 적에 대한 적개심이 없는 인물이었던 주인공 감룡이가

피땀한 생활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점차 사회현상의 본질을 인식하게 되고 착취제도와 착취계급을 미워하게 되며 한결음한결음 계급적으로 각성되어 마침내는 적들을 싸눕히고 조선인민혁명군대에 들어가게 되는 성격발전과정을 진실하고 감명깊게 그려나갈수 있게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1973년 2월 17일 새롭게 수정완성한 장편소설을 또다시 보아주시고 잘 고쳤다고 못내 만족해하시며 작가들을 높이 평가해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와 은정깊은 사랑이 있음으로 하여 1973년 4월의 명절을 계기로 장편소설 **《한 자위단원의 운명》**이 출판되어 우리 인민들을 기쁘게 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와 **《한 자위단원의 운명》**에 이어 **《꽃파는 처녀》**를 장편소설로 옮기는 사업도 현명하게 지도하시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필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소설로 옮기는 력사적위업의 빛나는 실현과 그 과정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와 업적들은 전적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하고도 정력적인 지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와 가극에 이어 소설로 옮기도록 하신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것처럼 보고싶어하던 우리 인민들의 숙망을 풀어주시였으며 준엄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수많은 창작하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빛내이고 우리 문학예술의 혁명전통을 철저히 고수하도록 하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업적은 세월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 백두산정

한원희

### 백두산에 오를 때마다

내 몇번을 찾아왔더냐  
내 몇번을 너의 산정에 올라  
너의 높이에 놀랐던가

말해다오 백두산아  
장엄한 네 모습  
올 때마다 처음인듯  
어이해 더 높이 솟는것만 같으나

해는 머리위에 더더욱 가까워지고  
별은 한낮에도 보여올듯  
너의 용암대지는 더 넓어지고  
그리하여 천리수해너머 온 세상 끝까지  
더 멀리 더 멀리 바라보이는듯

변함없는 너의 해발고를 나는 안다  
허지만 어이해 다 헤아릴수 없느냐  
쉬임없이 솟아오르는것만 같은 네 높이  
이 무슨 신비로운 기운이나

나는 듣는다  
장군봉너머 올려오는 봄우뢰를 타고  
어데선가 들려오는 귀익은 음성  
백두의 혈통을 대를 이어 빛내가리라  
크나큰 담력이 어린  
친애하는 그이의 말씀

나는 뵈옵는다  
희디흰 안개구름이 자취없이 사라지자  
천지호반에 우렁이 어려오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영상

수령님의 위업을 온 세상에 받들어 올리시는  
그이의 뜨거운 숨결인양  
바람은 이 가슴을 세차게 흔들고  
아아한 런봉들은 환희에 넘쳐 설레누나

아, 백두산아  
민족의 존엄을 너의 봉우리에 쌓아올리시며  
조선의 마음을 너의 산정에 얹어놓으시는  
친애하는 그이의 뜻으로  
너는 쉬임없이 나래치는 혁명의 성산

그이 계시어  
너는 세월이 흐를수록 빛나오르는  
수령님위업의 상상봉  
하늘을 떠이고 누리에 솟아오르는  
**김정일**동지의 광휘로운 사상의 절정

만민이 드리는 영광에 받들려  
세월과 세월우에 더 높이 솟아오르느냐  
올 때마다 처음인듯 새롭구나  
올 때마다 높이 솟아오르누나  
아, 백두산아 백두산아

### 천지의 물

너만이 백두산에 호수를 이루었구나  
너만이 이 땅에서 가장 높고 신성한곳  
해쫓고 별돋는 하늘가에 출렁이누나

백두의 해돋이가 시작될 때

환희에 넘쳐 뛰노는 네 물방울  
태양을 우러러 무엇을 속삭이느냐

새별이 첫불을 켜들 때  
진주처럼 빛을 뿜는 네 물결

별빛 우리러 또 무엇을 속삭이느냐

너무나 신비로워 내 알아듣지 못해도  
너의 속삭임 너의 이야기라면  
간절한 소원을 담지 않았으랴

장군님 모셔온 투사들의 량심처럼

백두광명성 우리르던 기쁨의 눈빛처럼  
방울방울 구슬처럼 빛나는 천지물아

해와 별이 영원토록 무궁하라고  
길이길이 이 강산에 밝게 빛나라고  
너는야 해쫓고 별돋는 하늘가에 출렁이누나

## 노래의 메부리

우리결을 떠나간 로세대 시인들도  
너를 노래불러 빛나는 시편을 남겼고  
오늘에 우리 젊은 시인들도  
너를 노래불러 사람들의 가슴을 뚫인다

백두산!

너는 노래의 산악  
너는 부르고 불러도 못다부를  
시의 찬란한 메부리

너의 천만산악 줄기줄기  
하늘을 가리운 밀림의 굽이굽이  
그 어느 나무아래 한줄흙을 노래해도  
가장 성스러운 노래로 태어난다

한걸음 옮겨짚어도  
못잊을 추억이 붙들어세우는곳  
사시절 녹지 않는 흰눈을 보아도  
투사들의 변치 않는 신념처럼 안겨오고  
너의 산정에 비껴오는 노을을 보아도  
그날의 붉은기폭처럼 생각되어  
이 가슴에 노래가 끓어오른다

목이 쉬도록 노래하고싶어라  
이 땅에 태양을 받들어올린 성산  
너의 그 위대함을  
너의 그 숭엄함을

붓이 다하도록 시를 엮고싶어라  
조국의 산과 강이 된  
너의 지맥 너의 푸른 천지를  
이 나라의 불굴한 넋이 된  
너의 존엄 너의 정신을

백두산!

너없이 상상인들 할수 있으랴  
미제를 때려눕힌 영웅조선의 위훈을  
폐허속에서 일떠세운 도시와 마을을  
주체의 기념비 솟아오른 락원의 강산을

싸우는 고지마다 복구건설장마다  
네가 솟아있어  
백전백승의 힘을 주지 않았더냐  
불노을이 타오르는 90년대의 일터마다  
네가 솟아있어  
오늘도 진군의 폭풍을 안겨주지 않느냐

너의 이름은  
투쟁이란 말  
승리란 말

아, 네가 솟아있어  
조국의 이름이 빛나듯이  
네가 솟아있어  
이 나라의 시가들이 또한 빛나누나  
영원한 노래의 메부리여!

## 하늘의 계시를 받은 집

자강도의 어느 한 산골마을에 가면 《하늘의 계시를 받은 집》이라고 부르는 집 한채가 있다.

3대를 내려오면서 이 집에 세분의 위인이 들렸다고 하여 그 집을 신성시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것이다.

어떻게 되어 이 집에 세분의 위인들이 들리셨을까?

이 지방에 가면 그 연고를 말해주는 전설이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 하늘의 계시를 받다

리조말엽에 김탁진이라는 유명한 목수가 있었다고 한다.

그는 어려서부터 남달리 집짓는 재간이 뛰어나 20대에 벌써 공조에 등록되어 왕궁을 짓거나 보수하는 일을 맡아하였다.

하도 목수재간이 있고 성실하게 일하여 그는 비록 천한 신분이었지만 고종황제의 총애를 받아 30대에 종 6품의 벼슬까지 하사받았다고 한다.

어지가 내려 벼슬을 하사받던 날 순진한 그는 왕궁을 잘 지어 왕과 대신들을 더 잘 섬기는 것으로써 나라를 위하고 신하된 도리를 다하리라 굳게 결심하였다.

그러나 그의 결심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외세를 등에 업고 일신의 안일만을 위하던 을사오적과 무능한 황제는 끝내 나라와 민족을 섬오랑캐놈들에게 송두리채 섬겨버치고말았던 것이다. 하루아침에 망국노가 된 탁진은 백성들과 함께 눈물도 뿌려보고 항거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아! 절통하구나. 반만년 력사국이 이렇게 망하다니. 일신의 안일을 위해선 나라와 민족을 통채로 팔아먹는 그런 무리들을 위해 내가 이때까지 피땀을 흘리며 집을 지어왔단 말인가?)

대줄기같은 소낙비가 쏟아지던 어느날 저녁 탁진은 서울장안이 내려다보이는 삼각산에 올라 가슴을 치며 을사오적의 무리들을 절규하였다.

그는 결연히 품고있던 칼을 꺼내들었다.

배를 갈라 망국노의 치욕을 씻고 혐오스러운 과거사를 잊어버리자는 생각이였다.

이때였다.

갑자기 번쩍하는 번개와 거의 때를 같이하여

《광-짜르릉!》하고 천둥이 울리더니 《그만해라!》하는 추상같은 호령소리가 들려왔다.

깜짝 놀란 탁진은 정신을 가다듬고 주위를 살펴보고았다.

억수로 퍼붓는 비속을 뚫고 벼랑꼭대기를 올라다보니 백발로인이 엄한 눈길로 내려다보고있었다.

순간 탁진은 기가 질려 땅바닥에 넋적 엎드리었다.

뒤이어 백발로인의 웅글은 목소리가 또다시 울렸다.

《피를 뿌려 치욕을 씻으려는 그대의 마음은 알만하다. 허나 세상에서 조선이란 나라는 없어질 수없노라.》

드디어 마음이 다소 진정된 탁진은 자세를 바로하였다.

백발로인의 엄한 목소리는 더욱 뚜렷이 들려왔다.

《그대는 하늘의 계시를 명심할지어다. 지금 나라가 기울어진것은 이 나라 백성을 이끌어줄 위인이 없기때문이다.

이 나라 만백성은 위인을 맞이할 준비부터 해야하거늘 그대는 나라의 유명한 목수일진대 저 북쪽백두산에서 뻗어내린 강남산줄기의 설매골로 찾아가라.

그곳에 가면 양지바른 둔덕이 있을터이니 그대는 거기에 팔도강산을 의미하는 여덟개의 큰 기둥을 세우고 여덟칸짜리 집을 지어 하늘에서 내리는 위인을 맞이하라.

나라를 구원하려는 그대의 정성이 지극하면 반드시 위인들이 그 집에 내리고 이 나라는 자자손손 복락할것이니라.》

《아니, 하늘에서 내리는 위인들이라니 ?...》

너무도 신기하고 반가와 탁진은 머리를 쳐들었다.

그러나 칼로 베인듯이 비가 걸힌 아찔한 벼랑우에는 한뭉치의 흰구름만 뭉뚱 떠돌고있었다.

하늘의 계시를 받은 탁진은 한시도 지체할수 없었다. 그는 추운 겨울이 당장 눈앞인데 어디를 간다 그러느냐고 만류하는 사람들의 권고를 좋은



말로 물리치고 아들, 손자와 함께 설매골을 찾아 떠났다.

간난신고를 다 겪으며 한달나마 걸려서야 그들은 설매골입구에 들어서게 되었다.

탁진은 집을 벗을 생각도 잊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하늘을 치솟고 높이 솟은 산봉우리가 병풍을 두른듯 세면을 막아섰는데 물안개를 피워올리며 흘러내리는 개울을 따라 푸른 잣나무와 소나무가 짝 들어차있었다.

바로 그안에 양지바른 덕지대가 펼쳐져있었다.

그야말로 위인이 내릴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이 조급해난 탁진은 집을 벗어놓기 바쁘게 도끼를 들고 그날로 거처할 자그마한 초막을 지은 다음 집짓기에 달라붙었다.

탁진은 아들, 손자들을 데리고 온 산관을 다 뒤흔들며 찾아낸 큰돌로 8각으로 된 주춧돌 여덟개를 정성껏 다듬었고 아름답리나무를 골라 집재목을 마련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석달만에 8각기둥에 의지하여 량통식으로 된 여덟칸짜리 본채를 짓고 거기에 어울리게 사랑채, 허청칸과 대문간을 세워 대궐같은 미음(口)자 집을 완성하였다.

집은 지었으나 탁진의 건강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새집들이를 하는 날 그는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용무야, 이제는 하늘의 계시대로 집을 지었으니 네가 집을 더 잘 손질하고 거두어서 꼭 위인들을 모시여 그분들이 빼앗긴 나라를 도로 찾는 데 도움이 되게 하여라.

나는 이 집에 위인들을 모신다면 저승에 가셔도 백성된 도리를 다한것으로 알겠다. 이제부터 네가 이 집의 가장이 되거라.

얼마후 탁진은 눈을 감고말았다.

(다음호에 계속)

김우경

## 그이의 은정이라도

윤기찬

오시라오 오시라오

가는이 오는이 들리시라오

황주라 내 고향은

예로부터 사과로 이름난 고장

해마다 과일풍년 인심도 풍년이라오

가지마다 휘여들게

꿀맛 사과 주렁주렁 열렸다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은정에

철철 무르익어 무르녹으니

그이 걸으신 자옥따라

해종일 걸고싶은 과원이라오

바로 이 과수분장이라오

구새먹은 그루아래 애지중지 키우던

애어린 한그루 나무를 두고

깊은 생각에 잠기시여 걸으셨다오

-수년후에야 열매를 본단말이지-

벌써 청춘시절에

친애하는 그이 원예사의 마음 되셨다오

먼 후날에 꽃필 그 어린나무 생각하시며

몸소 정원에서 키워보신 과일나무라오

그 과일나무들이라오

긴등이라 칠십리 과원에

밀림의 바다처럼 설레인다오

그이의 열정 넘쳐선가

푸르싱싱 아지를 펼치고

일도 꽃도 열매도 젊음에 불탄다오

오시라오 오시라오

과원도 우리의 마음도

이 땅의 앞날처럼 청청 푸르려 설레인다오

오늘이 가는이 그 누구나

친애하는 그이를 모시고 사는

그 행복 그 기쁨에 함뻍 취한다오

《우리 문학예술이 의거하고있는 우리 식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은 그 형성의 사회력사적경위에 있어서나 철학적기초와 미학적원칙에 있어서 선행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와 구별되는 새로운 창작방법이다.

우리 문학예술이 의거하고 있는 우리 식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은 주체사실주의,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이다.》

김정일

## 명제해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문학예술을 주체사실주의로 선포하시고 우리 문학예술이 의거하고있는 창작방법을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이라고 밝혀주시었다.

창작방법문제를 고찰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어떤 사회력사적환경에서 어떤 시대적요구를 반영하여 나왔는가를 따져보아야 한다.

사회주의적사실주의는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단계에 들어서고 사회주의혁명이 일정에 오른 역사적시기에 자본주의제도를 때려부시고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사회를 건설하려는 로동계급의 요구를 반영하여나왔다. 인류문예사에 처음으로 출현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가 제기하였던 역사적과제는 자본의 철폐와 제국주의예속에서 근로인민대중을 해방하는데 복무하는것이였다. 선행한 사실주의를 비판적으로 총화한데 기초하여 나온 사회주의적사실주의는 맑스-레닌주의세계관에 기초하여 생활의 본질과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을 진실하게 반영함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주체사실주의는 선행한 시대와 구별되는 새로운 역사적시대, 억압받고 착취받던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하여나가는 자주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나왔다. 새로운 자주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나온 주체사실주의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역사적과제로 제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찌기 조선혁명의 진두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새 시대의 문학예술실천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독창적으로 풀어나가심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적사실주의는 처음으로 우리 식의 사회주의 사실주의, 주체사실주의로 발전하게 되었다.

창작방법은 세계관과 떼을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사회주의적사실주의는 유물변증법적세계관에 기초하고있지만 주체사실주의는 사람중심의 세계관, 주체의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다. 주체의

세계관은 세계의 시원문제가 유물론적으로 해명된 조건에서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새롭게 제기하고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를 밝힘으로써 사람중심의 철학적세계관을 확립하였다.

주체사실주의가 세계관발전의 가장 높은 단계를 이룬 사람중심의 철학적세계관에 기초하고 있다는 여기에 선행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와 질적으로 다른 근본특징이 있다.

주체사실주의가 선행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와 질적으로 구별되는 독창적인 창작방법이라고 하여 선행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와 아무런 련관이 없는것이 아니다. 주체사실주의는 그 계급적리념과 사실주의적형상방법의 공통성으로 하여 선행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와 깊은 련관을 가지고 있다.

주체사실주의는 선행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와 같이 관념론적이며 형이상학적인 부르조아문예리론과 자연주의, 예술시장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동적인 문예조류를 반대하는 첨예한 투쟁속에서 발생발전하였다. 주체사실주의와 선행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는 다같이 착취없고 압박없는 새 사회를 건설하려는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위업에 복무하는 문학예술의 창작방법이다. 주체사실주의와 선행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는 다같이 현실을 사실주의적원칙에서 반영하고있으며 진실성을 생명으로 하고있다.

주체사실주의의 발생발전은 지난날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가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 주체사실주의를 지난날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의 단순한 계승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주체사실주의의 창시는 종래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의 귀중한 경험을 계승한, 그 자체보다도 문학예술창작방법을 자주시대의 요구에 맞게 혁신하고 더욱 발전시킨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 직장장의 하루

강복례

그림 김원래

청춘의 열정과 로동의 희열이 약동하는 공장의 아침은 출근길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싶었다. 방직 공장으로 가는 산업동 네거리는 출근길을 재촉하는 젊고 발랄한 처녀, 총각들의 룡담과 익살, 인사말과 웃음소리로 차고넘친다.

활기에 찬 사람들의 흐름을 마중하듯 동쪽하늘에 솟아오른 태양은 황금빛 아침노을을 펼치여 온 누리를 붉게 물들였다. 대기는 맑고 신선했다.

하르르한 진곤색 달린옷을 가쁜히 입은 2직포 직장장 김명옥은 사람들의 물결을 뒤에 떨구며 걸음을 다그쳤다. 남편이 있고 두 아이의 어머니인 그는 언제나 아침시간이 제일 바빴다.

올해 인민학교 4학년 학생인 딸딸 은희는 그래도 제손으로 학교에 갈 차비를 할수 있었지만 작년가을에 인민학교에 입학한 아들에 경수는 책가방을 메워 문밖으로 내보내기까지 일일이 어른의 손이 가야 하고 잔소리를 해야 한다.

농업대학에서 강좌장으로 교편을 잡고있는 남편에게도 안해로서 마음을 써야 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그러니 언제 한번 바쁘지 않는 날이 있겠는가! 더구나 김명옥이 책임지고있는 2직포직장은 다른 직포직장들과 마찬가지로 수백대의 직기와 수백명의 종업원을 가진 큰직장이다. 공장에는 혼라직장으로부터 완성직장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직장이 있지만 그 모든 직장들은 결국 천을 짜는 직포직장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할수도 있었다. 공장이 국가앞에 내놓아야 할 생산물은 고치나 실이 아니라 천인것이다.

김명옥은 방직공장에서 12년간 직포공으로 일했다, 그후 5년간은 일하면서 경공업대학에서 공부했다. 대학을 졸업한후 지금까지 직장장으로 일하고있다. 그는 대학에 다니면서 결혼했고 두 아이를 낳아 키웠다. 언제 한번 바쁘지 않는 때가 없었지만 직장장이 된후에는 그 책임의 중요성으로 하여 더 바쁘고 어깨가 무거웠다.

홍조가 비낀 회고 가름한 얼굴이며 술많은 까만머리는 녀성적인데가 있었지만 역실역실하고 리지적인 눈은 상냥하다기보다 대바르고 강직한 성미를 더 강하게 느끼게 했다. 하긴 그는 별로 상냥하지 못했다. 같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책임기사나 통계원은 물론 늘 얼굴을 맞대야 하는 교

대부직장장들도 그를 녀성으로 대하기보다 설비나 생산에 파고들면 용서가 없고 사정을 모르는 직장장으로 알고있었다. 가정생활은 그와 달랐지만 그는 때때로 아이들이나 남편을 위해서 마음을 써야 할 시간이 너무도 적은것이 안타까웠다.

오늘아침의 일도 그랬다.

아침상을 거두느라 부엌에서 어물거리는사이 남편이 아래방에서 큰소리로 물었다.

《여보, 흰 와이샤즈들은 다 어떻게 했소?》

《빨아서 넣어두었어요. 왜 그래요?》

남편이 옷장을 뒤지는듯하더니 찾지 못했는지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어데 있단 말이요? 들어와서 찾소.》

김명옥은 행주치마에 손을 닦고 방으로 들어오며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다.

《갑자기 흰 와이샤즈는 왜 찾아요?》

《입어야 되겠으니 찾지 왜 찾겠소. 오늘 졸업반학생들의 논문발표모임이 있단 말이요.》

남편의 음성은 벌써 곱지 않았다. 명옥은 흰 와이샤즈 하나를 찾아냈으나 구김살이 가서 다림질을 해야 했다. 남편은 성이 나서 딸애에게 말했다.

《은희야, 다리미를 꽃아라.》

그리고는 다림질을 하기 위해 물그릇을 가지러 부엌으로 나가는 명옥이를 멈춰세웠다.

《여보, 당신의 일이 바쁘다는건 나도 알지만 그래도 필요한 옷이야 손질해두어야 하지 않겠소. 이건 초보적인 요구란 말이요.》

김명옥은 참으려고 했지만 그만 대답이 나갔다.

《내 잘못도 있지만 그런건 어제저녁에 말하면 되지 않아요.》

그 대답에 남편은 벌컥 성을 냈다.

《그쯤한거야 준비되어있어야지 일일이 말해야 되겠소?》

그러더니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은희가 꽃아놓은 다리미줄을 잡아뽑고 늘 입고다니는 연회색샤즈를 그대로 입었다. 그리고는 넥타이도 매지 않은채 나섰다.

남편이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간후 김명옥은 한숨을 내쉬며 부엌에 우두커니 서있었다.

(이젠 직장장의 일을 그만두고 좀 한가한데로 일자리를 옮겨달라고 할가. 항상 자기가 다리미를 들게 되고 때로는 부엌일도 손을 대야 하니 신경질이 날수밖에 없지...이젠 그이도 평교원이 아니고 강좌장이다... 그렇다고 대가 중요한 직장장의 일을 허술히 할수도 없지 않는가.)

어수선했던 생각에 잠겨 진정하지 못하던 김명옥은 공장을 향해 걸음을 다그쳤으나 대학생들의 논문발표모임에 참가할 남편의 옷차림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 남편에게 안됐다는 미안한 생각과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욕을 하라 싶어 언짢은 생각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

사무실에서 옷을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김명옥 직장장은 작업장을 돌아보기 위해 사무실을 나섰다. 이것은 언제나 그의 아침 첫 일과였다.

수백대의 직기가 천을 짜고있는 아득히 넓은 작업장은 고르롭게 울리는 기계소리와 직기사이를 누벼다니는 직포공들과 수리공들의 움직임으로 하여 이 아침도 변함없는 활력을 간직하고있었다. 작업장에 나서자 명옥은 집에서 있었던 불쾌한 일과 마음의 동요, 남편에 대한 미안한 생각들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다시 전신이 팽팽해지는 긴장을 느꼈다. 그는 직기사이를 누벼다니는 직포공들과 수리공들의 옆을 지나 넓은 작업장을 한바퀴 돌았다.

밤교대가 짜놓은 천이 밀차들마다에 산더미같이 쌓여있고 금방 기대에서 떨어진 천통구리들도 많았다. 허나 오늘아침부터 시제품생산에 들어가게 되어있는 기대들중에서 396호와 421호, 522호는 아직도 틀거리를 바꾸지 못한채 멎어있었다.

시제품으로 짜야 할 새 룡직 도투마리가 다 오지않았다는것이다.

명옥직장장은 급히 사무실로 발길을 돌렸다. 사무실에서는 책임기사와 통제원이 그를 기다리고있었다. 김명옥은 그들과 아침인사를 나누고 자기책상앞으로 가서 의자에 앉으며 물었다.

《책임기사동무, 새 룡직 도투마리가 다 오지 않았더군요. 직포준비직장에 알아보았어요?》

《예, 아직 생산된게 없답니다.》

작년가을에 경공업대학을 졸업하고 공장에 배치되어와서 립시 기술준비실에 있다가 얼마전에 현장 책임기사로 내려온 윤영섭은 어질어보이는 인상 그대로 어쭙게 대답했다.

김명옥의 억실억실한 눈에 못마땅한 기색이 떠올랐다.

《그래 언제까지 기대를 세우고 기다려야 하나요?》

책임기사는 마치 자기의 잘못이거나 한것처럼 당황해하면서 대답했다.

《낮교대에는 기대를 돌리게 하겠답니다.... 그래서 좀 빨리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명옥은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예리해졌다.

《그렇게나 말해서 준비직장 사람들이 뜨끔해할게 뭐예요. 구실이 없는 일이 있나요? ... 책임기사동무, 이걸 알아야 해요. 직포준비직장이나 직포수리직장이 다 직포직장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천을 직접 짜는 우리들처럼 안타깝지는 않아요. 목이 마른 사람이 먼저 우물을 판다구, 우리자신이 먼저 보채고 독촉하고 뛰어다녀야 해요.》

젊은 책임기사는 대답을 못하고 얼굴이 불깃해서 앉아있었다.

김명옥은 목소리를 좀 낮추어 말을 이었다.

《책임기사동무, 새 제품을 짜게 된 기대들은 어떻게 하나 빨리 다 생산에 들어가게 해야겠어요. 직포준비직장엔 나도 알아보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윤영섭은 조용히 대답하고 일어서서 밖으로 나갔다. 김명옥은 책임기사가 좀더 이악하고 결배있고 아글타글했으면 하고 바라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통제원에게 어제 오후교대의 생산실적을 요구하고나서 수화기를 들고 직포준비직장을 찾았다. 마침 준비직장장이 나왔다.

《안녕하세요. 2직포 직장장입니다. 오늘아침부터 시험생산에 들어가야 할 새 룡직 도투마리가 아직도 다 오지 않아서 그렇니다.》

김명옥이 직포공으로 있던 시절부터 직장장으로 일하는 직포준비직장장은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우리도 다 알고있소.》

김명옥은 침착해지려고 애썼다.

《직장장동지, 그 도투마리들은 언제 보내주겠습니까?》

《오후 교대에 보내겠소.》

김명옥은 긴장해졌다.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직장장동지도 직기 한대가 한교대만 서있으면 천을 얼마나 못짜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책임지겠소.》

김명옥은 준비직장장의 무책임한 대답에 코웃음치듯 말했다.

《직장장동지, 책임지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늦장을 부리면 인민들에게 돌려져야 할 천이 그만큼 못나오는게 문제지요.》

준비직장장은 느닷없이 성을 냈다.

《그걸 내가 모르오. 직물조직이 한꺼번에 여러 가지로 바뀌니 우리도 어쩔수 없지 않소. 너무 이악을 부리지 말고 좀 기다리오.》

《직장장동지, 우린 천을 짜야 할 사람들이니 이악을 부릴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책임기 사동무를 거기로 보내겠습니다.》

《와보오. 다섯개 직포가 저마다 독촉인테 어디 와보오.》 하는수 없는지 직포준비직장장은 탄식 하듯 말했다.

김명옥은 10시부터 있게 될 부문별 소참모회의 에서 직접 따끔하게 말하리라 마음먹고 수화기를 놓았다.

마침 교대를 끝낸 부직장장들이 가동일지며 인 계인수대장들을 들고 사무실에 들어섰다.

김명옥은 밤교대 부직장장 조성만으로부터 설 비가동정형과 생산정형, 노동자들의 출근정형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그는 부직장장의 보고에서 다기대공 한탄실이 벌써 이틀째 안나오는데 주의 가갔다.

《부직장장동무, 탄실이 왜 안나오는지 알아보 았어요?》

조성만부직장장은 무뚝뚝한 성미그대로 시답지 않게 대답했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답니다.》

《예? 아이가 어떻게 앓는대요?》

김명옥은 금시초문이었어서 다그쳐 물었다.

《모르지요. 아이들이야 찍하면 앓는걸요.》

그의 대답은 여전히 시답지 않아하는 내심을 그대로 드러냈다.

김명옥은 사업일지에 《탄실이 병원에 입원》이 라고 적었다. 그를 찾아가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가 사업일지에서 얼굴을 들자 조성만부직장장은 기다렸다는듯이 말했다.

《직장장동무, 탄실이같은 애기어머니들을 당분 간 보조부문에 돌리면 어떨까요? 아이가 아파서 못나와, 나와도 탁아소에 다닐래 어데 일을 제대로 합니까?》

김명옥은 한 작업반에 애기어머니들이 두세명 만 있어도 생산이 떨어진다고 작업반장들이 달가와안하고 부직장장들도 골치거리로 여긴다는것을 알고있다. 하지만 그는 조성만부직장장의 제의를 받아들일수 없었다.

《부직장장동무는 잘못 생각하고있어요. 처녀들 은 의례히 시집가기 마련인데 방직공장에서 애기 어머니들을 보조부문에 돌리면 기능이 높은 기대 공들을 다기대에서 떼게 된다는 말인데 그렇게해서야 되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기대가 늘어나서

기능공들이 더 요구되는데.》

《다른 직장에선 그렇게 하는데도 있던데요.》

조성만부직장장은 딱한듯이 대답했다.

《글쎄 다른 직장에선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난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부직장장동무는 애기어머 니들을 시끄럽게 생각하는 그 관점부터 고쳐야겠 어요.》

김명옥은 부직장장들이 다시는 그런 생각을 못 하도록 따끔하게 말했다. 그래서지 부직장장이 된지 얼마되지 않는 아침교대 부직장장은 그 일 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조성만부직장장은 참지 못하고 지나가는 말처 럼 한마디했다.

《이러나저러나 탄실인 공장을 그만두겠다는것 같습디다.》

《탄실이가 공장을 그만두어요? 누가 그래요?》

직장장이 하도 놀라서 묻자 조성만부직장장은 어물어물 대답했다.

《작업반에서 그런 말이 돌던데요.》

인계인수정형에 대한 보고가 끝나고 부직장장 들이 작업장으로 나가자 김명옥은 잠시 생각에 잠겨앉아있었다. 탄실이가 공장을 그만두다니...

김명옥은 아무리 생각해도 탄실이의 일을 리해 할수 없었다.

그를 빨리 찾아가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해 졌다.

전화종이 다급하게 울려서야 김명옥은 자기 생 각에서 깨어났다. 10시부터 직포직장들의 소참모 회의가 있다는 연락이었다. 김명옥은 수화기를 놓고 시계를 보았다. 그는 곧 사업일지를 들고 사무실을 나섰다.

×

산업동에서 대성동까지의 시내빠스는 점심시간 에도 사람이 붐비었다. 김명옥은 집에 들려 급하 게 점심을 먹고 산업동 네거리에 나섰다. 초여름 이라 하지만 한낮은 무척 더웠다.

사람들은 모두 더위를 피하려는듯 그늘을 찾았 다. 그제야 김명옥은 날씨에 비해 자기 옷색같이 너무 툭툭하다는것을 생각했다. 마침 시내에서 나오는 대형빠스가 정류소에 와닿았다. 붐비는 사람들속에 섞여 빠스에 오르자 계절에 대한 그 의 생각은 뒤전으로 물러섰다. 탄실의 어린애가 무슨병으로 앓는지... 아이때문에 공장을 그만두 겠다고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했 다. 처녀시절부터 다기대공으로 이름난 한탄실은 직장뿐아니라 공장적으로도 귀중히 여기는 직포

공이다.

탄실이와 같은 기능이 높은 직포공이 있어 직장도 자랑스러운 때가 많았다.

병원 고유의 소독약냄새를 맡으며 복도에 들어서자 어린애를 안고 식당에서 돌아오던 탄실이 먼저 직장장을 알아보고 반기며 다가왔다.

《어마나 직장장동지, 바쁜데 왜 나왔어요?》

《아무리 바빠도 애가 아파 입원했다는데 나와 보아야지... 영호야, 어쩔니?》

김명옥은 탄실이 안고있는 어린애의 손을 잡으며 애가 알아듣거나 할것처럼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첫돌이 채 못된 사내애는 좀 해쓱해지기는 했으나 앓는 아이 같지 않게 발죽발죽 웃었다.

김명옥은 저절로 얼굴에 웃음이 떠올랐다.

《이녀석 아프다면서 웃긴.》

그는 또다시 어린애에게 웃음의 소리를 하고 나서 탄실이와 같이 걸음을 옮기며 물었다.

《애가 무슨 병으로 입원했나?》

《그저께부터 소화불량증으로 앓기 시작했어요. 어제 오후에 열이 더 심해져서 입원했는데 밤에 집중해서 치료를 받고 이젠 펍 나왔어요. 인차 퇴원하겠어요.》

《퇴원을 서두르진 말아요. 병원에서 일없다고 할 때까지는 치료를 받아야 돼.》

그들은 같이 입원실에 들어섰다. 침대 넷이 놓여있는 양지바른 입원실은 밝고 따뜻했다.

김명옥은 창문결에 있는 탄실이의 침대에 걸터앉으며 어린애를 받아안았다.

《영호가 어머니를 놀래웠겠구나! 하긴 첫 아이 때는 언제나 그런 법이야! 조금만 아파도 큰 변이 나는것 같지.》

직장장의 말에 탄실이도 마주앉으며 웃었다.

《정말 어저께는 얼마나 겁이 났는지 몰라요. 입원하라는 담당의사의 말을 듣자 난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그런데 밤에 점적을 하니 까 아침엔 열도 내리고 설사도 몇지 않겠어요.》

《첫 아이때는 그렇다니까. 아무튼 이제도 치료를 잘 받아야 해요.》

김명옥은 시름을 놓는듯한 한탄실을 타이르고 얼굴에서 웃음을 거렸다.

《탄실이, 나 하나 몰겠어. 공장을 그만두겠다고 했다면서?》

탄실이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잠시 입을 다물고있다가 어렵게 말을 건넸다.

《영호 아버지가 공장을 그만두라고 해서...》

《남편이?》

김명옥은 놀라듯 되뇌었다. 그는 방금전까지도 그 말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랬다.

한탄실은 직장장의 눈을 피해 시선을 떨구었다.

《그래 탄실인 어떻게 생각하나? 남편이 하라는 대로 공장을 그만두겠어?》

탄실이는 한숨을 내쉬고 어물어물 대답했다.

《저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탄실인 하루에 400미터씩 천을 짜는 다기대 공인데 공장을 그만두고 집에 들어가면 뭘하겠어? 남편에게 매달려서 편안하게 살자는건가? 지금 온 공장이 천생산을 늘이겠다고 들끓고있는데 공장의 자랑인 동무가 어찌면 그런 생각을 다하나. 아무래도 내가 동무의 남편을 만나보아야겠어.》

고개를 숙였던 탄실이 직장장을 쳐다보며 애원하듯 말했다.

《직장장동지, 남편도 남편이지만 제가 그이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서... 그러다나니 별치 않은 일에 가정불화도 생기구 전 그게 안타까워요.》

김명옥은 불현듯 아침에 집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났다. 그때 자기도 이제는 직장장의 일을 그만두고 편안한 일자리로 옮겼으면 하고 바라지 않았던가! 자신도 그랬으니 첫애기 어머니인 탄실이야 더 말해서 무얼 하겠는가! 그는 음성을 낮추어 탄실이에게가 아니라 자신에게 하듯 진지하게 말했다.

《탄실이, 나도 동무의 그런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요. 나자신도 직장장의 일을 그만두고 시키는일이나 했으면 하고 생각할 때가 한두번이라구, 하지만 우리가 쉬운 일자리나 찾고 남편에게 매달려 산다면 거기에 무슨 사는 보람이 있겠어... 잘 생각해봐요... 그럼 난 바빠서 가겠어.》

김명옥은 안고있던 어린애를 탄실이의 가슴에 안겨주고 일어섰다. 그는 어쩐지 할말을 다하지 못한것 같았으나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인차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탄실이는 대답이 없었다.

그는 밖으로 따라나와서야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직장장동지, 저도 지금까지 공장을 떠난 자기 생활을 상상하지 못했었어요. 공장을 그만두면 제게 무슨 사는 기쁨이 있겠어요. 저도 그걸 알아요. 하지만...》

탄실이는 문득 말을 끊고 입을 다물었다.

《남편이 탄실이의 그런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는건 아닌가?》

김명옥은 탄실이의 얼굴을 찬찬히 보며 물었다.

《그렇지도 않아요. 애아버지도 공장을 아주 그

만두라고 한건 아니예요. 아이가 클 때까지 얼마 동안만...》

《그렇다면 탄실이는 어떻게 생각하나?》

탄실이는 말을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김명옥은 모든것이 명백해졌다.

《탄실이, 그러고보니 이견 남편들보다 우리 녀성들 자신의 문제가 아닐가? 집살림도 더 알뜰하고 간지게 하고 아이도 더 잘 키우고 그러면 어느 남편이 공장에서 큰일을 할수 있는 혁신자를 집에 들어와 놀라고 하겠어...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사소한 곤난을 이기지 못해서 공장을 그만둘 생각부터 하니 이견 얼마나 의지가 약한 표현이나. 난 탄실이만은 매우 강한 사람인줄 알았었어.》

탄실이는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는 계면쩍은 미소가 떠올랐다.

《직장장동지,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생각해보겠어요.》

김명옥이도 웃음을 지었다.

《잘 생각해봐요, 그럼 치료를 잘 받으랴요.》

그랬으나 뺄스정류소로 나오는 김명옥의 걸음은 가볍지 않았다. 녀자들이 가정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면서 공장에 나와 천을 짠다는것이 결코 쉬운일은 아니다. 탄실이같은 기능이 높은 동무들도 시집을 가고 아이가 생기니 공장을 그만둘 생각부터 하고있지 않는가...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 녀성들자신의 강한 의지와 함께 남편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도움이 있어야 한다. 같이 나라와 인민을 위해서 일하는 혁명동지로서의 이해와 방조가 있어야만 녀성들자신의 나약성도 극복해나갈수 있을것이다. ... 앞으로 시간을 내어 기계공장에 다니는 탄실이의 남편을 꼭 만나보아야겠다.

김명옥이 공장에 돌아와 직장사무실에 들어서니 책임기사와 통계원이 제각기 자기 책상에 마주앉아 일을 하고있었다.

김명옥은 외출복을 갈아입으며 책임기사에게 물었다.

《그새 무슨 일이 없었어요?》

《396호와 421호가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522호도 방금 도투마리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요? 수고했어요.》

김명옥은 이렇게만 말했으나 어질어보이는 책임기사가 용케도 도투마리들을 빨리 받아왔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가벼웠다. 그는 선자리에서 인차작업장으로 나갔다. 책임기사의 말대로 396호와 421호 기대는 새 제품의 시험생산에 들어갔으며 522호 기대도 틀거리작업을 다그치고있었

다.

김명옥은 522호 기대앞에서 걸음을 떼어 작업장을 한바퀴 돌았다. 직포공들의 걸음도 빨랐고 수리공들의 일손도 민첩했다. 한편 생산된 천통구리들이 밀차에 실려 완성직장으로 운반되고있었다. 모든 교대들이 이렇게만 일해준다면 증산계획까지도 어렵지 않게 수행할수 있을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작업장을 돌아보고 사무실로 오던 김명옥은 어느 한 기대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수리공 김정남이와 직포공 허선애가 다투고있었던것이다. 김정남과 허선애는 다 같이 기능이 높은 우수한 수리공이며 직포공이다.

기계의 동음으로 하여 그들의 말소리는 알아들을수 없었으나 성난 얼굴표정으로 보아 다투고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김명옥은 그들에게로 다가가서 기계소리를 누르듯 큰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이세요?》

두사람은 직장장을 흘깃 돌아보고 입을 다물었다. 허선애는 얼굴을 붉히며 자기 기대로 돌아갔다. 직장장앞에는 김정남이만 서있었다.

김명옥은 작업장에서 이야기가 제대로 될것 같지 않아 정남이의 팔을 잡았다.

《무슨 일인지 사무실에 가서 이야기하지요.》

김정남은 순순히 직장장을 따라왔다. 사무실에 들어서서 직장장이 자기 자리에 앉기도전에 그는 자기 요구를 제기했다.

《직장장동지, 교대를 바꿔주십시오.》 □

《교대를 바꿔요? 왜요?》

김명옥은 의아해서 그를 쳐다보았다.

《하여간 바꿔주십시오. 전 이 교대에서 일을 못하겠습니다.》

정남이의 태도는 단호했다.

《교대를 바꾸는 문제는 토론해야 돼요. 부직장장동무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어요... 그런데 선애하군 왜 싸워요?》

《직포공들도 기대관리를 잘해야지 기대는 어찌되던 천만 짜면 된다고 생각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했습니다.》

《정남동무의 말이 옳아요. 직포공들도 기대관리를 주인답게 해야 돼요. 그렇다 해도 잘 타일려야지 다투어서야 되겠어요? 나도 선애한테 말하겠어요.》

마침 아침교대 부직장장이 책임기사를 찾아 사무실에 들어섰다. 정남이는 자기 부직장장을 보자 얼른 돌아서서 작업장으로 나갔다.

교대부직장장은 아랑곳없이 책임기사에게 멀지않아 있게 될 수리공들의 기능급수시험 세척들을

문의하고 돌아섰다. 김명옥이 그를 불러세웠다.

《부직장장동무, 정남동무하구 선애가 다투길래 알아보려고 정남동무를 데리고 왔는데 그 동무는 무작정 교대를 바꿔달라는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부직장장은 짐작이 가는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동무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요새 선애네 부모들이 선애를 덕천인가 어데로 시집보내려고 한다는 말이 돌더니 그때부터 두사람은 찍하면 다투군합니다.》

《예? 선애가 덕천으로 시집간단 말이에요?》

김명옥은 뜻밖의 사실에 놀랐다. 그는 기다리지 못하고 따지듯 다시 물었다.

《부직장장동무, 선애가 정말 덕천으로 시집간대요?》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교대가 끝나면 선애를 나한테 보내주세요.》

부직장장이 대답하고 사무실을 나갔으나 김명옥은 한동안 그대로 앉아있었다.

선애만한 기능공을 키우자면 적어도 5~6년은 걸려야 한다. ...공장대학에 다니는 정남이도 지향이 높고 열성이 있는 좋은 동문데 왜 그를 마다하고 덕천으로 시집가려고 할가? 아무튼 선애를 만나보아야겠다.

## ×

아침교대와 낮교대의 인제인수시간이 박두해 오고있었다. 교대당 생산량과 하루 총생산량이 종합되기까지 실히 한시간이 남았다.

이제 한시간후이면 교대당 생산량과 직장의 하루 총생산량이 종합된다.

통계원은 언제나 그러하듯 오늘도 한시간전에 교대의 기록공에게서 생산실적을 료해하였다.

그는 사무실로 돌아와 다소 불안해하는 시선으로 직장장에게 말했다.

《직장장동지, 아침교대에서 계획을 하려면 아직 3백미터를 더 짜야했는데 아무래도 좀 긴장할것 같습니다.》

김명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직물조직이 바뀌는 조건에서 응당 있을수 있는 변화였다. 기능이 높지 못한 직포공들은 직물조직이 바뀌면 얼마동안은 일손이 굼떠지기마련이다.

그러나 김명옥직장장은 긴장한 생산량을 앞에 놓고 이대로 방임해둘수가 없었다. 그에게 있어서 계획은 법이며 당적량심의 거울이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한시간내로 3백미터를 기대에서 떼내야한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책임기사동무, 현장에 나가서 도투마리가 10미터씩 남은 기대를 30대만 골라냅시다. 그 30대에 힘을 집중해서 한시간후에는 3백미터를 완성직장으로 보내야겠어요. 책임기사동무는 1반에서 5반까지 말고 나머지 작업반은 내가 맡겠어요.》

책임기사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두사람은 같이 사무실을 나섰다. 잠시후 그들은 30대의 직기를 선발하였고 거기에 유능한 수리공들을 불렀다. 직장장도 책임기사도 현장에서 떠나지 않고 직포공들과 수리공들의 일손을 도왔다.

그리하여 시간이 되기전부터 기대에서 천통구리들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직장장이 직접 천통구리들을 들고 완성직장으로 갔다. 시간은 빨리도 흘러갔다. 시간과 함께 천의 메터수도 늘어났다. 책임기사가 30대의 직기중 마지막 기대에서 떨어진 천통구리를 들고 완성직장 측정기앞으로 오자 가슴을 조이던 교대의 기록공이 환성을 올렸다.

《직장장동지, 계 356미터입니다.》

김명옥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책임기사를 돌아보았다.

《책임기사동무, 수고했어요.》

교대간 인제인수가 끝난 오후 5시 직장의 하루 총생산량이 종합되었다. 통계원은 계획보다 넘쳐한 생산일보를 직장장의 책상우에 갖다놓았다.

김명옥은 생산일보를 일별하고 일생산총화를 위한 공장 참모회의에서 제기할 문제들을 사업일지에 적고있었다. 그러느라 사무실문이 열리고 직포공 허선애가 들어온것도 그는 미처 몰랐다.

《직장장동지, 절 찾았어요?》

책상앞으로 다가온 허선애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김명옥은 시선을 들었다. 퇴근할 차비인지 하늘색을 갈아입어 더 날씬하고 키가 커보이는 허선애는 언제나보다 시원스럽고 활발한 인상을 주는 처녀였다.

김명옥은 그제야 허선애를 불렀던 생각이 났다.

《선애동무, 정말 부모님들의 요구대로 덕천으로 시집가려고 하나?》

직장장의 단도직입적인 물음에 선애는 얼굴이 빨갛해졌으나 눈에는 터무니없어하는 웃음이 떠올랐다.

《아닙니다. 직장장동지, 난 부모님들에게 싫다고 말했어요. 내가 왜 나서자란 고향을 두고 덕천으로 가겠어요.》

《그렇다면 왜 정남동무를 멀리 하나? 그 동무는 열성이 있고 좋은 동문데. 그리고 이제 2년만 지나면 기사가 돼.》



《직장장동지두, 내가 그 동무에게 뭐했나요. 제  
가 공연히 시끄거리지, 내 기대의 고장신호대는  
보면서도 그냥 지나가니까 나도 화가 나지 않을  
게 뭐예요.》

김명옥의 마음은 흐렸던 하늘에서 금시 햇빛이  
비치듯 확 밝아졌다.

《그러니 정남동무가 공연한 트집이구나! 교대  
까지 바꿔달라고 하면서...》

《예? 그 동무가 교대를 바꿔달래요? 어이가없  
구나!》

선애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그러나 김  
명옥은 명랑한 표정을 지으며 심각해진 선애에게  
말했다.

《그럼 됐어. 정남동무는 래일 내가 다시 만나  
겠어, 일이 다 잘될거야. 피곤할텐데 어서 가보  
요.》

《저도 만나서 말하겠어요. 난 그 동무가 그런  
게 웅줄할줄은 몰랐어요.》

선애는 새침해서 돌아서려고 했다.

김명옥은 그를 불러세웠다.

《선애, 그건 웅줄한게 아니야, 사랑할 땐 별 오  
해가 다 생기게 돼. 정남동무를 만나서 공연히  
오뜰거리지 말구... 그 동무는 좋은 동무야.》

선애는 언제 성이 났던가싶게 방긋 웃었다.

《직장장동지, 저도 알아요.》

김명옥은 사무실을 나서는 선애의 뒤모습을 바  
라보며 오늘 처음으로 시름이 놓이는 밝은 미소  
를 지었다.

×

일생산총화를 위한 공장참모회의는 날이 펴 어  
두워서 끝났다. 김명옥은 기사장실을 나서자 또  
다시 직장으로 걸음을 다그쳤다. 오늘저녁에 제  
대군인인 수리공 김성철의 결혼식이 있어 아무리  
바빠도 결혼식에는 가야 했다.

더구나 김성철은 자재과에서 일하는 덕배아바  
이의 아들이다. 작년 여름에 제대해온 그는 수리  
공으로 배치되어 반년남짓하게 일했으나 열의가  
높고 꾸준하여 남달리 일을 빨리 습득하였고 성  
실한 품성으로 하여 동무들의 사랑을 받고있었  
다.

김명옥이 직장사무실에 들어서자 통계원은 기  
다렸다는듯이 말했다.

《직장장동지, 결혼식에 늦지 않게 오시랍니다.  
부직장장동지랑 기다리다 먼저 갔어요.》

김명옥은 낮에 결혼선물을 준비하라고 통계원  
에게 말했던 생각이 나서 물었다.

《통계원동무, 결혼선물은 어떻게 됐어요?》

《공장 상점에서 사왔습니다.》

통계원은 자기 철계안에서 공예품같이 묘하게  
만든 탁상시계와 리도령과 성춘향을 형상한 벽에  
거는 희한한 공예품을 꺼냈다.

김명옥은 결혼선물을 보자 환성을 올렸다.

《결혼선물이 좋구만! 그럼 어서 포장해가지고  
떠나자요.》

책임기사는 낮교대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 공  
장에 남고 통계원이 직장장과 같이 가기로 했다.

이윽고 김명옥직장장과 통계원은 결혼선물을  
싼 보자기를 들고 공장을 나섰다.

동실해진 달이 구름 한점 없는 하늘중천에 걸  
려있으나 밝은 가로등들과 고층아파트 창문들에  
서 비치는 환한 불빛으로 하여 달빛은 무색해졌  
다.

두사람은 부지런히 걸어 공장 합숙을 지나고  
산업동 네거리에 들어섰다.

김명옥은 잠간이라도 집에 들러 아이들에게 저  
녁 먹을 차비를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걸  
음을 멈추었다.

《통계원동무, 이 선물을 가지고 먼저 가요. 난  
아이들에게 국수라도 바꿔다주고 가겠어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집쪽으로 달려갔다. 그는 3  
층까지 올라가 문을 열고 현관에 들어서며 소리  
쳤다.

《은희야 ?》

《응. 엄마.》

열한살난 딸애가 부엌에서 얼굴을 내밀며 반겼  
다. 그런데 손에는 식칼이 들려있었다. 김명옥은  
눈이 둥그래서 물었다.

《은희야, 너 뭘하니?》

《파 썰어.》

딸애는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네가 뭘한단구 ?》

《아버지가 해보라고 했어.》

《아버지 오셨니 ?》

《응. 세면장에서 경수 씻어줘.》

김명옥은 남편이 어쩌다 이렇게 일찍 들어왔나  
싶어 의아해했다. 또다시 아침에 있었던 일이 떠  
올랐고 남편에게 죄를 진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문을 열어놓은 방안에는 아이들의 책가방이며 그  
림책들이 마구 널려있었다. 김명옥은 얼른 신을  
벗고 방으로 들어가 방안을 대충 치웠다.

공장에 나가면 수백명 노동자들을 지도하며 하  
루에도 수만미터씩 천을 짜는 직장의 직장장이지  
만 그도 집에 들어오면 한가정의 주부이며 안해  
이며 아이들의 어머니인것이다.

김명옥은 방안을 치우고나서야 세면장으로 나와 문을 열었다.

딸애의 말대로 남편이 아들애의 얼굴을 씻어주고있었다. 어머니가 세면장에 들어서자 경수는 잔뜩 비누칠을 한 얼굴을 돌리고 큰소리로 자랑했다.

《엄마, 철남이 나한테 졌다.》

《가만 있어. 얼굴이나 씻고 말해라.》

남편이 아들애의 머리를 돌리며 나무랐다.

김명옥은 남편에게 물었다.

《당신이 어찌다 이렇게 일찍 들어왔어요?》

《더러 그런 때도 있지.》

남편은 대답하고나서 세면장에 들어서려는 안해를 만류했다.

《여보, 들어오지 마오. 방금전에 덕배아바이가 왔다 갔소. 직장장이 결혼식에 오지 않는다고 섭섭해하두만.》

《지금 가던 길이에요. 아이들에게 저녁 먹을 차비나 해주고 갈려고 들렸어요.》

《은희가 국수를 바꿔왔소. 그런건 이젠 은희한테 시키오. 곧잘 하던데.》

《그래요? 그럼 됐어요.》

김명옥은 기뻐하면서 세면장에서 나와 부엌에 들어섰다. 그리고는 딸애가 바꿔다놓은 국수를 그릇에 나누어 담고 국수국물을 만들었다.

다 씻은 아들애를 데리고 세면장에서 나오던 남편이 나무라듯 재촉했다.

《여보, 빨리 가보오. 그래도 직장장이라구 로인이 찾아왔했는데... 집일이야 집에 있는 사람이 하면 되지 않소.》

남편의 말에는 안해가 직장장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한 타이름도 있었지만 가정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성실한 마음도 비껴있었다.

김명옥은 가벼운 마음으로 일손을 놓고 방안으로 들어가 진록색 조선치마저고리를 갈아입었다. 그는 집을 나서면서 남편의 너그러운 이해와 성실한 마음을 다시금 가슴뿌듯이 느끼었다. 생각해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6년동안 직장장으로 일할수있었던것도 남편의 이런 이해와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기때문이 아닌가싶었다. 간혹 신경질도 부리고 짜증도 내지만 그것은 본질적인것이 아니다. 그도 안해가 직장장으로서 생산에서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미흡한 점이 없기를 바라고있으며 마음을 쓰고있는것이다.

김명옥은 자기가 아침에 품었던 마음의 동요는 스스로 자신을 구속한 나약한 마음이었다고 심심히 돌이켜보았다. 그래서지 한탄실의 남편도 반

드시 이해하며 안해를 도와주리라고 그는 믿고있었다.

결혼식집은 김명옥의 집에서 멀지 않는 방직공장 사택마을의 한 다층주택 2층에 있었다.

김명옥이 문을 열고 현관에 들어서자 방안에서는 벌써 취기가 오른 사람들의 말소리가 새어나왔다. 부엌에서 일하던 성철이 어머니가 먼저 김명옥을 알아보고 방안을 향해 소리쳤다.

《원 이제야 오누만. 성철아, 직장장이 왔다.》

그러자 덕배아바이가 방에서 나왔다. 주름살 많은 로인의 얼굴에 행복한 웃음이 활짝 피여났다.

《직장장이 안온다고 욕을 했는데 이제야 나타났군.》

《덕배아바이, 오늘 기쁘시겠어요. 축하합니다.》

김명옥은 허리를 굽혀 로인에게 축하의 인사를 했다. 덕배아바이는 몹시 감동되어 김명옥의 손을 잡았다.

《직장장, 바쁘데 이렇게 와주어 정말 고맙소.》

그때 결혼식 레복을 차려입어 전에없이 키가 후리후리하고 잘나보이는 성철이 방에서 나왔다.

《직장장동지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김명옥은 성철이를 축하해주고 덕배로인에게 이끌려 방으로 들어갔다. 넓은 방안에는 신랑신부의 상을 마주하고 상앞에 몇몇 사람들이 앉아있었다. 모두가 낮익은 공장사람들이었다.

그들속에 낮에 기대앞에서 다투던 수리공 김정남과 직포공 허선애가 나란히 앉아있었다. 김명옥은 인차 그들을 알아보고 이제는 자기가 김정남을 따로 만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피뫼 떠올랐다.

공장사람들이 마주앉은 상우에는 갖가지 음식들과 청량음료들, 우리고뿌들이 놓여있었다. 김명옥직장장이 들어서자 유쾌해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리며 반겨주었다.

김명옥은 사람들에게 답례를 하고 덕배로인이 이끄는대로 신랑신부의 상가까이에 있는 자재과 아바이들 곁에 앉았다.

김명옥은 자리에 앉자 비로소 신랑신부쪽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연한 노을빛의 화려한 조선옷을 입은 신부도 고왔고 성철이도 오늘은 류달리 잘나고 의젓해보였다. 김명옥은 좌중을 둘러보며 기뻐서 말했다.

《동무들, 신랑신부를 축하해서 우리함께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좌석은 명랑해졌다. 모두가 신랑신부의 행복을 빌며 잔을 내었다.

김명옥은 다음으로 덕배로인의 잔에 술을 붓고

오늘의 그의 기쁨을 다시 축하해주었다.

덕배로인은 김명옥이 따라주는 술을 마시고 나서 김명옥의 잔에다 술을 부으며 말했다.

《직장장, 이번엔 내가 직장장에게 술을 권하겠네. 직장장은 잊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도 생각나네. 직장장이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서 돌아와 어머니를 찾아 우리 혼타직장으로 오면 나는 늘 《명옥아, 너 왜 또 공장으로 나오니, 집에 가거라》 하고 욕을 하곤했소. 그러던 명옥이가 이제는 우리 공장의 기둥이 되었소. 직장장, 그때 욕을 하던 이 덕배의 술을 받으라구.》

덕배로인의 얼굴에는 잊지 못할 추억을 더듬는 듯 감개무량한 표정이 함뿍 어렸다.

김명옥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로인이 부어주는 술잔을 들었다.

《덕배아바이 고맙습니다.》

그는 술잔을 든채 서서 감회깊은 어조로 말을 이었다.

《아바이, 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일하던 혼타직장 직장장이었던 덕배아바이는 저를 욕도 했지만 저의 학습장을 보아주고 공부를 잘한다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나날을 잊을수 없습니다.》

김명옥은 신랑신부쪽을 돌아보고 자기들의 이야기에 열이 오른 젊은이들을 둘러보며 조금 큰 소리로 말을 계속했다.

《동무들, 나는 오늘 기쁜날을 맞이한 신랑신부와 이자리에 온 젊은 동무들에게 하고싶은 말이 있습니다. 동무들은 덕배아바이나 여기 계시는 자재과아바이들의 지난날을 알아야 하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분들은 전쟁시기에는 산골짜기에 방공호를 짓고 거기서 군복천을 짚으며 전후에는 재더미속에서 온갖 곤난을 무릅쓰고 공장을 일으켜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 방직공업을 오늘에로 발전시켜왔습니다. 한때는 직장장, 부직장장, 혁신자, 고급기능공들로 공장의 핵심이었고 기둥이었던 이분들을 우리는 존경해야 하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뒤를 이어 공장을 굳건히 떠메고나가야 하며 우리의 방직공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온 나라 사람들을 더욱 곱게 내세우는 방직공이라는 영예와 책임감을 더 깊이 간직하고 천을 더 많이 짤시다.》

가슴에 북받치는 감격에 도취되어 김명옥은 마치 선동연설을 하듯 격동적으로 말했고 그 말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젊은 동무들은 자기들의 이야기를 그치고 김명옥의 말을 주의깊

이 들었으며 나이많은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난하고도 보람찼던 자신들의 지난날을 회고하였다.

김명옥이 이야기를 끝내고 자리에 앉자 마침 공장회관의 손풍금수가 왔다. 사람들은 흥성거렸다. 모두가 손풍금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고 춤들을 추었다. 추억의 노래들, 행복의 노래들, 희망찬 래일로 부르는 전투적인 노래들을 많이 불렀다.

로인들도 불렀고 젊은이들도 불렀다.

한공장 사람들이 모인 결혼 연회는 매우 흥겨워서 시간가는줄 몰랐다. 모두 유쾌한 기분으로 덕배아바이의 집을 나섰다.

김명옥은 공장 합숙으로 가는 직장의 수리공들이며 직포공들과 함께 걸어갔다. 그들은 직장장이 연설을 잘한다고 추어주었고 직장장의 노래를 처음 듣는다고 신기해하기도 했다. 김명옥은 그들과 같이 롱담도 하고 웃기도 하며 떠들었다.

자기 집이있는 살림집 앞거리에서 로동자들과 헤여진 그는 이제는 퍼그나 한적해진 밤거리를 혼자서 천천히 걸었다. 몸은 가벼운 피로감에 휩싸였으나 결혼식 집에서 받은 환희에 찬 흥분이며 로동자들과 같이 걸으며 떠들썩 웃어낸 유쾌한 기분은 가슴속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김명옥은 부지중 아침부터 바빠 돌아친 하루동안의 일을 돌이켜보았다. 그렇다. 오늘은 바쁜 하루였다. 하긴 오늘만이 아니라 자기 일은 언제나 이렇게 바빴다. 수백명의 로동자들을 지도하여 하루에 수만미터씩 천을 짜야 하는 한개 직장의 직장장이니 언제 하루 바쁘지 않는 날이 있겠는가!

어제도 오늘처럼 바빴으며 래일도 모래도 이렇게 바쁜것이다. 그러나 이 바쁜속에 참된 삶의 가치와 보람이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만일 자기가 한가한 일자리에서 남의 뒤꼬리나 따르다면 이런 삶의 환희와 보람은 결코 향유하지 못할것이다.

이렇듯 끝없이 솟구치는 흥분을 안고 걸음을 옮기던 김명옥은 자기집을 바라보았다. 불이 꺼져서 모든 창문들이 캄캄했으나 오직 한집 3층에 있는 자기집 창문에서만 불빛이 환하게 내비치고 있었다.

김명옥은 자기를 기다리며 강의안을 쓰거나 책을 읽고있을 남편을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걸음을 다그쳤다.

## 참된 녀은 대를 이어

김정길

어느날도 그렇지만 일요일의 우리 집은 더더욱 큰 기쁨과 행복으로 차고넘친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다.

유치원에 다니는 여섯살짜리 손자애는 자기가 만든 붉은 별을 어머니가 달아주겠다고 하는데도 종내 말을 안듣고 제손으로 모자에 달면서 캐득거리고 늦게 본 막내아들은 간밤에 빨아놓았던 소년단넥타이를 전기다리미로 다리느라고 야단이다. 그런가하면 대학에 다니는 아들은 주름잡은 교복바지를 쪽 빼입고서 옷웃가슴에 사로청회장을 달며 병글거리고 선이 펴 넘어 귀밑머리가 희숙한 안해마저도 옷단장, 목치장을 하느라고 알른알른한 삼면거울앞을 떠날줄 모른다.

오늘 유서깊은 대성산 주작봉에 자리잡은 혁명렬사릉에 가기로 한때문이다.

이윽고 차비가 다 되자 우리 집 아홉명의 대가정은 웃음발을 날리며 집을 나섰다.

날은 화강하고 공기는 더없이 맑고 신선하다.

8월의 아침해가 경치수려한 대동강반에 하늘높이 솟은 주체사상탑의 봉화를 붉게붉게 물들이면서 행복에 겨운 우리 집식구들의 밝은 얼굴을 함뻍 비쳐준다.

손자애의 머리에서는 빨간 별이 유난스레 빛나고 막내이의 가슴에서는 불어오는 살랑바람에 소년단넥타이가 자랑차게 나뭇긴다.

나는 앞에서 즐거운 산놀이라도 가듯 깔깔거리며 재롱스럽게 까치걸음을 걷는 귀여운 손자애와 막내이를 먼저 바라보았다.

반짝이는 눈, 맑은 웃음소리...

그 어디에도 그늘이란 없다.

나의 마음은 한껏 기꺼워졌다. 하면서도 사려깊은 생각이 슬며시 스며들음을 금할수 없었다.

(저애들이 오늘의 이 보람찬 생활이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이어져가지를 알고있을가. 저애들이 자기의 모자에 단 오각별과 가슴에 맨 소년단넥타이의 붉은 색에 깃든 뜻깊은 사연을 정녕 알고있을가.)

그러자 문득 얼마전에 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회고록》이 크나큰 감명을 불러일으키며 다시금 머리에 생생히 떠오르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적인 일가분들의 존귀

하신 영상, 그이의 다난한 어린 시절, 강도 일제에게 빼앗긴 조국을 광복하기전에는 조국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은 맹세 다지시며 압록강 푸른 물을 건느신 수령님, 험산준령 넘고넘어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신 그이, 파쟁분자들이 득실거리는속에서 새 세대의 임무를 자각하시고 결연히 투쟁에 떨쳐나서신 수령님,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으시고 산설고 낮설은 길림, 오가자, 고유수, 할빈, 돈화 등지에서 힘차게 벌리신 혁명활동, 혁명동지 한사람 한사람을 얻으시기 위하여 술한 사선의 고비를 헤치신 그이, 안도에서의 무장대오조직,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몸소 진행하신 항일구국군과 독립군과의 연합작전, 동서고금에 없는 피어린 항일전쟁...

정녕,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은 그 얼마나 간고한것이며 또한 그 얼마나 영광에 찬것인가. 위대한 그이의 높은 뜻 받들어 자신의 행복보다도 후대들의 행복을 위해 숨진 혁명전사들은 그 얼마인가.

《뭘 그리도 깊이 생각하나요? 빨리 가잖구...》

손자애의 독촉에 나는 천천히 걸던 발걸음을 다그쳤다.

해빛이 밝게 비치는 대성산혁명렬사릉엔 사람들의 물결이 끊임없이 흐르고있었고 입구의 대리석우에는 커다란 영웅메달이 놓여있었다.

영웅메달을 보자 웃고 떠들던 손자애의 눈이 대번에 둥그래졌다.

《별이 굉장히 크네. 내 모자의 별에 비하면 몇 천배도 넘겠어요.》

깜짝 놀라 부르짖는 그애에게 안해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크지. 하지만...》

손자애의 눈은 의문으로 더욱 커졌다.

《하지만 어쨌다는거예요?》

안해는 잠시 손자애를 내려다보다가 입을 여는 것이였다.

《아야,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왜놈들에게 빼앗겼던 우리 조국을 찾는 싸움에서 한생을 바친 항일혁명선렬들의 위훈과 공적에 비하면...》

손자애와 막내아들은 그제서야 안해의 말이 다

소나마 이해되는듯 머리를 까딱거렸다. 하지만 나는 머리를 가로저었다.

주작봉의 영웅메달! 그 가치를 어찌 그것의 크기로 헤아릴 것인가.

혁명렬사들의 영웅메달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성스런 조국을 위하여 한 몸 바친 혁명렬사들에게 베풀어준 크나큰 사랑이며 한없는 믿음, 육체적생명은 비록 끝났어도 그들의 정치적생명을 영원히 빛내도록 해주신 뜨거운 은정이 아니겠는가.

나는 가슴속에 차넘치는 걱정과 흥분을 지그시 누르고 왼쪽편의 대리석에 썬어진 활달한 금빛글발을 가리키며 물었다.

《애야, 저기에 무어라고 썼느냐?》

그러자 손자애가 랑랑한 목소리로 크게 읽었다.

항일혁명렬사들의 숭고한 혁명정신은 우리 당과 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김일성** 1985. 10. 10.

나는 그 애가 읽기를 마치자 승엄한 세계에 잠기며 말했다.

《영원히 살아있구말구.》

하자 손자애는 머루알같은 눈을 깜빡이며 자못 숙연해진 태도로 어른스럽게 묻는 것이었다.

《그분들처럼 나도 살수 없을가요?》

《!》

나는 손자애의 말이 더없이 대견하고 기뻐하여 코지 않은 그애의 등을 다독여주었다.

《왜 살수 없겠니,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과 친애하는 **김정일**선생님의 뜻만을 받들어 살면 그 삶은 혁명선렬들의 삶처럼 영원한 삶으로 되구 또 대를 이어 빛나게 된단다.》

나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손자애의 얼굴에는 승엄한 빛이 어리었다.

아직은 세상철리를 다 깨닫지 못한 아이였으나 그 얼굴에는 더없이 깨끗한 진정과 확고한 결의, 희망찬 래일의 삶에 대한 짝이 안배되어있었다.

하기야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충성과 효성을 다한 항일혁명선렬들처럼 살려는 것이 어찌 우리 손자애나 가족뿐이겠는가.

자자손손 끝없이 번영하는 이 땅에 태를 묻은

우리 인민은 누구라없이 모두가 그런 것이다.

위낙 전통이란 지난 역사적시기에 이루어져 그 뒤로 하나의 계승성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우리 혁명의 1세, 2세들이 수령님께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후대들도 어김없이 선대들의 뒤를 따를 것이다.

다양한 해빛을 받아 금빛으로 번쩍이는 영웅메달과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쓰신 뜻깊은 내용의 글발을 번갈아 바라보는 나의 생각은 더욱 깊어만졌다.

지심깊이 원천을 두고 솟는 샘은 그 어떤 불별이 내리쬘여도 마름을 모르는 법이며 뿌리깊이 내린 수목이나 기초가 튼튼한 고층건물은 그 어떤 광풍이나 폭우, 홍수에도 끄떡이 없는 법이다. 오늘 인류가 살고있는 지구상에서 일부 사회주의 나라들이 좌절되었어도 우리 나라는 승리와 번영의 한길로만 꾀끗이 걷고있다. 그것은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우리혁명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시기때문이며 우리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있기때문이다.

수령님께서 창시하시고 영명하신 지도자동지께서 빛내어나가시는 우리 당의 혁명전통, 그것은 우리 혁명의 만년초석이며 더없이 귀중한 혁명적 재부! 우리 혁명이 억년 드물지 않고 승승장구해 나갈수 있는 역사적뿌리! 우리 민족과 조국의 휘황한 전도를 확고히 담보하는 힘의 원천이다.

날이 가고 달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인민들의 심장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며 혁명렬사들의 고귀하고 참된 뉘은 대를 이어 길이길이 빛날 것이다.

나는 산돌이나 가듯 집을 나섰던 손자애와 막내이가 엄숙한 자세로 서있는 모습을 대견하게 바라보면서 속으로 뇌이였다.

(그렇다. 혁명선렬들의 참된 뉘이 후대들에게 이어지고 빛나는것은 역사의 진리이며 그것은 영원불변한 것이다.)

손자애와 막내이를 앞세운 우리 가족은 승엄한 마음을 안고 혁명렬사들의 반신상이 있는 릉으로 사색깊은 걸음들을 천천히 옮기였다.

## 건설장소묘

김철준

한정민과 박일호는 수도 교외의 한마을에서 아침저녁으로 함께 뛰어다닌 송아지친구였다. 전문 학교를 졸업하고 역시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두 친구는 몇달후 수도건설돌격대에 자원하였다.

…그들이 려단에서 보름간의 안전교양을 받고 소대에 정식 배치되던 날은 이미 보름째 계속되는 장마철의 한중간이었다. 비록 그 하루는 희한하게 개였어도 건설장 여기저기에 고인 물웅덩이며 시뻘건 진흙탕을 길길이 뿜겨올리며 질주하는 화물차도로 등에 큰비의 흔적들이 려려했다. 소대는 바로 그런 현장도로의 한옆에서 전날밤 《도적작업》을 하다가 감탕판에 빠져버린 굴착기를 끌어내느라고 사람과 기계가 한모양본새로 붉은 진흙탕이 되어 씨름하고있었다. 기술부대대장이 그들을 소대장에게 소개했다.

자그마한 키에 웃고리틀 벗어던져서 부러울만치 잘 발달된 상체의 근육이 온통 드러난 삼십전의 청년이 그들을 향해 다가왔는데 반갑다는것이 그저 눈가에 얼핏 미소비슷한것을 지어보이는것으로 그치고는 곧 소대에 휴식구령을 내렸다. 해별에 타서 거무스레한데다 일치하게 진흙발림까지 해놔서 외형상으로는 도무지 개성적특징을 찾아볼수 없는, 꼭 한사람같이 치장된 삼십여명 잘되는 청년들이 그들을 둘러쌌다.

《알고들 지내오. 동무네가 속한 분대의 분대장이요.》

소대장이 가리키는 사람은 어찌하여 그렇게 됐는지 머리에 진흙탕이 잔뜩 제발린것을 털지 않아 그대로 말라버린 희한한 《불머리》청년이였다. 그는 한쪽눈을 가늘게 찌프리며 말하는것이였다.

《내 이름은 리철만이라구 하는데 저… 〈형님〉네들은 성함을 어떻게 부르시요?》

표정은 정색인데 말은 대뜸 익살투라 종잡기 어려운 《불머리》의 태도에 그들은 처음부터 어지간히 당황해졌다. 특히 그것이 조롱비슷한것이라는데 순간적으로 기분이 변해버린 박일호가 먼저 심사표인 대꾸를 했다.

《우린… 〈성함〉을 그만 잊어 버렸소!》

《그것 참… 유감인데…》하고 중얼거리는 《불머리》의 얼굴은 예상치 못했던 반격을 받아서인지 아니면 상대의 만만치 않은 눈초리때문인지 어쨌든 보기 싫게 찌프려졌다.

《〈성함〉을 잊어버렸다니 그럼 내가 하나 달아줄가? 〈도련님〉이라구 하는게 어때?》

《차라리 번호를 붙여주구려. 5번이라든지 아니

면 6번이라든지…》

《그건 왜요》

《그게 더 편리하지 않겠소. 시끄럽게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도련님〉이든 〈5번〉이든 삽질이나 하구 곡괭이질 하는데야 무슨 큰 지장이 있겠소?》

《! …》

《불머리》는 입을 벌린채 말을 못하고 눈만 더 가늘게 찌프렸다. 한정민은 벌써 몇번째 일호의 옆구리를 췌박으며 자제할것을 신호했으나 일이 이쯤되고보면 즉흥적이고 자존심 강한 일호의 성격을 늦추기가 험치 않았다. 두사람의 시선이 강하게 부딪치고있었다. 다행히 주위사람들이 그들의 말씨름에 가볍게 웃음을 터뜨렸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기필코 그들사이에는 어떤일이 벌어졌을지도 몰랐다.

《됐소, 무슨 쓸데없는 말들을 하는거요? 분대장동문 첫 대면인사가 그게 뭐요?》

상체좋은 소대장이 그들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리구 일호동무두 그렇게 말하면 안되오! 여기가 뭐 그저 삽질이나 하구 곡괭이질이나 하는데라구 생각하는건 좋지 못하오. 그런 생각이라면…이제라도 돌아가는게 좋소!》

박일호의 마지막 말은 확실히 좋지 않은 자극을 소대장에게 준 모양이었다. 정민은 오히려 당자보다 더 미안하고 당황해서 얼굴이 붉어졌으나 일호는 여전히 《불머리》분대장만 쏘아볼뿐이였다.

그날 오후부터 그들은 첫 작업에 들어갔는데 리철만은 작업에 앞서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오늘은 첫날인데 〈형님〉네들은 저기 가서 양수기나 좀 봐주구려… 이런 일은 워낙…》

그들의 분대는 굴착기배 밑에서 진흙탕을 파내는 일을 했는데 그것은 작업공간이 좁아 몸도 마음대로 놀리지 못하는속에 들어가 이른바 《검질진 진흙덩이》와 《골육전》을 벌려야 하는 꽤 험치 않은 일이었다. 그러니 이런 험한 일이 처음인 정민이네를 생각해서 하는 분대장의 호의적인 말이겠지만 또 완전히 그런 의미만은 아니라는것을 어렵지 않게 느낄수 있었다.

《처음부터 생각해서 고맙소. 그러나 공연한 걱정이요. 우린 이보다 더한 일두 얼마든지 할수 있소!》

역시 도전적인 일호의 대답에 철만은 기다렸던듯이 제격 삽한자루씩 쥐여주며 너스레를 떠는것

이었다.

《아, 좋구만! 역시 배짱이 맞는데... 어디 한번 솜씨를 보자구!》

그들은 분대장과 함께 굴착기배밀에 들어서서 미묘한 승벽심에 이끌려 근 반나절동안 변변한 휴식한번 없이 완강하게 진흙탕을 파냈다.

그날 저녁 정민과 일호는 녹초가 된채, 옷은 온통 뻘건 진흙이 게발렸거나 말라붙어 엉망이 되는데다 팔다리마저 각각 제멋대로 너덜거리는 상태에서 겨우 숙소까지 걸어왔다. 식당에 들러 대충 식사를 하고 병실의 나무침대에 와서 누우니 온몸이 통째로 거대한 지구인력에 끌려 땅속으로 잣아드는듯했다. 어깨가 쭈시고 허리가 아프고 목덜미가 남의것처럼 뻗뻗하고 하여튼 아프지 않고 쭈시지 않는데가 없었다.

《여, 친구. 박일호라구 했지? 배짱이 있던데... 철만이한테 통꿀을 멕이는 솜씨가 괜찮아! 앞으로 잘해보라구.》

그들의 옆침대에 누운 친구가 말을 걸어왔다. 밖에서는 리철만의 청높은 목소리가 불러내는 유쾌한 노래소리가 여봐란듯이 기타음에 맞춰 들려왔다.

《...저 친군 닛의 일이 잘 내려가지 않는 모양이군. 여, 여 《옥타브》좀 낮추라. 끝지두 못한 목청에 쟤장... 귀구멍에 착암길 들이델 작정이야?》

그러나 노래소리는 (사실 노래라기보다는 기운껏 질러대는 고탐소리와 비슷하지만) 한결 더 높아질뿐이었다.

《어쩔수 없는 친구라니까. 하지 말라면 한번 더하는 성미지. 원래 지꼈는데다가 돌격대생활 몇해어간에 더해졌어... 헌데 나쁘게 생각진 말라구. 저 친굴...》

옆자리의 친구는 미안쩍은듯 말했으나 두사람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어둑한 뵤창만 바라보았다.

하루가 힘들고 어설피고 서먹서먹하고 다소 불안하기까지 한 첫날이 장마철의 우중충한 구름장처럼 서서히 지나갔다...

×

한정민의 소대가 속한 제2대대는 원래려단에서 품들여 키운 미장전문대대였다. 려단이 어떤 건설대상을 새로 맡아서 시공에 착수하면 처음에는 대대가 려단의 《예비대》로서 굴착이 팔리면 굴착에, 골재운반이 팔리면 골재운반에, 타입이 팔리면 타입에 하는식으로 나중에는 진창속에 빠진 굴착기의 《구제작업》에까지 동원되군하지만 일단 골조타입이 끝나고 미장작업이 본격화되면 그때야말로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 온 려단의 선당과 기대 속에 2대대의 젊은이들이 능력을 발

휘하게 되는것이다.

구질거리던 장마철도 지나가고 9월도 한중간 벌써 선선한 기운이 대기에 휘돌제, 바야흐로 사나이의 계절이라 일컫는 좋은 가을철에 들어서면서 2대대앞에는 우에서 말한 그런 《호경기》시절이 펼쳐졌다. 골조타입이 끝난 30층주객외부완성미장과 내부미장을 첫눈이 내리기전까지 끝내자는것이 려단의 결심이었다. 허나 대대에서는 한달내에 모두 끝내버리자고 젊은축들이 들고 일어났다.

한정민의 소대는 외부마감미장을 맡았다, 기본작업에 들어가기전 어느날 소대장이 그들을 찾았다.

《어떻소. 미장일을 해본 경험이 있소?》

《없습니다.》

《고공작업은?》

《역시 해본적이 없습니다.》

《음... 그러니 역시 푹대기는 푹대기구만...》

《예?!》

정민은 일순 몹시 비위가 상했으나 소대장은 그의 감정따위에는 전혀 개의치 않는듯 실무적인 목소리로 지시를 주었다. 이를테면 다음주부터 기본작업에 들어가는데 한정민이 책임지고 일호와 그밖의 몇몇 처녀들이 보장작업을 하라는것이였다

《그렇게는 할수 없습니다.》

《어째서? ...》

정민은 《나도 미장작업을 해보겠소.》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왔으나 차마 입밖에 내지는 못하고 숨만 가쁘게 쉬였다. 소대장은 그의 속을 짐작한듯 시답지 않은 어조로 계속했다.

《...그러니 기본작업을 해보겠다는거겠지? 그런데 동무네들은 아무것도 할줄 모른다고 하지 않았소. 미장두, 고공작업두...》

《모르는거야... 배우면서 하면 되지요. 배우면서!》

《물론 배워야지. 배우구 안배우는건 동무의 권리에 속하는 문제니까...》

《그렇다면 우릴 기본작업조에 넣어주어야지요.》

《그럼 보장작업은 누가 하라오? 내가? 아니면 기능공들을 떼내서? 이거 정말 생억지는 쓰지 마오!》

《그럼 우린 언제 배웁니까?》

《그거야 나두 모르지. 여긴 학교의 강의실이 아니니까. 뭔가 배워가지구 확고한 자기 위치를 차지한, 말하자면 당당한 돌격대원이 되자면 스스로의 노력이 기본이요. 그런 의지와 노력에 다른 사람들은 도움을 줄수 있을뿐이고... 그러니 언제 배워서 언제 쓸모있는 존재가 되겠는가 하는 질문은 내게가 아니라 동무들 자신에게 하오.

자신에게! …》

《! …》

정민은 물론 속이 내려가지 않았으나 어쨌든 참았다. 그리고 며칠후부터는 따분하고 지루하기 짝이 없는 일, 흡사 단순로보트의 작업동작과 비슷한 과정을 종일 반복했다. 그대신 그는 일호와 약속을 해가지고 일이 끝난후면 밤마다 몰래 외부발판(비행기발판이라고도 불렀다.)에 올라가 낮에 눈으로 익혀둔 미장작업을 연습해보곤하였다. 처음 몇번은 잘되지 않았다. 더우기는 난생처음 삼십층이라는 고공에서 흔들거리는 발판을 탔을 때 눈앞이 아찔하고 다리가 후들거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첫날밤에는 아예 발판바닥에 주저앉은채 미장은 커녕 감히 일어나 앉을 념도 못했었다. 팔다리가 경직된것처럼 꼼짝할수 없고 어둠에잠긴 대기속에서는 귀뿌리를 울리는 밤공기의 날카로운 회오리소리만 섬찍하게 들려왔다. 불빛이 아물거리는 수십미터 아래쪽은 내려다보기만 해도 금시 거꾸로 떨어지는듯한 환각에 점점 눈길조차 돌리기 저어되었다. 그저 무섭고 두려운 생각이 온갖 욕망을 모조리 뒤엎어버려 그처럼 드높던 박일호의 자존심도 한정민의 완강한 의지도 무엇하나 도움되는것이 없었다. 그렇게 두시간을 꼼짝못하고 거의 반실신상태에서 보내다가 부들부들 떨며 내려온것이 미장기술과 고공작업에 대한 첫날 《수업》의 전부였다. 이튿날도 그 비슷했으나 어쨌든 전날보다는 좀 나았다. 사흘째 되는날에는 제법 미장칼을 들고 흉내를 내볼수 있었다. 열걸에 웃음이 피어났다. 불쑥 배짱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직도 때때로 다리가 떨리긴 했으나 더이상 귀뿌리를 스치는 기류의 회오리가 무섭증을 불러내지않았고 막막한 어둠이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이제 우리두 제법 미장공이 다된게 아니야?》

어느날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일호가 말했다. 그는 오른손 가운데가락에 얇게 피부가 벗겨져 생긴 상처자리를 흐뭇하게 들여다보는것이였다. 이제 상처가 아물면 굳은살이 생길텐데 그것은 미장칼에 제일 많이 쓸리우는곳이여서 마치도 미장공의 역사를 증명하는 증거품이나 같은 것이라고 언젠가 리철만이 뽐내면서 자랑하던것이였다.

그러면서 철만은 아직 굳은살이 배기지 못한 정민이네 손을 비웃으며 《너희들과 나와의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구나!》하면서 짐짓 슬픈체했던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어림도 없다. 미장이면 미장, 고공작업이면 고공작업, 그 어데서도 결코 짝지지 않을것이다, 하는 배짱이 일호를 무등기쁘게 했던것이다. 그러나 뭐든지 《정신없이 잘될 때》는 꼭 어떤가 빈틈이 생기는법이다.

그들이 《밤작업》을 시작해서 일주일째 되는 날

예상치 못했던 일이 생겼다. 그날 낮에 어느때없이 미장속도가 높은바람에 보장이 딸리게 되었다. 25층발판에서 《몰탈! 몰탈!》하는 리철만의 청높은 웨침이 온 건설장을 깨뜨리고 독촉이 염천의 불별처럼 뜨겁게 쏟아지는 속에서 정민이네는 종일 땀으로 미역을 감으며 울리뛰고 내리뛰고 하였다. 하여 저녁녘에는 물먹은 햇숨처럼 나른해가지고 일을 끝마쳤으나 어느때와 다름없이 저녁을 먹은후 다시 작업장으로 나갔다. 그날밤은 바람도한점 없고 주위가 불안할 지경으로 고요하였다. 그저 어데선가 방송차의 노래소리만 가냘프게 들려올뿐이였다. 낮에 너무 지쳐서인지 아니면 주변의 어느때없는 고요때문인지 발판에 올라서서 얼마후에는 벌써 강한 수면욕이 더운 증기마냥 두사람의 육체를 휘감기 시작했다.

《정민아, 이자리에서 조금만 눈을 붙일까?》

《그래, 나두 막 졸려…》

《그럼… 꼭 5분간만.》

《좋아!》

…문득 한정민은 꿈속에서 자기의 몸이 그 어떤 깊은 나락으로 불시에 떨어져내리는것을 느꼈다. 순간 전신에 흐르는 짜릿한 공포감과 함께 저도 모르게 경악한 비명이 튀어나갔다. 눈을 뜨자 첫 느낌에 벌써 자기들이 타고있는 발판이 아래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것을 알아차린 정민은 발판의 고정고리에 련결된 바줄을 잡아당겼다.

《일호, 바줄이 풀린다!》

잠이깼 일호 역시 저쪽 바줄을 움켜쥐고 바아호로 가속력을 받아 빨라지기 시작하는 발판의 하강운동을 조금이라도 제지해보려고 몸부림쳤다. 잠들기전 그들이 20층에서 19층으로 내려왔을 때 줄음에 물린 나머지 바줄고정을 제대로 못했기때문에 발판이 점차 하중을 받으면서 바줄이 저절로 풀리기 시작했던것이다.

18층, 17층, 16층… 흰 땀띠로 층수를 밝혀쓴 수자들이 눈앞으로 련이어 지나갈 때에야 그들은 자기들이 안전띠도 착용하지 않았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안전띠는 발판바닥에 놓인채 두사람을 물끄러미 쳐다볼뿐이였다. 그렇다면 이제는… 밑바닥에는 컴컴한 어둠이 심연처럼 기다리고있다. 이미 손바닥은 벗겨져서 피가 흐르건만 아프다는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았다. 15층, 14층… 점점 땅은 가까와졌다. 정민은 문득 호느낌소리를 들었다. 머리를 돌려보니 일호가 아예 바줄을 집어던진채 발판의 쇠란간을 붙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있었다.

《일어나라, 일호! 울지 말라!》

정민은 목이 터지게 고함쳤으나 순간 급한 공기흐름이 입안으로 확 쓸어들며 목구멍을 막아버렸다.



《발판을 버리구 안전바줄에 매달려라-》

...어텐가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다급한 웨침소리, 그러나 그것이 누구의 목소리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의식못하는 망연한 상태, 지지점을 잃어버리고 구름우에 올라앉은듯 허전해진 몸을 둘러싼 뻥뻥한 밤공기, 눈앞의 벽체가 춤추듯 빙빙 돌아간다. 아무 생각도 의욕도 나지 않는 무상념의 시간, 뿌옇해지는 눈, 혼미해지는 정신, 아니, 이미 정신은 그들의 육체를 떠나 저멀리 야공속 어데론가 사라져버린지 오래다. 문득 설명할길 없는 강한 충격을 온몸에 느끼는 순간 의식의 마지막 불꽃마저 꺼져 버렸다. ...

몇분후 소대원들이 14층에서 정지된 발판에서 그들을 안아내렸을 때 정민이네는 이미 실신상태에있었다. (발판을 고정시킨 바줄이 급격한 속도로 풀리면서 활차에서 리탈되어 결국 축에 끼워들었다. 그때문에 발판은 더이상 내려가지 못하고 요행 몇분간 공중에 정지될수 있었던것이다.)

생활은 따분하고 지루하게 흘러갔다. 마치 그들 두사람을 잊어버린듯싶었다. 아무 맛도 색깔도, 느낌도 없이 한여름의 미적지근한 호수물처럼 텅텅하기만 했다. 시간의 개념조차 망각해버릴 지경이었다.

어제와 오늘, 혹은 래일이나 모레가 아무 의미도 없었다.

사고가 있는지 사흘째 되는날 러단에서는 사고심의를 했다. 두사람이 진행한 《도적작업》의 성격은 어떻든간에 결과적으로 내려진 《판결》은 엄격했다. 우선 일주일동안이나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모르고있는 소대장과 대대로동안전원에게는 반년간의, 대대장에게는 석달간의 무보수로동이 결정되었고 당자들은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작업현장에서 떼여 러단후방부에서 일하도록 했다.

벌써 스무날째 그들이 하는 일이란 후방차를 타고 다니며 육류도매소니 남새농장이니 하는데 가서 고기나 배추, 무우, 파 따위를 실어오는것뿐이었다. 가끔 현장에 점심이나 밤참을 싣고 나갈때면 먼발치에서 소대원들의 작업모습을 우울하게 바라보는것이 《슬픈 기쁨》의 전부였다. 육체적으로 힘든것은 없었으나 정신적으로는 피로했다. 권태, 우울, 한숨... 이런것들이 언제나 그들을 침울하게 만들었다.

어느날 남새실으러 교외농장에 나갔을 때였다. 이미 여러번 다녀봐서 낯익이나 아는 농장아주머니들이 저희끼리 주고받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저 젊은이들은 어데 아픈가봐...》

《글쎄, 늘 봐야 얼굴색이 좋지 않아.》

《내 말은 얼굴색을 두구 하는게 아니야. 글쎄 이 불같은 세월에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이 남새접수나 하러 다니는걸 보문 어텐가 좀...》

《그렇기두 해. 아마 무슨 큰 병이 있거나 아니면 머리가 정상이...》

《저걸 어찌나! 아직도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인데...》

아낙네들은 저저마다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을 동정하며 혀를 찼다.

억이 막혔다. 분통이 터졌다. 나중에는 눈물까지 솟구쳤다. 그러나 참아야 했다. 그런것쯤은 아직 약과였던것이다. 속내를 모르고 떠들어대는 아낙네들의 횡설수설이니 귀등으로 흘릴만한 여지는 있었다.

그러나 참기 어려운것은 다른것이였다. 저녁때 그들이 한창 후방창고뒤에서 저녁준비를 돕느라고 분주히 돌아칠 때면 일을 끝마친 대대가 돌아온다. 그 선두에서는 언제나 리철만이 이죽거렸다.

《여, 형님네들, 왜 벌써 기가 죽었어? 한대 맞으니까 머리가 뻥해? 역시 쏘대박이 쏘대박이야. 그썸한 타격에 뻥는단 말이야? 난 또 굉장한 배짱군인줄 알았더니... 여, 권투해본적이 있어? 권투에서는 많이 때리는것두 중요하지만 백번 맞아 넘어졌다가두 백번 다시 일어나는게 기본이야. 이런 용기가 없다면야 형님네들은 괜히 살지 뭐. ... 그럴바엔 차라리 앞치마를 받쳐입구 《후방부》노릇을 하는게 적당해. 형님들은 성격두 누긋하겠다, 몸집두 풍만하지... 식당부문에선 전도가 양양할걸...》

《이거 정말...말 다했소?》

박일호의 《누긋한 성격》이 급기야 폭발하자 리철만은 머리를 싸쥐고 대렬뒤로 달아났다. 엄살을 부리며 달아나는 철만과 약이 올라 쫓아가는 일호의 모습은 가관이였다.

《이도 나기전에 뼈다귀추렴이라더니 〈부뚜막운전수〉 웬말이나...》

경황없이 쫓기우면서도 목청껏 고아대는 철만의 타령조에 일호는 더욱 약이 올랐고 사람들은 웃어댔다. 웃는 사람, 나무람하는 사람, 동정하는 사람... 각양각색의 군중속에 우두커니 서서 정민은 속으로 쓴 웃음을 지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일호는 모든 일을 다집어던지고 후방창고 뒤구석에 가앉아서 서너시간씩 움직이지 않았다. 그대신 많아지는 부담을 정민은 혼자서 견뎌지지 않으면 안되였다. 물론 그도 분했다. 자존심도 상했다. 그렇지만 보다 많이는 철만이네들이 부러웠다. 아무렇게나 말해도,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그들에게는 그렇게 말할만하고 행동할만한 권리가 있지 않는가. 그들은 현실적으로 자기의 땀과 노력으로 그 권리를 쟁취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생각은 부러움과 함께 피로움도 자아냈다.

×

일요일이었다. 대대앞에 맡겨진 미장과제를 《깨끗이 제껴버리고》 맞는 첫 휴일이어서 여느때 없이 사람들의 기분은 흥성거렸다.

《여, 정민이, 그렇게 우울해있지 말구 어디든지 놀러 가지 않을래?》

얼굴이 류달리 부연 례의 그 옆자리 친구가 직일실창문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소리쳤다.

《혼자 가보우. 난 오늘 직일근무요.》

《거 안됐는걸... 하필이면 휴일날에 직일결릴건 뭐야...》

《괜찮아요. 우리같은거야 이런 때 직일서는데 나 필요한 존재니까...》

창밖을 멍하니 내다보던 일호가 심사표인 소리를 한마디 했다. 오늘아침 발표한 근무명단에 두 사람의 이름이 올라있었을 때부터 그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일호,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지휘관들두 다 생각이 있어서 조직한건데.》

《〈생각〉이라? 그것 참 우스운데. 어째서 다른 때는 감감 잊어버리구 있다가 휴일날 근무조직할 때면 신통히두 생각날까?》

일호는 더욱 기가 올라서 비양거렸다. 그는 아침부터 덧쌓이는 분풀이를 공연한 사람에게 해대고있었다. 그바람에 옆자리 친구는 머리를 가로흔들며 제갈데로 가버렸다.

《그만해 일호, 누구든 직일이야 서야지. 이왕 이렇게 된바에야 우리가 서는것두 좋지 않은가. 그리구 오후에는 교대시켜주기로 했어.》

《누가 교대해 줘?》

《소대장이 말하는데 리철만이기 오후교대라더구나.》

《흥!...》

일호는 대번에 코웃음을 치며 돌아앉았다. 정민은 그러는 친구의 심중이 다소 이해되어 더 말을 안했다. 사실 그들은 오늘 아침에 일호의 큰아버지네 집으로 가자고 약속했다. 나홀전에 외국출장에서 돌아온 일호의 큰아버지에게 인사도 할겸 휴일을 즐겁게 보내려고 계획했던것이다. 지금쯤 그집에서 사람들이 눈이 빠지게 기다릴텐데 일이 공교롭게 되었으니 일호의 신경질도 영무리는 아니었다. 그러나 일호의 심사가 단순히 그때문에 뒤틀린것도 아니다. 이무렵 일호는 모든 일에 다 까닭없이 화를 내고 비꼬며 돌아갔다. 그리고 뻔질나게 큰아버지네 집이며 시내의 친척집들로 돌아다녔다. 그러더니 며칠전에는 이런 말을 하는것이였다.

《정민아, 난 왜 그런지 돌격대생활이 싫증나는구나.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아.》

《그거야 지금 우리가 처벌받구있는중이니까 그렇지 좀 참구 견디느라하면 좋아질거야.》

《글쎄, 그럴지도 모르지. ... 아니, 난 참아낼것

같지 못해!》

《참지 못하면 어찌겠다는거냐?》

《글쎄 아직 뚜렷한 계획은 없어...》

분명 일호의 마음속에서는 그 어떤 동요의 물결이 일기 시작했다. 그 파동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라 정민의 두뇌는 의혹과 불안으로 무거워있었다...

너무나도 조용하여 다소 쓸쓸하게까지 느껴지는 고요가 공기마냥 짙 들어찬 직일실안에서 두 사람은 제나름의 생각에 잠겨있었다.

점심때 대대식당에서 식사한 사람은 그들외에 한두명이 더 있을뿐이였다. 모두 외출했던것이다.

창밖에는 락엽이 날리고있었다. 아침부터 텅텅하게 흐려있던 날씨가 오후에 들어서면서 바람질을 해댔다. 한시간, 두시간... 무로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시간이 사정없이 흘렀다. 점차 초조해지고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여전히 근무교대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제길, 그 덜렁바리가 나타날게 뭐야? 약속했다구? 괜한짓이야...》

일호는 흥분하기 시작했다. 리철만에 대한 혐구를 쏟아냈다. 그러나 청민은 아무런 대꾸도 않고 창밖을 내다보기만 했다. 바야흐로 짧아지기 시작하는 마가울해가 어느덧 지평선에서 서두르고있다. 하나, 둘 외출했던 사람들이 휴일의 하루를 유원지와 영화관들에서 보내고나서 더없이 만족한 기분으로 돌아오고있었다.

《아직 근무교대를 못했소? 철만이가 아직 오지 않았소?》

역시 혼연한 기분으로 즐겁게 웃으며 들어서던 소대장이 그때까지도 직일실에 앉아있는 정민이네를 발견하고 놀라는것이였다. 그리고는 들어오는 사람마다 붙잡고 리철만에 대해서 물었으나 그의 행적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저녁식사가 끝나고 밤이 이속해진 뒤에야 철만은 다소 비칠거리며 들어섰다. 어찌하여 그렇게 됐는지 그의 머리칼은 온통 불에 그슬렸고 얼굴에는 한쪽 볼편에 상채기가 나있었다.

《어데 갔댔소? 그건 도대체 무슨 물골이요?》

소대장의 어조는 첫마디부터 팽팽했다. 그러나 철만은 자기에게 향해진 소대원들과 소대장의 차거운 시선, 그중에서도 특히 불타는듯한 박일호의 눈초리를 감감 못하는듯 주전자에서 물을 따라 마시고는 피곤이 실려 가늘어진 눈을 끔벅이며 주위를 둘러보다가 갈린 소리로 한마디 했다.

《오래간만에 옛친구를 만나서 한잔 하구 오는 길이요. 그리구 이젠... 길에서 넘어져서 약간 다쳤소...》

그는 말끝에 무겁게 눈시울을 치켜들고 소대장을 쳐다보았다. 더이상 묻지 말아달라고 하소하는듯한 그 눈길을 받으며 소대장은 한동안 주저

하는듯하더니 이윽고 침울하게 물었다.

《그래 오늘 오후 직일근무라는걸 몰랐소?》

철만은 대답대신 온몸이 무너져내리는듯한 한숨과 함께 머리를 떨구었다. 왜서인지 대단히 지켜보였다.

《알았소. 아니, 깜빡 잊었됐소. …》하고 철만은 뭔가 말할듯했으나 그만두고 다시 물 한고뿌를 마셨다.

《그런데 내대신 누가 근무를 썼소?》

소대장은 대답대신 눈으로 정민이네를 가리켰다. 철만은 불길히 황황 이는 일호의 눈길에는 아랑곳없이 그들에게로 다가와 한동안 흐린 눈으로 바라보더니 역시 갈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안됐구나. 나때문에 휴식일을… 고맙다. 잊지 않겠어!》

그는 피곤외의 다른 빛갈이 없는 표정으로 덤덤히 마주보다가 느긋히 돌아서서 자기 침상으로 걸어가는것이였다. 한순간 방안에는 가벼운 정적이 서렸다.

문득 일호가 참지 못하고 소리치는 바람에 정적은 깨쳐지고 철만은 걸음을 멈추었다.

《아니 어찌면 사람이… 그렇게두 뻔뻔스럽소?》

철만은 오히려 뜻밖이라는듯 의아한 얼굴로 이쪽을 바라보았다. 일호의 웨침이 자기에게 향해진것이라는것을 느끼지 못하는듯했다. 그만큼 그의 얼굴에는 단순함과 놀라움밖에는 비껴있지 않았는데 그것이 더욱 일호의 부아를 돋구었다.

《어데 가서 실컷 마시구 놀다와서는 그래 안됐다, 고맙다 하는 말 뒤마디루 굶뻔수 있소? 당신두 도대체 량심이 있는 사람이요?》

일호의 날카로운 고향음은 듣는 사람들의 귀를 지나철만큼 따갑게 자극했으나 밑에 깔린 그의 충분한 감정이 리해되어 모두들 잠잠했다. 그제서야 철만의 얼굴에는 무거운 피로층을 헤치고 떠오른 한줄기의 류다른 반응이 날카롭게 번쩍했다. 불편의 상체가 순간 몹시 아픈듯 얼굴을 찌프리며 다가오는 철만의 자세와 당장 태워버릴듯이 노려보는 일호의 눈길은 즉시에 심창치않은 충동을 일으키리라는것이 명백했다.

또다시 정적, 그러나 좀전보다는 더한 북극의 차거운 랭기와 같은 정적이 사람들의 신경과 뇌수를 얼궤버리고있었다. 철만은 다가온 자세그대로 일호를 쳐다보며 (그는 일호보다 머리 하나정도는 작았다.) 한동안 입술을 감쌀기만 했다. 그러다가 거의 속삭이는듯한 목소리로 한마디한마디를 힘들게 내뱉었다.

《여, 정말… 말 다했어 ?》

틀림없이 모기소리보다 더 약한 음성이였지만 모든 사람들이 푹푹히 들었을뿐아니라 일호는 저도 모르게 흠칫하기까지 했다.

《아니 그래, 완력행사를 하자는거요? 내가 뭐

못할 말을 했는가? 이걸 뻔뻔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그만해!》

처음으로 철만의 새된 고향음이 터쳤다. 그러나 그는 그 한마디에 전신의 힘을 다 써버린듯 그냥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머리를 수그린채 혼자 뭔가 중얼거리다가 이윽고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오늘일은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용서를 비니까 이제 그만하자. 사내답게 잊어버리자. 그러구… 내 량심에 대해서만은 제발 부탁인데 건드리지 말아달라. 또 완력행사라는 말두 다시는 꺼내지 말구.… 난 피곤해서 먼저 자겠다!》

철만은 일호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여전히 비칠거리는 걸음으로 문을 열고 나갔다. 피곤해서 자겠다는 사람이 도대체 왜 밖으로 나가는가 하는 의문은 누구의 머리에도 떠오르지 않았다.

마치도 철만이가 그들모두의 넋을 홀 뽑아가지고 나가버린듯 오래동안 말없이 침묵을 지켰다.

《에익- 저따위 끝 보기 싫어서 내… 제가 뭐 잘못했다구 큰소리야, 오히려…》

마침내 먼저 정적을 깨뜨리며 일호가 불평을 드러내자 그제서야 사람들은 정신이 들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일호?》

옆에 있던 소대장이 왜서인지 못마땅한 눈길로 일호를 가로보며 통을 주었다.

《물론 철만이가 잘못한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구 해서 그렇게 막 말하면 되는가?》

《아니, 소대장동무는 저 사람을 비호하는겁니까? 도대체 여기서 누가 옳구 누가 그르오?》

일호는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였다. 그는 좀전의 흥분이 되살아나 공연한 사람에게 화풀이를 했다.

《난 누구 비호하구 누구 헐뜯으려구 하지는 않아. 단지 동무는 돌격대에 나온지두 얼마 안되구 또 사람들두 깊이 모르니까 그저 참고하라구 한 말이요.… 그러구 누가 옳구 그른지는 시간이 흘러가면 알겠지!》

소대장은 창백한 얼굴로 토박토박 말했다,

《그러니 나같은건 아직 발언권이 없다는겁니까?》

박일호는 소대장의 얼굴을 푹바로 쳐다보며 맞받아 웨쳤다. 일이 이쯤되고보면 그 무엇으로써도 그의 흥분을 가라앉힐수 없다. 이미부터 루적되어오던 감정이 드디어 한계점을 넘어선것이다. 그의 눈에는 뿌연 장막이라도 친듯 사람들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오해하지 마오. 동물 무시해서 하는 소리는 아니요. 그렇지만 동무야 생활체험이 없지 않소. …》

《잘 알겠수다! 뭐 돌격대생활 몇해 더 했다구

전부 싸구도는구만…》

《동문 왜 사람이 그리 웅졸하우? 남자라는 게 도량이 넓어야지 머리에 모자나 쓰구 다닌다구 사내요?》

《소대장동문 그렇게 도량이 넓어서 우릴 이렇게 대해줍니까? 식당에서 〈부뚜막운전수〉 노릇이나 시키구 휴일날엔 직일근무… 정말 고맙구려.》

일호는 흥분이 극도에 달한 때면 도무지 사리를 분간 못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기도 하거니와 알고고도 안했다. 소대장은 일호의 터무니없는 공격에 그만 아연해지고말았다.

《일호, 그만해! 너 지금 제 정신이야!》

한정민이 급기야 일호를 제지시키려 했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이걸 바라! 뭇때문에 할 말두 못하구 병어리 처럼 지내겠어. 난 이런걸 참지 못하는 성미야. 이렇게 인격이 무시당하구 자존심을 꺾이올바에야…》

《그래, 어찌겠다는거요?》

소대장의 날카로운 물음이었다.

《차라리 여길 뜨고 말겠소! 이곳 아니면 어데 일할데가 없는줄 아오?》

일호의 입술이, 얼굴이, 온몸이 푸른 불길처럼 타올랐다.

《그게 진심으로 하는 말이요?》

《그런 식으루 걸고들지 마오. 나에게두 꿈이 있구 누구보다 못지 않은 희망과 리상이 있소. 그 꿈과 리상을 성취할수 있는 당당한 권리도 있고… 그런데 내가 무엇때문에 여기서 사람들의 무관심과 모욕을 받으며 참고 일해야 하는가? …나는 가겠소. 나를 알아주는, 적어두 나의 꿈을 알아주는 그런곳으로, 당당한 나의 권리를 찾을수있는 그런곳으로 가겠단 말이요. 막지 말아주소!…》

마침내 창밖의 어둡고 흐린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방울이 대기속에서 흐느끼기 시작했다. 휘뿌연 야간등에 비쳐진 마가을 락엽들이 비물에 젖어 번쩍이는 눈길로 발부리를 휘감았다. 어둡, 바람… 점차 지척도 분간키 어려워졌다. 격렬하게 가열되는 심장의 뜨거운 박동, 갈래없이 덮쳐드는 추억의 홍수, 한순간 빨강게 피어올랐다가 불시에 사그라져버리는 찰나의 상념들, 려명속의 대기, 바래주던 마을사람들, 소원과 희망이 불불던 눈길들… 그러나 지금은 모든것이 사라지고 오직 어둡, 앞을 예측할수 없는 공허! …

《기어코 가겠어?》

《…》

《같이 왔던 길을 이렇게 혼자 가는 법이 어데 있어?》

《…》

《어데루 갈테야? 네가 바라는 그런곳이 과연있을가?》

《…》

《언젠가는 오늘을 후회하지 않을가?》

《…》

침묵, 침묵, 비소리, 바람소리… 오로지 멀리 건설장의 외등 하나가 어렴풋이 보일뿐이다. 차갑고 묵묵한 찬비에도 감각없이 컴컴한 부채더미 사이로 끝내 친구의 모습은 사라지고말았다.

(이제라도, 이제라도 돌아서라. 일호!)

불시에 외롭고 고독하고 허전한 마음속으로 느껴보지 못했던 설음의 떨기가 왈칵 밀려들었다. …

×

박일호의 《도주사건》은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날밤에 있는 일을 두고 리철만을 나무람했다. 그리고 일호를 은근히 동정했는데 그 동정은 웬일인지 한정민에게로 쏠리는것이였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일호의 행동을 단순히 그 사건과만 련결시켜보지 않았다. 보다 크고 깊은곳에서, 더 먼곳에서부터 그 요인을 찾으려 했다. 모름지기 소대장을 비롯한 대대와 려단의 지휘관들이 대체로 그렇게 생각한 모양이였다. 왜냐면 어떤 의도에서인지는 몰라도 그 《사건》이 있는 며칠후부터 정민을 려단 후방부에서 《해방》시켜 기한전에 현장으로 내보낸것을 보면 어느정도 심중한 논의가 있었던게 분명했다.

그것은 적절하고도 매우 필요한 조치였다. 그 상태에서 좀더 있었다라면 기필코 정민이도 돌격대를 뜨고야말았을것이다. 환경의 전환이 필요했었다. 벗도 애착도 궁지도 없는곳에서 고독과 우울,막막한 설음을 벗삼아 하루하루를 보낸다는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것이였다.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환경은 정민의 뿌리를 뒤흔들기 시작했고 날마다 시간마다 그의 의지를 선택의 기로에 올려세우곤하였다.

모든것을 잊어버리고 잡념이 두뇌를 점거하지 못하게 오직 한가지일에만 집착하는것, 이것이 유일한 방도였다. 그는 현장에 나가 온종일 육체가 피로하여 쓰러질 때까지, 하여 신경과 뇌수에 더 이상 여지가 없을 때까지 일했다.

《여, 정민인 언제 여기를 떠나겠어?》

어느날 옆자리의 친구가 불쑥 묻는것이였다.

《그건… 도대체 무슨 소리요?》

《뭐 길게 말할게 있어. 지금 사람들속에서 돌아가는 소문이 어떤지 알아? 너두 인차 일호를 따라갈거라는거야. 하긴 남의 구박을 받으면서까지 있을 법이야 없지.…》

그러자 정민은 가슴속에서 느닷없이 불쾌한 충격이 한줄기 섬광처럼 뻗어나오는것을 느끼며 울컥해서 소리 질렀다.

《누굴 남의 그림자루 아는게 아니요? 가만있으니까 별 못하는 소리가 없구만. 아니, 가면 당당하게 가는거지 내가 뭇때문에 쫓겨가는 며느리처럼 남의 구박을 피해서 달아난단 말ियो...》

정민은 갑자기 심장이 후두둑 뛰고 숨이 가빠나서 얼마간 말을 멈추었다.

《...나두 사내란 말ियो. 남의 뒤소리나 듣구 동정이나 받을바에야 사내란 말이 뭇때문에 필요하오? 난 당당하게, 떳떳하게 가두 가겠단 말ियो.

그렇게 될 때까지는 가구싶어두 또 가라구 해두 안가겠소!》

그다음 정민은 문을 걸어차고 나갔다...

×

초겨울에 들어서면서 대대는 새로운 작업대상을 맡았다.

첫눈이 내렸다. 이어서 첫 추위가 들이닥쳤다. 건설자들에게는 가장 어렵고 곤란한 계절이다. 더우거나 한정민에게 있어서는 일찌기 겪어보지 못했던 첫 시련이었다. 춥고 불편한 환경속에서 아직 따뜻한 마음을 주고 받을 친구도 변변히 없이 돌격대의 첫해 겨울을 맞는 그였다. 그 사이 훨씬 추가고 더욱 말이 없어진 정민은 언제나 일밖에 몰랐다.

그의 소대는 대대의 월동용석탄을 보장하기 위해 얼마동안 운수중대에 배속되었는데 한차에 서너명씩 조를 지어 갈라라고 다녔다.

그날은 몹시 추운 날이었다. 설을 앞두고 겨울이 한번 용을 쓰는듯했다. 정민이 속한 조는 교외의 탄광촌까지 세번째 왕복운행을 하느라고 사람도 차도 다같이 지쳐버렸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마지막운행길에 차가 시외의 간선도로에서 고장까지 났다. 운전사가 별의별 욕을 다 퍼부어가면서 추위에 곱아든 손을 놀려 애써 수리하느라고 했지만 어두워질 때까지도 고장을 퇴치하지 못했다. 가까운 거리에 인가도 없었고 웬일인지 그날따라 왕래하는 차들도 적어서 그들은 길옆에 자그마한 모닥불을 피워놓고 간신히 추위와 싸우고있었다. 저녁식사대신 내물을 길어다가 끓여서 몇모금씩 마셨을뿐이었다. 거멸고 우중충한 산정에서 하나 둘 차가운 저녁별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찬바람이 한번씩 불어칠 때마다 위태롭게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한줄기 불길이 둘러선 사람들을 안타깝게 쳐다보며 몸부림쳤다. 차수리가 끝나고 추위와 시장기에 시달려 지쳐빠진 그들이 대대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가까울무렵이

였다.

《여, 친구들, 무슨 일이 있었어? 왜 이제야 오는거야?》

하고 소리치며 대대식당쪽에서 그들에게로 마주오는 사람은 뜻밖에도 리철만이였다.

《저-런! 모두들 금꺾히는 얼었구나! 여, 여 빨리 식당으루 들어가.》

《가만, 석탄부터 먼저 하차하구...》 누군가 차우에서 얼어든 목소리도 간신히 중얼거렸다.

《됐어, 그건 걱정말구 빨리 들어가기나 해!》

철만은 무가내로 그들의 등을 땀다 밀었다. 불꺼진 병실과 주위는 차갑고 고요한 대기속에 조용히 묻혀있을뿐인데 오직 식당안에만은 불빛이 환했다. 언 몸속으로 식당의 더운 공기가 안개처럼 스며들자 견딜수 없는 피로가 몰려들었다.

철만은 서둘러 그들을 식탁에 둘러앉히고 언제 준비해두었는지 더운 음식들을 날라왔다. 사람들이 얼어서 굶뜨긴 하지만 열렬한 동작으로 숟가락들을 집어드는참에 철만이 다가오며 소리쳤다.

《친구들, 잠간 기다려. 언몸은 속부터 덥혀야 돼. 속을 덥히는데야 이렇게 있어야지》 하며 술병들을 내왔다.

《아니 이건 갑자기 어데서?》

《그런건 묻는게 아니야!》

철만은 빈 식기들에 술을 팔팔 부어주며 말했다.

사람들은 어느덧 흥성거리며 얼마간 활기를 회복하기 시작했다. 어두운 밤길, 적재함에 앉아서 추위에 떨고 배고픔에 시달리며 먼길을 다녀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느껴볼수 없는 그런 감사한 마음과 기쁨의 마음으로 그들은 벌써 어데론가 나가버린 철만에 대해서 말들을 했다.

얼었던 몸이 녹은데다 식사를 하고나서 술까지 얼마간 마신탈에 사람들은 너나없이 그자리에서 꺼벅꺼벅 즐기 시작했다.

얼마후 문득 정신이 들어 깨어난 한정민이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정신없이 자고있었다. 그는 밖에 세워둔 석탄차에 생각이 미쳐 서둘러 문을 열고 나갔다.

자극적인 밤대기속에 바늘처럼 촘촘히 박혀있는상실은 찬바람이 불편을 마구 찢러댔다. 그리 밝지 못한 달빛에 적재함우에서 얼른거리는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거 누구요 ?》

정민은 순식간에 줄음이 짝 달아나 소리쳤다. 적재함우의 사람도 삼질을 멈추고 허리를 폈다. 철만이였다.

《왜 나왔어 ? 그냥 병실애가 누울게지.》

《하던 일이야 마저 해야 할게 아니요.》

《오늘은 그만하면 됐어. 이걸 내 혼자서두 얼른 해치울수 있어.》

《그래두… 뭔가 계름직하오. 하던 일을 켜버리곤 나누 발편잡을 못자는 성미요.》

정민은 저도 모르게 은근히 속을 세웠다. 왜서인지 철만의 《호의》가 그저 고맙게만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그 사건이 있은후부터는 같은 분대였건만 될수록 철만이와의 접촉을 멀리했다. 그 까닭은 확실치 않았지만 그 어떤 자격지심인지도 몰랐다.

《젠장, 무슨 사내녀석이 늙은 령감처럼 잔근심이 그리두 많아. 훌훌 털어버릴게지…》

철만은 무슨 의미로인지 머리를 설레설레 저으며 히죽이 웃더니 더 이상 말을 안하고 탄무지에 앉을 박았다. 남들에게 더운 자리를 마련해주고 자기는 찬바람부는 밖에서 썩썩거리며 석탄을 부리고있는 철만의 보습은 마음을 이상하게 그러잡는 것이었다. 한동안의 적막속에 공기마저 얼어붙었다. 엉거주춤한 자세로 멀거니 바라보던 정민은 구석쪽에서 앉을 찾아들고 적재함에 뛰어올랐다. 그만두라고 말하려는듯 한발 나서던 철만이라도 긴한숨과 함께 그냥 돌아서서 묵묵히 삽질을 시작했다. 희미한 달빛과 랭랭한 대기에 도전하는듯한 그들의 맹렬한 삽질은 무언의 동작이기는 했지만 한편 복잡한 심리의 대변이기도 했다....

×

설이 코밀에 접어들면서부터 건설자들은 더 바빠 돌아갔다. 착수한 대상들을 년내에 끝내기 위한 총돌격전을 시작하면서 대대는 약간의 대렬조절을 했는데 상급에 소환된 소대장대신 리철만이 소대를 인계받았다. 또한 철만의 체의로 8분대장으로는 한정만이 임명되었다. 정민은 자기에 대한 철만의 은근한 원심이 웬일인지 늘쌍 끈적끈적한 생각을 불러내어 일편 마음이 들쭉날쭉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말없이 자기 일을 해나갔다.

운수중대에서 풀려나 그들이 살림집내부완성작업에 착수한지도 며칠째 되는 날이었다. 아침녘에 남보다 한발 앞서 현장으로 나오던 정민은 뜻밖의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리철만이 기술부대대장과 다투고있었던것이다.

《글쎄 그렇게는 절대루 안되오.》

철만의 새된 목청이 기술부대대장의 웅웅거리는 탁음을 완전히 제압하며 들려왔다. 야간전투로 피곤이 몰려 눈두덩이 벌거우리해진 두사람은 서로 얼굴을 찌프린채 론쟁하고있었다.

《안되긴 왜 안된다구 그러오. 발라놓은 물탈이 당장 떨어지는것두 아니구 게다가 타일까지 붙여놓으면 되지 않소.》

《세상에 그따위 날림식이 어디 있어요. 그거야 어디 사람이 량심을 가지구 할일이요?》

《동무 말 조심하오. 동무만 량심을 가지구있는

줄 아오? 누군 뭐 몰라서 그렇게 하라구 요구하는줄 아오? 상급에서도 다 토론한끝에 내린 지시란 말이요. 동문 그저 시키는대루 하기만 하면 된단 말이요.》

그리자 철만은 당장에 눈살을 찌뚱하게 세워가지고 접어들었다.

《뭇라구요? 누굴 로보트루 아는게요? 시키는일이나 하라구요? 걷어치우라요. 우린 여기다 제진심을 바친단 말이요. 그래 오작시공인줄 뻔히알면서두 거기다 타일이나 붙여놓구 만세나 부르는게 돌격대원인줄 아시오? 옛날부터 사람은 입이 삐뚤어져두 말은 바루 해야 한다구 했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루 내리먹일수 있어요? 그렇게 시공해놓으면 몇달후엔 또다시 반복시공을 하거나 대보수를 해야 한다는걸 기술부대대장동무는 과연 몰라서 그래요?》

철만의 반박에 기술부대대장은 한동안 갑자르다가 목청을 낮춰 타협조로 말했다.

《모르기야 왜 모르겠소. 하지만 지금 사정이 긴박하다는거야 동무두 알지 않소. 래년봄까지 이지구를 완성하자구 해두 그렇구 또 우리가 설을 떼뻑하게 맞자구 해두 그렇구 이런저런 사정을 다 고려해서 상급참모부에서는 어떻게하나 이호동의 내부완성을 며칠내루 끝내자구 작정한것인데 동무네두 러단의 전반적의도에 발맞춰줘야 할게 아니요. 우선 완성해놓구 그다음에 제기되는것은 천천히 수정하잔 말이요.》

《일은 거꾸루 해놓구 칭찬이나 받아선 뭘해요? 그리구 천천히 수정한다는게 말이나 돼요? 엄연한 반복시공인데… 로력랑비, 자재랑비, 시간랑비… 게다가 사람들에게 제 량심을 속이는 법까지 배워주는게 아닌가 말이우?》

철만의 항변은 열렬했다.

《됐소, 됐소. 동무하고는 말이 통하지 않는구만. 무서운 벽창호라니까. 원칙은 혼자만 있는것처럼… 정 동무네가 못하겠으면 다른 대상으로 철수하오. 여긴 다른 소대를 붙이겠으니.》

《우리가 말았던 대상을 남에게 넘겨주지는 못해요. 어쨌든 우린 우리 량심대루 일할테니까 길게말하지 마우!》

두사람의 언쟁은 끝을 보지 못한채 사람들이 하나 둘 나타나자 일단 중지되었다. 대신 이 문제를 놓고 러단에서는 분대장이상 지휘관들의 협의회를 열었다. 이를테면 이해를 총화짓는 러단의 마감대상들인 1-8-가호동주벽의 미완성 5세대에 대한 마감공사를 며칠 남지 않은 기간에 끝내겠는가 아니면 다음해로 넘기겠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토론했다. 일부 사람들의 욕심같아서는 와닥닥 제껴버리고 우에다 성과보고를 올렸으면 했으나 리철만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허풍》을 칠수 없다고 말했다. 미장면의 양

생기일도 지키지 않고 벽지작업이나 타일작업 등 마감공사를 하면 반드시 후날 반복시공을 하게 되고 또 당장은 결합이 감춰진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 집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큰 불편을 주게 될 것이라고 철만은 전체 런던앞에서도 완강히 주장했다. 결국 철만의 원칙은 승리했으나 그렇다고 앉아서 시간만 보낼수도 없으니 양생의 조속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안을 연구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가 끝나고 나오면서 한정민은 이웃대대의 분대장들과 한담을 하다가 이런 말을 듣게 되었다.

《여, 친구, 당신네 소대장 확실히 팬찮은치야. 배짱이 있단 말이야. 저치하구 같이 있으니까 동무두 아마 일할 재미가 있을게야...》

《글쎄... 난 아직 돌격대에 나온지 얼마 안되니까 잘 모르겠어. 그런데 동문 오늘 일을 놓구 철만일 팬찮다구 생각하는거야?》

정민은 어리숙한체하며 물었다.

《그야 이번일두 일이지만 요 몇달전에 저치가 말이야. 어, 그게 아마 10월말경이었을게야. 그렇지, 1분대장? ... 그날 오후 한 뒤시쯤해서 우리대대 피치가마에 불이 났단 말이야. 거길 지키구 있던 우리 친구들이 그 시기에 요건 좀 말하기뿔한건데... 하여튼 저시기하려구 한시간정도 어데 갔었던 말이야. 그럴수 있잖아? 젊은치들인데다 그날은 마침 일요일이었으니까. 현장엔 사람들두 없구 현장경비원두 식곤증에 몰려 깜박 졸고있는 땀데 글쎄 당신네 저 소대장이 그리루 지나가다가 그걸보구 달려들었지. 완전히 사생결단하구 달려들어 교박 한시간을 싸웠대... 참 쉽지 않은 친구야. 뒤늦게 연락받구 우리가 와보니 저 친구 온통불에 그슬리구 얼굴이 찌지구 말이 아니였어. 우리 병실에 데려다오투 빨아주구 상처두 처치하구 식사두 시켰지. 그리구 직일근무라면서 일어나 가겠다는걸 불들어왔히구 한잔 마시면서 물어봤는데 종시 어데 있는 누구라는걸 대주지 않더군.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될줄이야... 아마 그때 우린 저 친구가 아니었다면 되게 곤경을 치렀을게야. ...》

정민은 그이상 듣지 않고 돌아섰다. 불의타격에 급소를 채운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등뒤에서 《여, 갑자기 왜 그래? 머리가 돈게 아니야?》하는 이웃대대 사람들의 말소리도 듣지 못한채 그저 같은 말만 입속말로 중얼거렸다. 《그날은 마침 일요일이었단 말이지... 그리구 직일근무였던 말이지...》

눈앞에는 환영처럼 그날이 생생히 떠올랐다. 비방울이 흐느끼던 시뿌연 밤, 공중을 배회하는 가을바람에 흩날리던 락엽, 끄슬린 머리카락, 험상해진 불편... 불시에 빨라지는 심장의 박동이

쿵쿵발발을 흔들었다. 그러자 또 다른 초상이 떠올랐다. 그와 더불어 울분의 일호, 동정의 일호가 서서히 흐린 하늘가의 한귀퉁이로 먼먼 우뢰소리처럼 희미하게 사라져가고 뭔가 종잡을수 없는 환각이 립체영상마냥 2중으로 겹쳐들었다. 너스레 떠는 철만, 격분하는 철만, 차거운 겨울밤 자정까지 기다리고 있던 철만 그리고 고집스레 자기를 주장하던 철만...

이튿날 사람들은 더욱 침울해지고 왜서인지 눈에 뜨이게 더 나이들어보이는 한정민의 모습을 보며 다소 의아해했다.

×

생활이란 어제와 오늘의 단순한 반복이라고 생각될수도 있다. 어제 한 일을 오늘도 하고 오늘 한일을 래일도 하고... 더우기 건설장에서의 작업이란 흡사 단순로보트의 움직임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수 있다. 파고 세우고 바르고... 또 파고 세우고... 하지만 의례히 그렇듯이 이 모든것은 관조자의 립장에서 볼 때의 단순성이고 적극적인 참여자, 창조자의 립장에서 보면 생활은 정반대의 측면을 보여준다고 할수 있다. 실제로 건설장에 나가서 흙 한삽을 퍼내고 기초 한돌기를 쌓고 몰탈 한삽을 퍼넣고 타일 한장을 붙이고 하면서 마치도 산모가 자기의 태내에서 새 생명의 태동을 매일매일 느끼듯이 그렇게 자기창조물의 성장과정을 날마다 시각마다 보아나가는 사람은 생활이란 참으로 재미있고 환희로우며 삶자체가 통채로 아름다와보일것이다. 바로 궁지도 여기서 생기는것이 아닐가. 생활의 관조자에게는 자기 하는 일이 지겹고 무의미하게 생각되겠지만 창조자에게는 그 이상의 재미가 없을 것이다. 창조란 사람을 삶으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다. 더우기는 그 창조가 쉽지 않고 험치 않게 진행될 때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만큼 완성된 창조물에 대한 애정과 궁지도 그만큼 커진다고 할수 있다. 난산의 결과에 태어난 새 생명은 산모에게 해산시의 고통에 배가되는 사랑을 품게 하지 않는가...

기나긴 겨울 차갑고 얼기 잘하는 건설장의 온갖 대상들과의 신경전, 의지전의련속이었던 첫 겨울이 지나갔다. 바야흐로 봄을 맞아 소생하는 만물과 같이 온 겨우내 힘들어 키워낸 한정민이네의 《새 생명》도 마침내 출산의 첫 고고성을 울리려고 마지막 태동을 하고있었다. 드높은 초고층주력에 외모를 만들어주고 내부를 완성시키고 언땅을 파가르고 난방용배관과 가정용케블을 설치하는 등 《새 생명》에 모양을 주고 열을 주고 빛을 주어 하나의 창조물을 완성해냈다.

봄잔디가 싹을 내밀기 시작한 어느날 리철만의

소대원들은 강변의 쪽우에서 정오의 해별에 몸을 맡기고 모여앉았다. 따스한 별에 눈살을 찌프리며 철만은 의례히 익살 한마당을 폈다.

《여 친구들, 봄바람엔 뭐가 다 어떤다는데 우리두 래일쯤엔 쪽 빼입구 들놀이나 가볼가? 기운 깨나 쓰는 총각들이 짝두 없이 봄을 맞는걸 알면 아마 봄아씨두 좋아 안할걸...》

《거 소대장동무가 정말 봄바람에 단단히 취했나보군. 글쎄 어쩐지 러단 측량공체네가 별루 볼일두 없으면서 우리 소대에 자주 다닌다 했더니 다 쪼간이 있군그래.》

《눈앞에 보이는건 온통 꽃천지라 황홀경에 취해슬쩍 했다가 그만에야 작은 가시 염통을 찔렀다네...》

《으하하하! ...》

고요한 봄의 강가가 푸르르 진동했다. 한정민도 기겁계 웃어대며 철만을 놀려주었다. 지나간 겨울과 더불어 오는 봄은 이상한 친화력으로 그들을 동기간처럼 결합시켰다.

어느덧 사람들이 패를 무어 끼리끼리 한담을 시작하자 철만은 슬며시 정민에게로 다가와 말을 건넸다.

《지금까지 힘들었지?》

정민은 시무룩히 웃으며 그러나 의미있는 따뜻한 눈길로 그를 쳐다보며 머리를 흔들었다.

《생활이란것두 고개마루가 있어가지구 그 고개만 넘어서면 평지가 나진다구들 하더구나. 그러나 그 고개를 넘기가 힘들지... 참, 이런 때 일호두 함께 있었으면 작히나 좋을가...》

철만의 입에서 느닷없이 일호말이 튀어나오자 정민은 한순간 긴장해졌으나 이어 긴 한숨을 내쉬었다.

《어찌겠어. 사람마다 제 갈길을 가기마련인걸. 누가 강요한다구 될일두 아닌데... 내가 그때 너 무했어. 조용히 해두 될 말을 공연히 성격만 살려가지구... 듣자니 그 친군 요사이 어느 한 무역기관의 대외사업처에 입직했다구 하던데?》

정민이도 박일호의 그후 소식을 여러번 들었다. 그는 큰아버지가 힘써준탓에 아마 《리상하던곳》, 《당당한 권리가 차례지는곳》으로 간 모양이었다.

《하기야 어데 가나 자기 일에 애착을 가지구 성실하게 일하면 그만이지...》

두사람은 나름대로 일호의 성실성에 대해 기대하면서 점도록 봄별이 희롱하는 수면을 바라보았다...

×

4월에 들어서면서 건설은 완공되었고 잇따라 총화사업도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대상지로 떠나기에 앞서 돌격대원들에 대한 수훈과 표창사업

도 있었다.

이튿날부터 새집들이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계절에 새로운 기쁨을 맞아 새로운 희망을 안고 새집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로 온 거리가 매일매일 명절분위기였다.

리철만과 한정민은 자기들의 손으로 완공한 고층주택의 로대에 나가서서 그 행복에 겨운 흐름을 벌써 몇시간째 지켜보고있었다..

어제까지는 그들이 이 거리의 주인이었지만 오늘부터는 아니, 앞으로 영원히 이 거리의 주인은 저 사람들일것이다. 속절없는 바람과 초목만이 주인이던 이 별관에 땀을 뿌리며 행복을 창조해놓은, 한정민이네는 곧 여기서 떠나야 하는것이다.

《왜 그런지...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정민은 느닷없이 중얼거리며 큰숨을 내쉬었다. 그는 봄별에 눈이 시그러운듯 한동안 찌프리고있었다. 그러는 모양을 지켜보며 철만은 뭐가 좋은지 가볍게 웃으며 그의 어깨를 투박하게 췌박았다.

《이 친구 감정이 지내 풍부한걸, 좀 있다가는 눈물까지 흘리겠구나... 일없어, 차차 습관될거야. 나두 처음엔 한 대상을 완성하구 떠날 땐 너하구 비슷했었지. 그러나 이젠... 웃기나 하구 춤이나 춰야지!》

정민은 슬그머니 아니꼬운 생각이 들어 어지간히 성격을 살렸다.

《젠장, 내가 무슨 말을 하자구 했는지 알지두 못하면서 뭘 그래? ... 난 그저 지나온 나의 생활을 여기에 뒤두고 가기가 아쉬워서 그러는거지 무슨 판...》

그는 정말 무엇때문인지 목구멍이 불편해지는 것을 느끼고 말을 중동무이했다.

《됐어, 됐어. 알만해. 사실 그렇다니까... 땀 흘리구 고생하며 집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주구 웃으면서 떠나는게 우리 돌격대원의 락이지 뭐야...》

이렇게 말하는 철만의 목소리에서도 역시 이상한것이 느껴지었다. 이미 습관되었다고 하던 그도 웬일인지 먼 지평선까지 아득히 뻗어나간 새거리-자기들의 장한 《아들들》을 바라보며 봄의 신비로운 아지랑이에 넋을 빼앗긴 사람처럼 같은 말만 거듭했다.

《글쎄 그렇다니까... 여기에 아쉬울건 조금두 없어, 조금두! ...》

그러나 사람들은 역시 돌격대원들의 수고를 잊지 않고 있었다. 그날 오후부터 많은 사람들이 신문사, 출판사, 텔레비죤과 방송들에서 그들을 찾아왔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뜻밖인것은 박일호가 찾아온것이였다.



×

기쁨의 추억은 이미 기쁨이 아니라 슬픔의 추억은 의연 슬픔이라는 말이 있어 그런지는 몰라도 박일호를 만나는 첫 순간 그들은 저도 모르게 서글픈 감정부터 느꼈다. 그때문에 세사람은 그저 묵묵히 바라보다가 이렇다 하게 말도 못하고 헤어져버렸다. 그가 왜, 무엇때문에 왔는지는 묻지도 못한채...

저녁에 병실에 돌아오니 한 친구가 정민을 찾아와서 종이쪽지를 주는 것이었다. 펼쳐보니 박일호의 편지였다.

《...너희들의 얼굴을 쳐다보면서는 차마 입술이 떨어지지 않아 이렇게 글을 써보낸다. 나는 지금 몹시 괴롭다. 숨김없이 툭 털어놓고 얘기하겠어. 좁전에 돌격대의 한 친구가 나보고 지금의 생활은 아마 만족할테지? 하구 묻더구나. 나는 대답을 못했어. 너희들두 알겠지만 이 《만족》이라는 개념두 상대적인 것이 아니겠니. 난 언제나 《만족에 가깝다》구는 말하지만 《만족하다》구는 하지 않아. 《만족하다》는 말은 결국 《행복하다》는 말과 동의어의 계열에 있다구 생각해... 그런데 내 생활은 어떠한가? 우리 어머니나 친척들의 견해에 의하면 그야말로 《만족》하구 《행복》한 생활이지. 그래서 난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나의 이 《괴로운 행복》에 대해서 털어놓으려구 하는거야.

내가 일하는 대외사업처에서 난 하나의 인형과 두 같은 존재야. 막말로 말해서 자격두 없는 내가 남의 눈치만 살필래기 정신이상이 생길 지경이다. 종일 손에 익지두 않은 일을 붙들구 앉아서 진땀을 뺀다. 게다가 누구든 상부에서 내려와 편제두 없구 능력두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가구 물어보면 그럴듯한 변명을 해야겠기에 그 일루 또 골을 썩인다. 그런데다 부서책임자의 눈에두 벗어나지 말아야지 큰아버지 망신두 시키지 말아야지, 아이구 참, 시시콜콜이 말하자면 숨이 다 막힐 지경이다. 그런데두 이런 속내를 모르는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 친척, 친구들은 나보고 복을 타구났다고 한탄말이야. 도대체 뭐가 복이란 말이나? 그들에게는 웃이나 흰하게 차려입구 외국인안내나 다니면서 그러루 하게 살면 그게 행복의 전부라고 생각되는 모양이야. 아니 내 생활은 사람의 생활이 아니라 꼭 물속에 반쯤 잠긴 썩은 나무토막의 생활이야. 영 가라앉지두 못하구 그렇다고 아예 떠오르지두 못하면서 어정쩡해가지구 관청에 온 수탉모양으로 남의 눈치나 살피는... 난 완전히 《자기》를 잃어버린 수동체인데 그래 과연 이것이 인간의 행복이란 말이야?! 나는 하루하루의 생활이 역겹구 나자신두

밧살스러워 견딜수가 없구나. 이제는 직장에 출근하는것조차두 끔찍하구 사람들을 만나기두 부끄러워 죽을 지경이다. 그저 여기를 떠나 아는 사람이 없는 그런곳에 가서 살아봤으면 하는 생각뿐이야...》

(하지만... 난 얼마전까지만 해두 그렇게 생각지는 않았지. 인간답게 뻔뻔하구 당당한 권리를 찾아가겠노라구 하면서 여기를 떠나지 않았니? 말은 바른대루 행복을 찾아 떠났던것인데 지금에 와서는 도대체 어찌된거야?)

《...나는 후회를 해. 끝없이, 끝없이 후회하군해. 이렇게 말하면 너희들이 나를 여지없이 비웃으리라는걸 잘 알지만 그래두 나는 너희들이 지금에 와서는 부럽구나.

나는 더이상 이런 처지를 참을수 없어 몇번이구 여기서 뛰쳐나가려구 결심했었어. 그러나 주변에서 그러지 못하게 하는구나. 부탁하구 애원하구. 사람들은 아직 내가 세상살이 경험이 없어서 그런다면서 이력저력 살아가느라면 젊은 혈기도 식구 마음두 안착된다는거야. 아, 듣기만해두 화가머리끝까지 나구 온몸이 지긋지긋해나는 <인생강의>구나! ...

나에게는 그 어떤 권리두 없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리상에 따라 생활을 꾸려나갈 권리가 누구에게나 다 있다구 말하던 나에게서 그것은 이미 사라져버리구 나는 그 어떤 자기기만의 철사에 묶여버리고 말았어. 생활은 자기 의무를 저버린 사람에게는 그 어떤 권리두 주지 않는다는걸 지금 나는 사무치게 깨닫는구나.》

창밖에서 웃음소리가 활짝 터져올랐다. 무엇인가 재미있는 일이 있는 모양이었다. 시름없는 투명한 웃음소리를 듣느라니 친구의 하소연이 더욱 가슴을 들이쳤다.

《...친구들, 난 다시 시작하구싶다. 내 손으로 내 얼굴에 땀을 흘리며 스스로 의무를 다하겠다. 쓰고 달고 맵고 짠 생활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 잃어버린 나의 권리를 꼭 다시 찾고싶다. 나의 친구들, 부디 나의 방향타에 힘을 더해달라. 부탁이다! 용서를 빈다! ...》

밖에서는 웃음소리가 여전히 그치지 않았다. 물건을 들고 오가는 소리, 부딪치는 소리, 무엇을 찾는 소리, 그리고는 또다시 한마당 가득 널려지는 웃음소리.

(옳지, 래일부터는 새로운 대상으로 떠나니까 지금부터 그 준비를 서두르구 있구나... 새로운 생활, 새로운 희망, 새로운 창조... 참, 삶이란 얼마나 아름다운것인가!)

박일호의 편지는 정민의 손에 쥐인 채 창으로 불어드는 바람결에 부르르 떨고있었다...

## 그대의 나날

안윤식

### 뚜렷한 자욱

흥치며 설레이는 금나락을  
조심히 헤치면 그대의 자욱 남아있을것인가  
농장대학으로 문화회관으로  
저녁이면 청춘들이 모여가는 그 발걸음밑에  
그대의 자욱은 묻혀버린것인가

정이 들대로 든  
3대혁명 우리 소조원이 떠나간다  
언제나 바빠 오가던 들길 마을길  
그대의 자욱은 보이지 않아도  
즐거울 때 흐뭇할 때 때때로  
추억의 맨 앞자리에 떠오를  
3대혁명의 미더운 전위여!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보람찬 청춘시절 빛내였구나  
당의 뜻으로 농장원들을 묶어세우며  
농사일을 기계우에 실어주며  
노래춤속에 생활을 활짝 꽃피워주며  
대오의 앞장에서 세폭의 붉은 기발로  
사람들을, 벌을, 마을을  
주체의 한빛으로 물들어왔거니

바람결에 실려오는  
무르익은 과일 향기에도  
그대의 숨결은 어려있고  
아버이수령님께서 손수  
벼이삭무게를 가늠해보시며 만족해하실 때  
그리도 행복에 겨워하던 그대의 모습이  
농장포전에 그대로 머물러있어  
무거이 고개숙인 나락을 어찌 무심히 보라

아아 그대는 떠나가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우리 소조원  
풍요한 별 아담한 마을밤도 잊고 잠도 없이  
3대혁명 꽃피워온 시대의 기수  
농촌체제 활짝 꽃핀 마을에  
참된 삶의 흔적을 뚜렷이 남긴 그대!

세월의 눈비가 지울수 있으랴  
우리 가슴에 새겨진 그대의 자욱  
3대혁명종착점에로  
이끌고 떠밀며 언제나 함께 있어라  
보람찬 청춘시절을 예서 빛내인  
우리 당의 3대혁명전위여!

### 한마음 한모습

한식술 갈던  
정든 소조원은 떠나가고  
아직 해별에 그을지 않은  
낮설은 새 소조원이 왔건만  
만나자 단번에 마음 끌리누나

남의 즐거움 더 기뻐하고  
남의 피로움 더 아파하는 그 성품!  
속마음 터놓고싶어  
스스럼없이 찾아가면  
철철 넘치게 쏟아붓는 그 인정미!

인수로를 따라 논고를 보며  
이른 새벽 포전길 걸을 때

두렁콩잎 이슬에

바지가랭이 축축히 젖어  
마주오는 모습 눈에 익은 한모습

떠나갔던 소조원이  
다시 돌아왔는가 가까이 보니  
옛그제 새로 온 소조원  
어찌면 똑같이 새벽잠이 없을가  
어찌면 똑같이 포전에서 새날 맞을가

대농의 해라고 하신  
수령님의 말씀  
귀에 쫙쫙 들어오게 해설도 하고

만풍년을 안아오려  
새벽이슬 먼저 터는 일본새도 하나같구나

어이 생김새야 같으랴만  
어이 목소리야 같으랴만  
흐르는 세월속에 가고오는 우리 소조원들  
떠나가도 잊혀지지 않아라

새로 와도 서먹하지 않아라

아아 우리 인민을  
공산주의노을속에 남먼저 세우려는  
우리 당의 변함없는 한뜻을 안고오기에  
3대혁명전위들은 새로 오고 또 와도  
한마음, 한모습 우리 소조원이구나!

## 그대의 나날

그대의 나날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뵈옵는 나날이다  
논밭에서 해를 지워도  
마을에서 하루를 보내도

보시면 기뻐하실거야  
아시면 만족해하실거야  
포기포기 가꾸는 곡식을  
집집마다 넘치는 행복을

3대혁명 꽃피워가는  
그대의 나날은  
친애하는 그이께 드릴 기쁨  
차곡차곡 쌓아가는 나날이다

그래서 농기계 창안의 밤은  
밤이 짧고  
그래서 네벌길 다그칠 때는  
낮이 짧고

낮과 밤이 짧아  
한스려우면서도  
큰기쁨 드릴 꿈같은 그날이  
앞당겨진다는 그 한생각에

그대의 가슴에선  
오늘이 약속하고 래일이 숨친다  
친애하는 그이앞에 자신을 세우고 나날을 산다!

## 그대를 따라간다

처음 올 땐  
부드럽고 곱던 손이  
한해여름 농사일에  
손가락마디가 굵어졌구나  
3대혁명소조원동무여

처음 볼 땐  
멀끔하던 얼굴이  
한해여름 해별에  
검실검실 철색으로 뒀구나  
미더운 우리 소조원동무여

이 마을에 태를 묻고  
농사일로 반백을 넘긴 농장원들도  
혈기왕성한 청년분조원들도  
걱정없이 잠든 그런 밤에도  
그대는 왜 잠들수 없었던가

필지별 토양분석표를 놓고  
새 농기계 창안의 도면을 놓고  
탐구로 지새우던 긴긴 그밤에

군고구마를 싸안고 갔을 때  
걱정이 자오록하던 그대의 눈길을  
나는 잊을수 없어라

어머니가 도시로 가자거니  
네가 고향별로 오라거니  
양보없는 한가정의 싱깁이가  
가슴에 걸려 내려가지 않아서  
밥맛까지 잃던 그대

낱아기른 한 어머니에게도  
효도를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에 충성다하랴  
충효의 참뜻으로 그 아들을 깨우쳐

끝끝내 고향벌의 주인으로 세워준  
그 가룩한 성정...

걱정이 없이 무사태평 지낸다면  
우리 어찌 기수라고 그를 따르랴  
탐구와 창조로 사람들을 선도하지 못한다면

그를 어찌 당에서 파견한  
3대혁명전위라고 말하라

강물은 건너봐야 알고  
사람은 지내봐야 안다고  
우리는 그대가 친국임을 안다  
자나깨나 무엇때문에 애면글면하는지  
땅이 알고 농장원들도 다 안다

아아, 친애하는 그이께서  
어느 포전 어느 집에 들리시여도

우리 농장 그 누구와 만나시여도  
3대혁명붉은기농장이 다르다고  
못내 만족해하시기를 바라는 그대의 마음

미더운 3대혁명전위여  
우리는 그대를 따라간다  
그대 앞장서 이끄는 그길에  
산천도 사람들도 주체의 요구대로 다듬어지고  
일심단결된 우리 식 사회주의가  
높이높이 솟아오르기에-

## 존경하노라

유영하

세월이 흐르면 우리의 머리우에도  
흰서리 날릴 때가 오려니  
친구들아 존경을 아끼지 말자  
이 나라의 로인들에게

마을과 거리에서  
허리굽혀 드리는 인사 하나에  
어찌 다 담으랴  
로인들을 존경하는 우리의 마음을

자리를 양보하고  
무거운 짐을 들어드릴 때  
대견스레 우리를 바라보는 그 로인들이  
건국의 첫 쇠물을 뽑고 분여지 쾌말을 박던  
이 나라의 첫 주인들이 아니냐

어찌 알랴 유원지에서  
꽃밭을 가꾸는 그 로인이  
불타는 락동강을 헤쳐온 련대장인지  
문양고운 단추를 만들어  
직매점에 내오는 그 할머니가  
싸우는 고지우에 포탄상자 이고오르던 녀인인지

꽃방석이라도 깔아드리고싶다  
청춘시절의 수집은 첫사랑마저  
건설장 부재우에서 속삭인 그네들  
포연에 그슬고 눈비에 젖어  
검은 머리 백발이 된 이 나라의 로인들

흘린 피와 바친 땀의 대가로  
응당 받아야 할 국가의 혜택도  
미안해하는 그네들  
인생말년에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나라에 보탬을 주자고 애쓰는 그네들

그네들이 흘린 땀은  
우리 활개치며 걷는  
출근길 포석우에도 뜨거웁고  
끝없이 뻗어간 푸른 궤도우에  
지금도 들먹이고있지 않느냐

세월의 년륜속에 청춘의 나이  
투쟁의 나이를 새긴 그네들처럼 살자고  
한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조국의 넓은 트랙에 충성의 자욱을 남긴  
그네들의 걸음에 발맞추는 우리는 새 세대

아,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이 땅에 선참으로 꽃피운 그네들  
할아버지, 할머니라 선뜻 부르지 못할  
혁명의 선배, 혁명의 스승들앞에  
그 어떤 위훈을 안고서면  
우리 땀땀이 존경을 표하라

그네들이 떨치던 마치고 낮과 붓을  
지금 우리가 틀어잡고있지 않느냐  
땅을 따라

그네들이 빛내온 주체의 행군길을  
지금 우리가 이어가고있지 않느냐

친구들아 존경을 아끼지 말자  
우리의 뜨거운 심장엔  
그네들의 붉은 피가 흐르고있다  
우리의 가슴엔  
그네들의 세찬 숨결이 높뛰고있다

## 인테리형상과 지성세계모사

김려숙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사회발전에서 인테리들이 노는 역할로부터 우리 문학에서 인테리형상창조문제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 온 사회의 인테리화가 전면적으로 실현되고있다.

우리 인테리들은 당 건설과 활동에서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인자로서의 높은 영예와 긍지를 안고 주체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참된 삶의 보람을 느끼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혁명과 건설이 심화되고 사람들의 사상문화수준이 비할바없이 높아진 현실적요구와 시대적미감에 맞게 인테리형상창조에서 새로운 문제들을 적극 탐구하여 우리 문학의 화원을 더욱 만발하게 해야 할것이다.

인테리들의 지성세계를 잘 그리는 문제도 인테리형상창조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인테리들의 형상에서는 인테리들의 지성도를 보장하는 문제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인물의 지성도를 어떻게 그리는가 하는데 따라 인물의 성격과 그 사상정신적바탕이 규정되며 인테리형상의 독특한 맛이 나고 작품의 품위가 결정된다.

인물의 지성도는 사상의식발전과정, 혁명적세계관형성발전과정과 결합되며 혁명과 건설에 이바지하는 실천투쟁속에서 표현되는것만큼 총체적으로 인물의 내면심리세계, 그의 품격과 관련되는 문제이다.

지성세계를 떠나 인테리들의 내면심리세계, 성격적특성을 그릴수 없으며 작품의 철학성과 인식교양적기능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작품들에서 인테리는 다양한 인물로 등장한다. 종자와 작품의 특성에 따라 주인공일수도 있고 부차적인 인물일수도 있으며 긍정적인물일수도 있고 부정적인물일수도 있다. 또 주인공을 비롯한 기본인물들의 관계가 다 인테리들의 관계로 설정된 작품도 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인테리는 인테리로서의 성격적특성이 나타나야 하며 시대력사적환경에 어울리고 일정한 사회계급적영향밑에 있는 다양한 개성들로 창조되어야 한다.

지성세계문제는 다른 인물형상들에서도 제기되

지만 특히 지성인인 인테리형상에서 기본요구로 된다.

최근 우리 문학에서는 장편소설들인 《청춘송가》(남대현), 《량심과 운명》(리동구), 《후대의 길》(리호인), 중편소설 《생활의 언덕》(김교섭), 단편소설 《생명》(백남룡)을 비롯하여 인테리형상을 의의있게 취급한 소설작품들이 많이 나왔다.

이 작품들은 인테리들의 지성세계를 진지하게 파고들었으며 지성인의 품모는 결코 높이 쌓은 지식의 탑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에 앞서 사회와 집단, 나라와 민족에 바치는 성실하고 깨끗한 마음을 지닌 참인간의 모습에 있다는것을 형상적으로 확증하고있다.

작품들은 무엇보다도 지성도가 사상정신적품모에 의해 규정된다는것을 형상적으로 보여줄수 있게 문제점을 옹계 포착하여 그리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물의 성격은 그의 정신적높이에 의하여 규정된다. 인물마다 서로 다른 성격으로 안겨오는 것은 그들의 개성을 통하여 나타나는 정신적품모가 다른데 원인이 있다.》**

사람들의 가치와 품격을 규정하는것은 사상의식이다.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상이 똑바르지 못하면 쓸모가 없으며 속물이 되고만다.

사상과 녀, 열이 없는 지식은 백해무익하며 그런 지식을 가진 인테리는 혁명의 기슭으로 밀려나기마련이다.

식자우환이라는 말도 있지만 인테리들이 혁명적인 사상으로 무장하지 못하면 그가 가지고있는 과학지식과 기술은 보배로 되는것이 아니라 우환거리로 된다.

지성세계가 인물의 정신도덕적품모, 인물과 관련되는것도 그때문이다. 인테리의 지성세계는 단순히 지적인 세계인것이 아니라 사상정신세계, 내면세계의 한측면이다.

인물의 사상과 신념, 지향 등 정신적높이는 지성세계를 나타내며 그 높이를 평가하는 결정적인 조건이다.

우리 작가들은 주체의 사상론의 이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있다. 문제는 작품에서 인테리의 지성세계를 사상정신적인 풍모와의 유기적인 연관속에서 그릴수 있게 하는 형상적인 방도를 옮겨 모색하는것이다.

적지 않은 작품들이 인테리들의 량심과 녀에 관한 문제를 인간문제로 내세우고 그것을 인간학적으로 풀어나간것은 매우 의의있다고 생각한다.

량심과 녀은 인간적인 존엄에 관한 문제,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고 빛내어나가기 위한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량심을 지닌다는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초보적인것이면서도 근본적인것이다. 지성인인 인테리들은 누구보다도 사리에 밝으며 량심과 녀을 귀중히 여긴다.

인테리형상에서 량심과 녀에 관한 문제가 인간문제로 많이 제기되는것도 그와 관련된다고 본다.

량심과 녀은 단순히 그 어떤 도덕적인 한계에 머무르는것이 아니라 사상의식에 관한 문제로 된다.

량심은 사회적집단의 리익을 존중하는 사회적의식이다. 량심이 사람들과 사회집단에 대하는 태도를 표현하는것만큼 그것은 사회계급적인 성격을 띠게 되며 어떤 량심과 녀을 지닌 인간인가에 따라 그의 인생관이 달라진다.

오늘 우리 시대 인간들의 량심은 그 어떤 착취계급화 《량심》, 부르조아적 《량심》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혁명적량심이며 우리 시대 인간들의 녀은 주체의 녀이다.

량심은 속일수도 없고 저버릴수도 없다. 혁명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먼저 생각하고 귀중히 여기며 당과 수령의 믿음과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살며 일하는 혁명적량심을 가져야 한다.

혁명적량심은 수령, 당, 대중에 대한 충실성에서 가장 뚜렷이 표현된다.

인테리들의 지성도는 사회정치적생명체, 혁명의주체에 대한 충실성과 정비례되어야 하며 그것은 혁명적량심과 녀에 의하여 담보된다.

우에서 련거한 작품들은 인테리들이 지닌 량심과 녀을 그의 지성세계의 바탕에 깔고 인물들의 운명선상에서 깊이있게 보여줌으로써 사상정신세계의 변화발전에 맞게 변모되는 지성세계를 타당성있게 형상화하고있다.

특히 지상을 통하여 많이 논의되었지만 장편소설 《청춘송가》는 주체형의 새 세대 청년인테리들의 내면심리세계, 지성세계를 훌륭히 형상화하는

데서 좋은 창작적경험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장편소설 《청춘송가》에 대하여 여기서는 더 논의하지 않으려고 한다.

장편소설 《량심과 운명》은 각이한 운명의 길에서 헤매이던 인간들이 준엄한 전쟁의 시련속에서 모두가 하나같이 장군님께 운명을 맡길수 있는것은 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는 고귀하고 순결한 량심에 기초한것임을 형상적으로 밝히고 있다.

소설은 결국 인간적인 량심이 어떻게 수령관과 결합된 혁명적량심으로 전환되고 그것이 인생관화 되여나가는가 하는 과정을 그리고있다.

소설에서 이러한 문제들은 주인공 박태식과 조경칠, 문경환 등의 형상에서 뚜렷이 부각되고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은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격전장이였으며 사람들의 량심과 의리를 검증하는 전초선이였다.

조국과 겨레의 운명을 자기의 운명과 어떻게 결합시키나가는가 하는 량심과 의리에 기초하여 정의와 불의, 진실과 거짓, 애국과 배국의 상반되는 사상적립장과 태도가 나오게 된다.

박태식을 비롯하여 장편소설 《량심과 운명》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형상은 바로 이 커다란 사회적문제를 안고있다.

박태식은 전쟁전에는 대학의 이름있는 문학교수였다. 전쟁은 그를 순결한 량심을 지닌 교육자, 인간으로서뿐아니라 혁명적량심을 지닌 혁명가, 투사로 성장하는데서 중요한 계기였다.

이러한 생활은 전쟁이 일어나자 남반부에 파견된 정치공작원으로서 남반부인민들에게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을 안겨주고 남녘땅에 장군님의 정사를 펼쳐나가는데서, 간고한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로정에서도 신념을 잃지 않고 강의한 의지를 발휘하는데서 그리고 각이한 사람들의 운명을 건져주어 장군님의 품에 안기게 하는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소설에서 박태식은 독자들의 머리속에 인이박힌 혁명의 길에서 주저하고 동요하다가 자기의 길을 선택하는 오랜 인테리형상에서의 도식화된 틀에서 벗어나 처음부터 장군님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고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기 위하여 애쓰는 굳건한 인물로 형상되였다.

주인공의 성격이 이렇게 곳곳이 안겨오는것은 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는 그의 신념과 량심이 심장속깊이 뿌리내려지고 더우기 준엄한 전쟁의 극적정황속에서 더욱 확고해지기때문이다.

그에게도 생활의 우여곡절은 있었다. 그러나 생활의 곡절이 곧 그의 사상과 신념, 량심의 곡

절로는 될수 없다.

물론 작품에서 그의 성격적바탕을 해명하는데서 약간 스치고있지만 박태식은 가정주위환경으로 하여 전쟁전에 일정한 정신적고충을 겪는다.

그러나 그에게는 종합대학을 세워주시고 이름 없는 자기에게 존함을 새긴 위촉장을 보내주시었으며 심적고민을 이기지 못하여 대학교문을 떠나려고 할 때에조차 자기 운명을 책임지고 말아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있었고 그에 보답하는것을 인간의 가장 크나큰 미덕으로 여기는 순결한 량심이 자리잡고있었다.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그 위대한 진리를 절감한 박태식교수의 사상정신세계는 그 어떤 정황에서도 그 량심을 저버리게 할수 없었다.

량을 저버리는것은 진리와 정의를 가장 귀중히 여기는 인테리학자의 본분과 사명에도 어긋나는것이였다.

하기에 주인공은 사랑하는 제자의 한사람이었던 조경철이 뜻밖에도 부르조아 반동철학자로 자기앞에 나타났을 때에도 그의 인간됨과 교육받은 환경, 그의 지향과 주의주장을 리치적으로 판단하고 리해한데 기초하여 그를 끝까지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 조경철과 그의 누이동생 혜순, 완고하던 문경환과 인민유격대에 들어가는것을 주저하던 남택의 문학교원, 영남이를 비롯한 거지아이들, 극좌적인 배정로 등의 운명전환에는 그들 모두가 자기처럼 장군님께 운명을 맡겨야 한다는것을 굳게 확신한 주인공의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이 놓여있다.

주인공의 혁명적수령관은 인간에 대한 태도에서, 생활을 대하는 태도에서 혁명적량심으로 안받침되고있다.

책상물림인 주인공이 사람들의 생활과 운명속에 뛰어들어 그들을 건져주고 상상도 하기 힘든 간고한 전략적인 일시적후퇴로정을 동요없이 걸을수있는 그 정신력, 견인력은 언제한번도 위대한 수령님과 자기 개인을 때놓고 생각해본적없는 참다운 혁명가의 량심이라고 해야 할것이 다.

여기서 우리는 주인공과 같은 인테리들이 일단 자기 개인의 운명을 사회정치적생명체와 결부시켜 생각하는 신념이 확고하다면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운명공동체인 나라와 민족을 배반할수 없으며 그 량심의 거울을 절대로 흐리게 할수 없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러한 혁명적량심을 생활의 리치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인테리의 지성도는 참으로 높다.

작가는 소설에서 비록 불철저하지만 오랜 인테

리들이 지닌 애국애족의 량심을 우롱하지 않았으며 그것이 장군님의 위대한 사상과 덕망에 의하여 견결하고 혁명적인것으로 승화될 때 얼마나 커다란 견인력을 발휘하는가를 형상적으로 확증하고있다.

그것은 박태식과 함께 문경환의 형상에서도 찾아보게 된다. 완고한 민족주의자로서 공산주의를 이단시하던 그가 놈들에게 체포되어 사형장에 끌려나가면서 장군님께 올린 글월은 그 뚜렷한 실례로 된다.

유서인 편지에는 장군님의 응지를 받들어 여생을 바치려고 결심하였지만 그 뜻을 실현하지 못하고 세상을 하직하는 절통한 마음에 이어 우리 민족을 위해 장군님께 만수축원의 인사를 올리는 문경환의 충성심과 장군님의 뜻을 지닌 인간만이 몇몇이 맞이할수 있는 영생의 삶에 대한 높은 정신세계가 반영되어있다.

문경환이 이렇게 새로운 인생행로를 개척할수 있는 직접적동기는 주인공 박태식의 영향에 의해 마련된다.

부르조아철학자 조경철은 실용주의의 《박식가》이다. 그러나 그의 이 지식은 부르조아지들의 계급적리해관계에 맞으며 남조선을 강점하고 우리 인민에게 다시금 노예의 멍에를 뒤집어씌우려는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사상적도구로 리용되였다.

반공교육의 희생물로 된 조경철의 모습은 현실과 리론의 모순속에서 불우하고 기형적으로 나타난다.

참으로 그의 지식은 반동화되었고 이러한 그의 지성세계는 혐오만을 지아낸다. 정의와 량심을 잃지 않은 겨레의 참된 아들이 되고싶다는 그의 몸부림은 얼마나 가소로운가.

그러나 그가 현실을 직접 체험하면서 자기 량심과 지향이 한갓 물거품임을 인정하며 한걸음, 한걸음 생활의 진리로 접근해갈 때 독자들은 그의 운명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소설은 주의주장이 다른 문경환로인과 조경철이와 같은 사람들이 모두 한뼘으로, 장군님을 따르는 그길에서 뜻을 같이할수 있는것은 바로 그길이 참다운 인간의 량심이 가리키는 길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장편소설 《량심과 운명》은 이처럼 각이한 인간들의 운명은 결국 량심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생활의 진리를 통하여 인테리들의 지성세계를 규정하는 사상정신적원천, 혁명적량심 문제를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그런가 하면 장편소설 《후대의 길》은 제일동포화가들의 생활에서 종자를 찾고 2세대들이 찾은 심각한 생활의 교훈을 통하여 동포들의 운명문제를 사회주의조국과 밀접히 결합시켜 보여주고있는 의의있는 작품이다.

소설은 일본과 빠리, 남조선 등 자본주의사회를 생활의 무대로 하고 정치사상생활로부터 문화, 도덕생활에 이르기까지 형상적인 대조를 주면서 같은 화가인 주인공 류설준과 고평수의 운명의 대비, 제일동포들의 1세와 2세의 대비, 넓이 깃든 미술작품과 넓이 빠진 미술작품의 대비, 대조들을 효과적으로 형상에 안반침하고있다.

소설은 제일동포들의 생활을 취급하고있지만 독자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민족적공지와 자부심, 우리 인민의 운명의 보금자리인 사회주의조국을 옹호하고 굳건히 지켜나가려는 강철의 의지를 심어준다.

그것은 작품의 주인공인 류설준을 비롯한 인물들의 형상에서 주체조선의 넓이 주는 거대한 영향력과 감화력과 관련된다.

인테리의 형상에서 량심과 넓에 관한 문제는 비단 장편소설과 같은 큰 형식의 작품이나 심각한 사회정치적사변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들에서만 제기될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아담하고 단편적인 작품에서도, 또 간단한 하나의 사건이나 생활의 어느 한 단면을 취급하는 작품에서도 의의있게 제기하고 풀어나갈수 있다.

중편소설 《생활의 언덕》은 가정부인 여성기사들의 운명문제를 중심에 놓고 그들의 남편들, 공장 설계일꾼들, 인테리기술자들 모두의 문제로 일반화해나가고있다.

이 작품에서도 중요하게는 대학공부를 하고 어엿한 기사로 자라난 인테리들이 기술자로서의 량심과 본분을 지켜나가는데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다양한 각도에서 설정하고 인간관계를 깊이 파고들어 형상화하고있다.

인테리녀성들의 지성세계는 가정을 이룬다음 처녀시절에 세웠던 지향과 목표를 저버린 저속한 것으로 굴러떨어져서는 안된다. 그러자면 사회와 인민 앞에서 자기의 량심에 부끄럽지 않게 일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걸린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며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가정적인것도, 사회적인것도 있고 자신의 리기적인것도 있고 외부적인 자극도 있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문화혁명의 목표로 내세우고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인테리부대가 계속 늘어나고있다.

이러한 현실은 인테리 대부대를 가지고있다고 자랑만 할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매개 성원들이

자기의 역할을 높여 대부대의 거대한 힘을 시위할것을 요구한다.

여기서 문제로 되는것의 하나가 녀성인테리의 문제이다. 녀성인테리들의 형상과 지성세계 묘사는 이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창작에서 더 많은 문제점을 시사하여준다고 생각한다.

단편소설 《생명》은 다른 각도에서 심사숙고하여 볼수 있는 작품의 하나이다.

소설은 나라와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대학입학생 문제를 놓고 당적원칙을 생명으로 하는 당적량심문제를 제기하고있다.

생활에서 흔히 보게 되는 수많은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고 외면하지 못하는 측면의 하나는 생명의 은인과의 관계이다.

정치적생명도 육체적생명도 여기서는 레외로 되지 않는다.

소설은 주인공 학장에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해준 복부의과 과장의 아들을 입학시키기 위하여 합격자명단에 들어가있는 평범한 유원지 관리원의 아들을 불합격시켜야 하는가 하는 극적과제를 안겨주었다.

인정사정이 비원칙적으로 사업에 연장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 요구를 지켜내기란 그리 쉽지 않다. 단편소설 《생명》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데서 잘된 점은 대학 학장과 외과 과장을 다 지성인답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인물들로 형상함으로써 그들관계가 교상하고 원칙적으로 안겨오게 하였으며 작품의 종자를 더욱 생활력있게 밝힐수 있게 한것이다.

이처럼 인테리들의 지성세계를 형상하는데서 그들이 지닌 당적량심, 혁명적량심과 넓에 대한 문제를 옳게 제기하고 해명하는것은 지성적인것을 정신도덕적품모와의 유기적련관속에서 깊이있게 형상화하기 위한 문제점과 묘술을 찾는데서 매우 의의있다고 볼수 있다.

다음으로 인테리의 지성세계를 형상화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깊은 체험세계를 성격론리에 맞게 잘 그리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지적하시였다.

**《사회와 혁명에 대한 인식은 구체적인 생활체험과정에서 이루어진다. 문학에서 사람들의 사상 의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할때에는 그것이 추상적인 개념으로 설명되기 쉽다.》**

인테리들의 지성도는 사회와 혁명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에 기초하며 사회와 혁명에 관한 과학적인 인식은 구체적인 생활체험과정에 이루어진



다.

사회와 혁명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인 체험과정을 통하여 깊이있게 그리는데는 인물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파고들어 생활을 감명깊게 보여주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며 각이한 계급과 계층의 성격적특성을 부각하며 사상의식의 형성발전과정을 성격론리에 맞게 그리기 위한 중요한 원칙적문제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사람마다 혁명의식이 싹트는 동기가 다르고 세계관을 세워나가는 과정도 같지 않다. 세계관이 형성되는 구체적인 동기는 사람들의 출신성분, 주위환경, 생활처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주어지며 투사로 자라나는 과정도 노동자, 농민, 인테리의 경우가 모두 제각각인것이다. 모든 사람이 한본새로 혁명화되어나가는 경우란 없다. 어떤 사람은 빨리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풍파를 겪으면서 더디게 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전공분야의 과학기술지식에 정통하고 활용하기 위한 진지한 탐구적태도와 과학적주견, 이것은 인테리들의 몸에 배인 생활관습이며 일반화된 성격적특징의 하나라고 볼수 있다.

인테리는 생활환경과 직업상특성으로부터 자기와 관련된 주위사물현상에 대하여 보고 듣고 느끼고 받아들이는데서 매우 민감하며 사색이 깊으면서도 그것을 표현하는데서는 자못 신중하다.

특히 지난 시기 계급과 계층별 특성을 규정지을때 인테리를 사회간층으로, 어느 계급에게나 복무할수 있는 이중성과 동요성을 가지며 사람과의 관계나 사업태도에서 조심스럽고 소심하며 리해타산이 밝은것으로 말했다.

그러나 인테리들의 성격적특징이나 지성도는 어떤 사회제도하에서 어떤 사상의 영향을 받으며 어떤 령도를 받는가 하는데 따라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인테리들의 이중성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우리나라에서는 시대력사를 객관적으로 관망하며 자기운명에 보신의 연막을 치던 인테리들의 생활태도가 낡은것으로 된지가 이미 오래다.

우리 인테리들은 정신노동으로 사회적부를 창조하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실현에 이바지하는 혁명의 주체의 당당한 성원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를 받는 우리 인테리

들의 사색과 활동은 오로지 당과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해나가며 인민대중에게 헌신적으로 복무하기 위한데로 지향되고있다.

따라서 우리 인테리들의 강렬한 체험은 주체의

인생관, 집단주의적인생관을 지니기 위한 내면심리적체험을 기본핵으로 한다.

사회현상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인간들의 운명에 대한 인테리들의 사색과 탐구, 체험과정은 개성적이다. 사람에 따라 체험의 깊이와 폭, 그로부터 야기되는 사고와 실천의 적극성과 지속정도 등은 각이한것이다.

그런것만큼 인테리들의 지성세계를 그리는데서는 그들의 체험과정을 성격론리에 맞게 그려야 하며 복잡한 인물일수록 생활에 우여곡절을 주어 체험을 부단히 축적시켜야 한다.

장편소설 《후대의 길》은 작품의 전반내용이 주인공 류설준의 깊은 체험세계로 일관되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독자들은 소설의 첫시작에서부터 류설준의 운명에 심한 우여곡절이 있으리라는것을 예감한다. 해외동포 2세인 류설준이 이국땅에서 조선민족의 넋을 잃은채 화가로서의 명성을 떨침 꿈을 꾸고 있기때문이다.

류설준에게는 화가가 지녀야 할 모든것이 구비되어있는것 같다. 재능도 있고 열정도 있으며 자존심도 강하다. 하지만 화가의 제일 큰 밑천이 없었다. 돈이나 물건으로도 살수 없는 조선사람의 넋을 가지고있지 못했다.

소설은 먼길을 에돌아 이 밑천을 마련하게 되는 주인공의 체험세계를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그의 지성면을 다양한 각도에서 드러내고있다.

소설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성장한 주인공들의 사상정신적바탕과 성격형성의 특징에 응당한 주목을 돌리면서 남조선과 유럽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환상, 그것이 여지없이 파탄되는 과정을 논리적 타당성을 가지고 형상화하였다.

친구인 고명수가 서울 미술대학 초빙교사로 가는데 대한 일종의 부러움과 야릇하게 생겨나는 자존심, 개인미술전의 실패, 유럽화에 대한 환상으로부터 오는 빠리에 대한 현혹 등으로 마음의 안정을 잃는 류설준이다. 그토록 동경하던 빠리에 가서 그 사회와 인간들, 미술에 대해 환멸을 느끼며 빈민에 잠기던 그가 그곳에서 열리는 주체조선의 미술전람회를 보고 드디어 미술의 새세계, 조선의 색깔을 찾기까지에는 참으로 복잡다단한 체험과정이 동반된다. 이 과정은 화가 《야나기 셋순》이 사라지고 화가 《류설준》이 새로 태어나는 과정이기도 하다.

소설은 류설준이 일본과 빠리에서 직접 겪는 체험세계를 남조선에 간 고명수의 비극적운명, 아버지와 매부의 영향, 사회주의조국의 보살핌속에 새롭게 태어난 그의 가정의 약동하는 숨결 등

과 밀접히 결합시켜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그리고 있다. 그리하여 새로운 예술의 길을 찾는 과정에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성격과 감정변화들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높이에 올라선 주인공의 사상정신세계, 지성세계의 모습을 예술적으로 훌륭히 보여주고 있다.

장편소설 《량심과 운명》에서 조경철과 그의 누이동생 혜순이의 심리적 굴곡을 성격론리에 맞게 그리고 있는 것도 좋은 실례의 하나로 된다고 본다. 감수력이 빠르면서도 의지가 박약한 혜순이의 생활로정에도 심한 곡절이 있지만 조경철이의 경우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파란곡절이 놓여 있다. 소설은 조경철의 사회계급적 바탕, 교육환경과 주위의 영향, 인간적인 측면 등 성격특징을 밝힐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묘사하면서 부르조아반동철학으로 굳어진 그의 내면세계를 해부학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하여 무서운 반동철학의 심연속에서 솟아오르는 그와 체험세계를 자기만의 량심과 지조를 지키려는 고집, 자기의 실용주의 《신념》과 현실간의 모순에 의한 정신적 방황, 용납할 수 없다고 한 공산주의 사상의 진리성, 정당성을 인정해야만 하는 수치와 패배, 자기 자신에 대한 극도의 환멸과 모대감을 여러 생활계기들에서 제시하고 있다. 조경철과 같은 인물은 인생전환의 방향타를 쉽게 돌릴 수 없다.

소설은 조경철의 이른바 《지성》과 《리성》을 성격론리에 따라 복잡하고 다면적인 체험세계와 결부시켜 정당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물의 사상정신세계를 깊은 체험속에서 그리되 그것도 지성세계가 각이한 인테리들의 성격발전론리를 따르는 것은 인테리형상을 다양하게 풍부하게 깊이있게 보여주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되고 있다.

인테리의 지성세계를 그리는데서 중요한 측면의 하나는 묘사수준을 높이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묘사는 소설의 흐름새를 순탄하게 하며 독자들이 소설을 지루하게 보지 않고 흥미있게 볼 수 있게 하며 일정한 정서속에 휩싸여 눈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읽으면서 충분히 사색하고 여운을 남기게 한다.

특히 소설에서 인테리의 지성세계에 대한 묘사는 작가의 높은 지성도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지성세계를 분석적으로 그린다고 하면서 지루하게 라렬하거나 과학적인 그 어떤 문제에 대한 따

분한 론전을 벌려놓는 것은 묘사수준이 낮은데 적지 않은 원인이 있다.

장편소설 《량심과 운명》이나 《후대의 길》은 일정한 묘사수준을 보장하고 있는 작품들이다.

좀더 욕심을 낸다면 인물들의 지성세계를 격에 맞게 더 깊이 파고들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인간관계가 심화되고 생활, 사건이 전개됨에 따라

인물들의 체험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공간도 아직 있다고 본다.

그리고 뇌리에 오래오래 새겨지는 인상 깊은 묘사가 부족하며 분석적인 묘사가 생활과 밀착되지 못한 측면도 일부 나타난다.

우리 작가들은 다양한 묘사수법을 활용하면서 작품의 특성에 맞게 묘사를 간결하고 재치있게 하여야 한다.

묘사에서 틀에 박힌 인물에 대한 표상이나 심리세계를 보여줄 것이 아니라 개성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인간의 지성세계를 독자들이 공감하게 그려야 한다.

묘사수법에서 작가마다 체나름의 특징이 있겠지만 문제는 그 어떤 개성이든 독자들의 다양한 심리와 미감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철학적인 분석이 있어야 하고 구체적이며 생동한 묘사도 있어야 하며 대조되는 운명선을 파고 들어가는 수법도 있어야 하고 작가의 강한 주장도 필요하다.

우리 독자들의 수준은 대단히 높다. 작가들은 이 높은 미학적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새로운 인간문제를 찾고 묘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야 생활의 다양한 주인공들 특히 인테리형상에서 새롭게 개척해나갈 중요한 문제들을 옹계 포착하고 높은 수준에서 형상화할 수 있으며 작품의 지성도를 높일 수 있다.

인테리들을 혁명의 일시적인 동반자가 아니라 당의 영원한 동행자로 믿어주고 이끌어주는 우리 당의 위대한 사상을 예술적으로 힘있게 확증하기 위한 사업은 오늘 우리 작가들앞에 나선 영예로운 과업의 하나이다.

우리 작가들은 우리 당의 시종일관한 인테리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형상화함으로써 우리 당 건설과 활동에서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서의 인테리들의 형상을 빛나게 창조하여야 할 것이다.

## 푸른언제

리석

## 인사를 드리노라

내 미처 몰랐구나  
타일공동무들아  
그대들 나라의 룡성번영 위해  
이렇듯 땀방울 바쳐갈줄을

내 가족들과 모여앉아  
즐거운 한때를 보낼 때  
명절날 아이들 손잡고  
아름다운 공원과  
친지들 집으로 나들이 갈 때에도  
쫓아오르는 언제에  
묵묵히 구슬땀 묻어가는줄을

용서해다오 동무들아  
내 온수난방집서 텔레비존을 보며  
행복한 저녁 한때를 보낼제  
그리고 낡은 형광등 불빛아래에서  
과학의 푸른 꿈 커갈 때에도  
그대들은 눈보라와 찬물속에서  
휘틀을 떠받들고 비내리는 밤 지새였으리

용서해다오  
만짐심고 행복을 싣고  
기운차게 달리는 저 전기기관차의 정찬 기적소리  
밤하늘을 용접의 꽃보라로  
아름답게 장식한 건설장의 새벽도  
황홀경을 펼친 화려한 무대도  
그대들의 수고로부터 시작된것임을  
잠시나마 잊은 나를

한생을 사나운 강물과 싸우며  
조국의 크고작은 모든 강들을 막아  
인민의 기쁨을 가꾸어가는  
그대들은 정녕 행복의 창조자들이거니

늦게나마 반아다오  
타일공동무들아 나의 인사를  
땀흘리며 기초타입에 진동기소리 높여가는  
그대들에게 바치는 나의 인사를

반아다오 반아다오  
그대들이 흘리는 땀방울에  
그대들의 높뛰는 심장에  
그대들이 다그치는 억센 걸음에  
바쳐가는 나의 인사를

굳어지는 물탈속에  
높아가는 언제속에  
그대들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로 뭉어져  
만년대계의 새 언제가 높이 솟거니

그래서 내 바치노라  
타일공동무들아  
그대들의 가슴에 장수힘이 솟으라고  
그대들이 하는 일에 불꽃을 튕기라고  
내 드리노라 다시 또다시  
감사의 인사를 축하의 인사를

## 뜨거운 비

찌물쿠던 날씨  
순간에 가시고  
하늘에서 쏟아져내리는  
소낙비... 창대같은 소낙비

고요히 잠자며 흐르던 강  
삼시에 언제도 기증기도 삼킬듯  
무섭게 격랑을 일으키며

기슭에 밀려와 와와 부딪쳐라

내려쏟아지는 비속에서  
어깨성을 쌓고 물속에 서있는 가슴들  
비물인지 땀인지 분간할수 없어라  
머리우에 얼굴에 온몸에 흘러내리는것

창살같은 비 내리려면 내리라지

불어나는 강물 기승을 부릴테면 부리라지  
혁명가요 높이 부르는 우리 가슴 불타니

아, 내리는 비도 오히려 뜨겁기만 하구나

## 청춘! 청춘!

천길벼랑가에 천막을 치고  
계곡의 강물과  
첫 투쟁을 벌리던 때는 언제?

진할줄 모르는 청춘의 성미  
그대로 담고담아서던가  
뜨겁게 달아오른 가슴들을  
허리치는 강물속에  
시원히 적셔보며  
사나운 물결을 담벽처럼 막아나선 때는 언제?

불타는 청춘의 열정  
가슴속깊이에 그저 묻어만 둘수 없기에  
피약별이 내려찍는 삼복더위에도  
그늘아래 천막은 언제나 비여있었고  
낮에도 밤에도 이른새벽에도  
웅-웅- 진동기소리만 높아갔다

하늘높이 솟구치는 한치한치  
모래와 자갈, 세멘트로만 쌓아진다더나  
어머니당을 받드는

청춘의 마음도 함께 쌓아가거니

끓는 피 두었다 무엇하랴  
높뛰는 심장 아꼈다 무엇하랴  
찢크레잉 무얼해  
기증기는 왜 꾸물거려

청춘시절에 흘리는 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고  
값비싼 시절에 창조한 위훈은  
조국이 영원히 기억하거니  
그래서 청춘은 위훈  
위훈은 청춘

오, 청춘! 청춘!  
보람찬 그 시절 아끼라  
청춘의 땀스민 만년대계의 창조물이  
조국땅우에 영원한 기념비로 솟아오를 때  
청춘, 청춘  
너는 참답게 빛나는것이여라!

어버이수령님께서 불러주신 여기에  
어제는 이름난 전방척후대가 오고  
오늘은 지도자동지께서 보내주신  
강력한 기계화군단이 온다고  
이른아침부터 설레여라

경제선동대는 나팔과 북을 요란히도 울리고  
처녀들은 꽃다발 안겨주며  
웃으며 떠들며 인사말 즐겁게 주고받는 때  
누군가 달려나오며 부르는 소리  
-이게 강계가 아닌가?!  
-여 운봉!

모두 보면 어떠랴

아이들처럼 서로 불안고  
잡은손 놓지 못하며 하는 말  
-이젠 강계도 늙었구려  
-운봉은 할아버지가 되었구려  
이런 때는 이런 말 어색하지 않구나

동무들아  
우리 탓하지 말자  
아버지들이 아이들처럼 어울리지 않게  
애명을 부른다고  
그리고 평범한 산골 고장이를 부른다고  
더더욱 나무람 말자

아마도 저들의 청춘시절은

## 상봉

랑림산줄기 기슭에서부터 시작되었으리  
저들의 청춘의 우정은  
아마도 아득령 기슭에서  
더더욱 무르익었으리

이제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얼마나 많아지랴  
끝없이 뻗어간 강줄기마다에  
솟아오르는 발전소언제와 함께

서로 다정하게 부르는 이름도  
별처럼 무수히 늘어나려니

아, 청춘시절에 새겨가는 보람찬 자욱들은  
창조한 빛나는 위훈속에  
별처럼 빛나며 불리워지고있구나  
강제, 운봉, 장자강  
조국에 영원한 청춘을 주는  
무수한 발전소 그 이름으로

## 그 마음속에 세워본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사뭇치며 령롱한 무지개 일으킬  
언제의 수문도  
지금은 들리지 않는다  
세차게 돌아가는 발전기소리도

그저 실새없이 팔을 젓는 기중기들  
꼬리를 물고 달리는 찢크레잉들  
그칠새없이 울리는 진동기소리뿐

허나 타입공 그대들은  
고요한 바다를 흐뭇이 바라보며  
푸른 언제우에서  
달아오른 가슴 시원히 식혀본다  
뿌려지는 비발에 가슴 적시여본다

그대들은 즐겨 걸어본다  
가로등불빛이 명멸하는  
수도의 밤거리를  
그대들은 속삭여본다

화려한 극장과 영화관좌석에 앉아서  
그리고 은은한 달빛아래서  
사랑하는 처녀와

...

아, 이런 마음 없이야  
그대들이 어떻게  
비바람에 젖어서 살라  
이런 맘 없이야  
그대들이 어떻게  
흘리는 땀 웃으며 언제에 묻으랴

그대들이 쌓고쌓아야 할 언제는  
아직은 아득한 하늘  
그대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멀고멀어  
허나 그대들의 마음은  
벌써 푸른 언제우에 서있거니  
아, 그대들의 불타는 마음속에  
자신을 세워보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어

## 푸른 언제 되고싶어라

내 되고싶어라 푸른 언제가  
수수천년 흐르는 남강의 밑에서  
잠자던 천년바위를 디디고  
사뭇치는 강물을  
똑-멈춰세우고싶구나

되고싶어라 푸른 언제가  
광란하는 강물을 한품에 안아 잠재우고  
살랑거리는 미풍에  
고기떼들이 꼬리치게  
온갖 고운 물새들이 찾아들게

내 되고싶어라 푸른 언제가

인적없던 저 강기슭에  
합각지봉의 휴양객들을 세우게  
풀뜯던 사슴, 노루들이  
단물을 마시러 오게

내 되고싶어라 푸른 언제가  
어머니당을 받들어  
거세찬 번개를 일으키며  
빛과 열이 되어  
온 조국땅에 날아가고싶구나  
인민의 기쁨이 되어  
인민의 행복한 웃음이 되어

-남강발전소 건설장에서-

## 젊음에 대한 생각

류정옥

사람의 한생에서 젊은시절은 참으로 귀중하다. 영웅적인 위훈과 청춘의 랑만, 심장을 불태우는 강렬한 사랑도 그 시절에 있고 충천하는 활력과 아름다운 리상도 젊음에서 시작되기때문이다.

젊음이란 이처럼 보배로운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한정된 시기여서 세월과 함께 흘러가버리고 로년기를 맞게 된다. 사람이 로년기에 들면 스러지는 꽃처럼 생기와 향기도 엷어지고 열정과 기백의 도수도 약해지는것을 막기 어렵다.

헌데 우리 시대는 그러한 리치가 현실과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것을 재삼 느끼게 하군한다.

며칠전 나는 우리 생활에서 기본기등을 이루는 3대요소의 하나인 천을 짜는 방직공장에 취재를 나갔었다. 10여년만에 다시 찾은곳이다.

직포현장은 직기소리로 가득찼었다. 직기소리가 가득찼다는것은 천이 가득찼다는 소리와 같다. 그것을 눈앞에 보여주듯이 천통구리를 산더미같이 실은 운반차들이 기대사이 복도길을 빠져나와 가공공정으로 넘어가고있었다. 그 천에 오리오리 수놓아진 직포공들의 충성과 지성을 말해주듯이 직포공들의 맑은 얼굴들이 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무엇보다 먼저 방직공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인민들의 입는 문제를 풀자면 방직공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 공장엔 나의 벗들인 오랜 직포공들이 많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교체가 일어나 일부 직포공들이 직포기에서 물러나 보조부서들로 옮기긴 하였으나 아직까지 처녀시절의 그 열정, 그 기백으로 직포기결을 떠나지 않는 직포공들도 있는것이다.

이번 취재길에서 만났던 리옥희동무가 바로 그러했다. 그는 내가 천을 짤 때 나의 선배였었다.

거의 30여년나마 천을 짜는 그의 일생은 직포기와 함께 흘러간것이다. 이제는 선고개를 훨씬 넘겼으나 젊은시절처럼 지금도 다기대를 보고있다는것이 놀라웠다. 탄력이 빠진 얼굴에 주름살이 늘고 명민하게 반짝이던 눈동자가 좀 흐려진

듯싶었으나 나를 보고 반가와하는 그 미소는 웃음 많던 처녀시절처럼 명쾌하게 안겨왔다.

나는 천을 짜는 그의 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결눈 한번 팔지 않고 끊어진 실을 찾아 잇는 번개같은 손놀림, 20대 처녀시절로 되돌아간것 같았다. 아니 오히려 그때보다 모든 동작이 원숙해지고 세련미가 있으며 침착하고 자신만만했다. 나는 흘린듯이 바라보며 생각하였다. 단순히 오랜기간 숙련에서 오는 동작일가... 아니면 지속되는 로동의 관성적인 툴동이겠는가... 변함없는 저 힘, 저 젊음이 어디서 오는것인가? 천성이 명랑한 사람은 늙지도 않는것일가. 퇴근 시간을 기다려 나는 그와 함께 구내길에 나섰다.

《옥희동문 전혀 늙지 않았어요.》

《늙질 않다니?! 손자가 둘씩 되는데.》

《아니예요. 몸도 마음도 그렇지만 그 일숨씨가 더욱 그래요.》

《그게 사실인가?》

그는 진가를 타진하듯 나를 쳐다보았다.

《청춘의 본보기예요.》

나는 기뻐어린 어조로 대답해주었다.

《그렇다면 다행이구만.》

《?!...》

늙지 않았다면 누구나 좋아하지만 이처럼 다행이라고까지 하며 만족해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뭔가 사연이 있는것 같아 누가 늙었다고 비난이라도 하는가고 물었다.

《그런건, 아니지, 할일이 많은데 해가 저물어가고있지 않나.》

롱조비슷했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30여년동안 그가 짠 천을 퍼놓으면 3천리강토를 다 덮고도 남으련만 여전히 직기앞을 떠나지 않으며 만족을 모르는것 같았다. 자신에 대한 저요구성이 젊음의 활력을 불러오는것은 아닐가.

《욕심이 너무 많지 않아요?》

나는 롱조를 섞어 물었다.

《욕심 ?! ...》

그는 머리를 기웃하며 빙긋이 미소를 지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어. 그만했으면 이젠 힘도 들겠는데 기대를 놓으라고 말이야.》

우리의 걸음은 해묵은 나무들이 우거진 구내  
공원옆을 지나고있었다.

《나도 이 몇해째는 이해나 마치고 말자 하고  
생각하곤하는데 다시 새해에 접어들면 또 생각이  
달라지곤한다니까.》

공원을 배경으로 안치된 아파트 벽체만한 교시  
판이 눈앞에 다가왔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수십차  
레나 공장을 찾으시여 주신 강령적인 현지교시의  
요지들이 수록되었다.

그는 현지교시판을 가리키며 이야기를 계속했  
다.

…공장구내와 현장, 합숙과 식당 그 어디라 없  
이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와 사랑의 자욱들이 수십  
차례 덧찍혀있다. 그 자욱들은 가는데마다 옥희  
의 가슴을 울려주고있다.

직포순회길에 들어서면 몇살인가, 몇대를 보는  
가 물으시며 어서 기능을 키워 다기대공이 되라  
고 단발머리 어깨를 다독여주시던 은정어린 영상  
이 언제나 눈앞에 떠오르고, 식당에 가면 고기와  
기름, 남새는 풍족한가, 음식이 구미에 맞는가 손  
수맛을 보신 식탁과 마주앉는다. 저녁이면 어버  
이수령님께서 이불이 얇지 않는가고 손수 만져보  
시던 그 영상을 그리며 꽃이불을 덮고 행복의 꿈  
속에 잠겨들곤하였다.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때는 미처  
다알수 없었던 어버이 그 사랑의 무게를 몇배로  
크게 느끼게 된다.

해마다 신년사를 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영상  
을 텔레비죤화면에서 보을 때마다 한평생 인민을  
위해 쉬지 못하신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척해진다.  
신년사의 구절구절에서 인민들의 옷감문제가 언  
급될 때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전후의 첫날부터  
오늘까지 직포순회길을 계속 지켜보고 계신다고  
만 생각된다. 보다 가깝게는 마치 자기의 직포순  
회길에 함께 서계신것만 같아 직포기를 훌쩍 떠  
날수가 없었다...

《그래서 해마다 결심이 새로 서고, 그러면 또  
새힘이 배가로 솟곤하지.》

옥희동무의 진정이 내 가슴속으로 뜨겁게 흘러  
들었다. 젊음이란 단순히 생리적조건의 산물이  
아님을 재삼 느끼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에 끝없이 충성하려는  
자각된 신념과 의리와 량심, 그것이 바로 그토록  
젊음을 주고있는것이라.

신념과 량심, 도덕과 의리로 충만된 이런 《젊  
은이》들이 어제도 오늘도 방직초소를 지키고있으  
니 모든 사람들에게 비단옷을 입히시려는 어버이  
수령님의 뜻은 더욱 활짝 꽃필것이다.

## 가사

### 남해의 파도소리 외 1편

송찬웅

동해의 푸른 기슭 말없이 거닐 때면  
남해의 파도소리 가슴에 젖어드네  
다도해 기슭에 수령님 모시고픈  
간절한 그 념원 갈수록 불타네 불타오르네

그리워 가슴타는 남녘을 안으시고  
수령님 잠못드신 그밤은 얼마던가  
기다려 반백년 그 념원 굶이치여  
남해의 물결도 파도쳐 설레네 설레인다네

다도해 물결소리 조용히 들으시면  
한평생 쌓인 피로 수령님 푸시리라  
강토에 넘치는 그 념원 이루자고  
동해도 남해도 소리쳐 부르네 서로 부르네

아, 남해의 파도소리  
해와 별 그리워 끝없이 설레네 이 가슴 흔드네

### 병사여 말하라

달빛이 어린 창가에 고요는 흘러도  
군복을 벗은 로병사 잠들지 못한다  
포화를 함께 헤쳐온 병사여 말하라  
우리가 원하던 평화 영원히 왔는가

소나무 타던 언덕에 푸른 숲 설레도  
피흘려 싸운 나날을 그 어이 잊으랴

꿈많은 청춘 바쳐온 병사여 말하라  
우리는 무엇을 바래 불속을 갇던가

세월은 흘러 강산에 행복은 꽃피도  
아직은 영원한 평화 깃들지 않았다  
마치와 총을 높이 든 로병은 말한다  
이 땅에 미제 있는 한 병사로 살리라

# 사랑의 권리

강선규  
그림 김원래

(전호에서 계속)

## 2. 어디서 오는 균열인가?

어느새 강좌실의 넓은 창유리에 뿌려지는 햇빛이 황금빛으로 변하더니 차츰 감색을 띠기 시작하였다. 퇴근종이 울린지 오래다.

밖을 내다보니 로교수와 박사들이 탄 승용차들이 정문으로 빠져나가고 교직원들이 아름다운 노을속에 잠겨 활기있게 퇴근길에 오르고있었다.

시집간지 3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어 료양소만 하여도 여섯군데나 다녀왔다는 신문편집부의 녀기자가 뚱뚱한 몸을 흔들면서 금방 시집간 수학부의 몸매날씬한 녀선생과 큰소리로 웃음을 날리며 걸어간다. 그뒤로 사이다병 밀바닥처럼 두터운 근시안경을 귀에 건 출판사의 최지도원이 한 중탕에 들어가서도 시원하게 보일만큼 이마가 흰칠하게 벗어진 물리학부 응용물리강좌장과 함께 터지도록 불어난 배낭을 맞들고 걸음을 옮기고있다.

(참, 오늘 물리학부의 어느 선생 아들이 인민군대에 입대한다고 했지. 아마 축하해주러 가는 모양이군.)

소문에 의하면 마음씨 무뎠던 저 응용물리강좌장의 소개로 만난 부부는 매우 화목하게 잘산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사실인지...

외국에 가서 연구사업을 하는동안 그는 그 나라 응용물리분야의 학자들이 혀를 내두를 만큼 훌륭한 논문을 써서 조선사람의 두뇌에 대한 세계적인 연구가 필요할것이라는 말까지 나돌게 했다고 한다. 그는 학생들속에서도 교원들속에서도 평판이 좋았다. 그것은 지식이 풍부하고 강의술이 높아서만이아니라 남의 일이라면 자다가도 뛰쳐일어나만큼 열정적적인데 있었다. 오죽하면 담임한 학생의 약전학습을 위해 자기네 집 색텔레비를 그대로 내다주었으랴.

교원의 직무상특성은 자기를 초월처럼 태워 남들에게 빛과 열을 주는 성품을 요구하는데 그러고보면 응용물리강좌장은 자질도 성품도 교원이 되기 위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인것 같다.

일부 경우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는 사심이 없고 원칙적이고 점잖은것 같지만 속을 파보면 놀랄만한 자기보신과 리기의 기질이 깊숙하게 박혀있다. 그런 사람들은 남이 아파하

면 이마를 찌프리고 함께 아파하는 시늉도 하고 고무적인말도 곧잘한다.

그러나 심장은 싸늘하다. 이런 사람의 심장은 자기 리익을 위해서만 뜨겁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리익을 위해 벌리는 그의 모든 활동이 남들이 모르게 조용히 아주 무난하게 진행되는다는데 있다. 자기를 위해 얼마나 세련된 사람인가.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이 제아무리 토론연단에서 옳은 말을 해도 모두 거짓과 위선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제발 성실하고 정직하고 량심적인 사람들의 땀과 열정이 이런 인간들의 치부를 위한 수단으로 람용되지 말기를 빌고싶다.

나들문 여닫기는 소리에 나는 혼자생각에서 깨어나 뒤로 돌아섰다.

어디를 다녀왔는지 연희선생이 손수건으로 땀배인 이마를 찍으며 나를 바라보고 서있었다.

《전 선생님이 내 부탁을 잊고 가신줄 알았어요.》

그의 회고 가름한 얼굴은 웃고있었으나 눈구석 깊은곳에서 내비치는 불안한 빛은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이 선생은 확실히 무슨 곡절이 있는 녀성이다. 보기 좋던 얼굴이 왜 저렇게 상했을까.)

《가다니요, 누구의 령 이라고...》

나는 부러 명랑한 소리로 대답하면서 주머니에서 아까 낮에 윤석이가 주고간 홍초를 빼어물었다. 그리고는 불 붙여 시원하게 연기를 내뿜으며 맨 끝자리인 내 책상에 가서 앉았다.

어지간히 긴 침묵이 흘렀다.

다소곳이 머리를 숙이고 의자에 앉아 색편리화를 신은 자기의 조그마한 발만 내려다보고 앉은 연희선생의 얼굴은 어찌보면 흐려보이기도 하고 밝아보이기도 하였다.

좀처럼 자기 마음을 내비치지 않으려 하고 학생들에게는 물론 자신에게조차도 지나치리만큼 요구성과 절제가 강한 이 녀선생은 대체로 《차거운 녀자》로 교직원들과 학생들속에서 통하고있었다.

그러나 우리 강좌, 우리 학부 선생들은 그가 속이 깊고 말없이 남의 사정을 깊이 헤아릴줄 아는 세련되고 품성이 고운 녀자라는것을 잘 알고 있었다.



아마도 해방직후부터 사회안전기관에서 일하며 평생을 량심적으로 정직하게 살아온 아버지의 영향이 바로 이 녀자를 걸은 차고 속은 숯불처럼 이글거리는 열정적인 사람으로 만든것이 아닐까 고 나는 늘 생각해왔다.

남 먼저 입을 열기 주저하는 연희선생의 말을 기다린다는것은 지루하고 답답한노릇이다. 그래서 내가 먼저 말을 건넸다.

《연희선생, 에둘지 말고 직방 물어봅시다. 난 아침에 선생이 나를 만나자고 할 때부터 우리사이 그 어떤 즐겁고 유쾌한 문제가 화제에 오르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습시다. 크게 도울 능력이 없어도 무슨 근심이 있는지 듣고싶습시다.

요즈음 왜 그렇게 얼굴이 상했습니까? 어디 몸이 아파서 그러는것 같지는 않는데...?》

천천히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는 연희선생의 두눈은 웃고있었다. 그러나 밝은 수은등불빛은 그의 눈구석을 알릴듯말듯 적시고있는 가느다란 눈물기를 숨기지 못하게 하였다.

이윽고 그의 입에서 가늘면서도 명백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하였다.

《강선생님은 언제봐도 늘 즐겁고 유쾌한 기분으로 사시는것 같은데...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선생님의 성미에 맞지 않을겁니다. 그러나 누구보다깊이 이해하고 조언을 주실것 같아서...》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스스로의 생각에 억이 막히는듯 아래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이였다.

한참동안 자신을 자제하던 그는 다시금 천천히 머리를 들었는데 두눈은 뽀얀 눈물에 잠겨있었다.

(울고있구나. 무슨 아픈 사연을 안고있기에 저럴까?)

어떤 녀성들은 자기들의 눈물앞에 가장 나약한것은 남자들이라고 말한다.

나는 그 말을 부정한다. 그것은 나약해서가 아니라 녀성들을 아끼고 위해주려는 심정이 녀자들보다 남자들이 더 뜨겁기때문에 생긴 말이다.

다만 그 뜨거움이 좋지 못한 녀자를 상대로 할때면 즐겁지 못하게 리용되고 기만당하기 쉬울뿐이다.

나는 연희선생이 그 어떤 기만을 목적으로 내앞에서 눈물을 보이는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지 않았다. 때문에 눈물의 사연이 무엇인지는 모르면서도 그를 위해주고 도와주고싶은 심정이 밀물

처럼 가슴에 그들먹이 차올랐다.

간혹 녀인들의 눈물을 대할 때마다 그것이 꼭 내 잘못에서 오는것만 같아 죄스러운 심리에 얽히군하는 나머지 지금도 연희선생을 면바로 쳐다볼수가 없었다.

나는 강좌실 한가운데 놓인 원탁우의 보온병에 그려진 왕눈의 금붕어에 눈길을 박고 혼자소리처럼 말하였다.

《내가 늘 명랑하고 유쾌하게 지내는것은 내 생활에 늘 명랑하고 유쾌한 일만 있기때문에 그런것은 아닙니다. 탄광막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처음 발을 디디는 사람들은 아무리 수량이 높고 담대한 사람도 얼굴빛을 흐리지요. 그러나 탄부들은 거기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사랑도 한답니다. 도시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남다른 긍지와 억센 힘, 생활에 대한 열렬한 애착이 이러저러한 집생각과 잔근심을 날려보내기때문이지요. 나는 그들에게서 좀 거칠기는 하나 그 무엇보다 귀중한 락천성을 배웠습시다. 생활을 리해하고 사랑하자면 고민보다도 밝은 눈이 있어야 하고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는 담이 필요하지요.

연희선생! 난 선생의 그 소침한 몸가짐과 눈물을 보기가 괴롭습시다.

나를 믿는다면 무슨 일인지 어서 이야기하십시오.》

《...》

침묵이 흘렀다.

열어놓은 창문으로 거리를 내닫는 전차며 승용차의 소음이 이따금 흘러들었다.

두팔을 책상우에 올려놓고 손톱여물을 썰던 연희선생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나에게 물었다.

《선생님, 부부간의 사랑과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녀자는 자기의 모든것을 무조건 희생하고 양보해야 하는가요?》

(?)

나의 눈은 저도 모르게 커지였다.

질문이 연희선생답지 않게 너무나도 리치에 맞지 않을뿐아니라 지나치게 컸기때문이었다.

그도 그것을 알고있는 모양 짧게 한숨을 내쉬더니 다시 이었다.

《막연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답을 듣고싶습시다.》

나는 빙그레 웃으며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하였다.

《희생과 양보가 좋은것이기는 하나 그것이 자신의 사회적가치와 존엄까지도 빼앗기는것으로 될 때에는 속물적인 굴종외에 다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굴종을 필요로 하는것이라면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화목도 아니지 않을까요? 많이 살지는 못했어도 나는 지금까지...》

얼핏 연희선생을 마주보던 나는 흠칫 놀라며 입을 다물어버리었다.

그렇지 않아도 희게 보이는 그의 얼굴이 백랍처럼 새하얗게 질리는가싶더니 파아랗게 된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두줄기의 눈물이 그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기때문이었다.

나는 느닷없이 가슴속에 심한 부담을 느끼며 스르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거의다 탄담배꽂초에 새로운 가치를 가져다대고 빨았다.

몇모금 연기를 들이킨 나는 뚜벅뚜벅 연희선생 앞으로 다가섰다.

《선생! 무슨 일이요? 숨박꼭질하듯 아리송한 질문만 하지 말고 터놓고 말해보오. 선생은 어때 보아도 자기의 내성적인 성격때문에 심리적인 부담을 남보다 몇곱절 더 안고사는 사람인데 그러다가는... 즐겁지 못한 일이 벌어질수 있소.》

연희선생은 얼른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입을술을 꼭 감쳐물더니 또다시 침묵을 지켰다.

북받쳐오르는 피로움을 이기느라 애쓰던 그는 너무나도 맑아서 검다기보다 투명해보이는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더니 한숨을 뿌리며 고개를 가르치었다.

《더는... 못견디겠어요. 가정이 아무리 귀중하다하여도 더는... 난... 시집을 나와버린지 벌써 두달이 되었어요.》

(?!)

나는 줄지에 심장이 얼어드는듯한 느낌에 온몸이 굳어져버렸다.

이 순간 나의 시야에 안겨오는 연희의 모습은 광풍속에 든 새처럼 애처로와보이기도 하고 모든 감정과 욕망을 다 잃어버린 메마르고 신경질적인 녀인으로 보이기도 하였다.

평시에 것처럼 리지적이고 세련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모으던 이녀성에게 어쩌면 이렇듯 상상밖의 온당치 못한 일이 생겨날수 있단 말인가?

시집을 나와버렸다니 그러면 남편과 헤어지기로 작정했다는 말이 아닌가?

두사람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직은 알수 없으나 그 누구보다 고급한 리해와 리성을 가지고 시대의 표본으로 살아야 할 이들이 어찌자고 자신들의 생활을 헤어나기 힘든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고있는것일까?

(아니, 그래서는 안된다!)

나는 도리질을 하였다.

이것은 어느모로 보나 좋지 못한 균렬이며 우리 시대에 창조되는 인간의 노래속에 절대로 섞여들수 없는 불협화음이다.

물론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함께 살던 부부가 갈라지지 않으면 안될 각박한 조건이 지어질 때가 있을수 있고 법에서도 전후사연을 다 따져보고 갈라지는것이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또 그 당사자들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것일 때에는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본다.

그러나 나는 이 혼치 않은 《거사》에 뛰어드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다 좋게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그 좋지 못한 사람들중의 하나로 되어가는 연희선생을 바라보노라니 가슴이 아랐고 느닷없는 노여움이 내굴처럼 피여오름을 어쩔수없었다.

(연희가 이런 녀성이었던가? 조용한 웃음, 소리없이 움직이는 세련된 행동뒤에 이런것이 숨어있다니 ?)

나는 새삼스럽게 연희선생의 사람됨됨을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며 허리뒤에 얹은 왼손을 짹 움켜잡았다기 풀어놓았다.

《연희선생! 어떻게 되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무슨 까닭인지 알고싶군요.》

《...》

그는 울음을 삼키듯 선이 또렷하고 작게 생긴 입술을 몇번 감빨더니 몹시도 힘들게 말하였다.

《그런 사람과 함께 살다가 속물로 되어버릴가 보아 무서워요. 그와 그집 사람들은 사회에 나가서 내는 빛같과 가정에서 내는 빛같이 다르답니다. 강선생님, 내가 아글타글 구해들인 수많은 전공서적들과 참고서적들이 절반나마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지금에 이르러 남편과 그의 부모들은 나더러 교원을 그만두고 호텔로 가라는거예요. 아,더 말하고싶지 않아요.》

(?!)

다시 한번 된충격을 받은 나는 두손으로 이마를 가리우고 앉아있는 연희선생을 얼없이 내려다보

았다.

(모를 소리다. 아무리 이지러지고 모자라는 인간들이라고 해도 어쩌면 그럴수 있을가. 남편도 대학을 졸업했고 시아버지도 무슨 부사장인가 한다고 했는데 ...)

다 타버린 담배불이 손가락을 따갑게 지지는바람에 흠칫 놀라 걸음을 땀 나는 재털이에 담배를 비벼끄고나서 의자에 무겁게 몸을 실었다.

형광등불빛이 진하게 흐르는 강좌실안에는 수은처럼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라 나는 책상모서리를 움켜잡고 미륵처럼 앉아있다가 또다시 부시력대며 담배를 꺼내 입에 물고 성냥을 그었다.

여느때는 것처럼 구수하던 담배맛이 소래처럼 쓰거웠고 연기를 들이길 때마다 허바닥이 송곳으로 찌르는것처럼 따끔거렸다.

사람이 기껏산다고 해도 백년을 넘기기 힘들다. 그러나 무한한 시간에 비해보면 한순간에 불과한 인간의 이 한생에는 참으로 시간의 길이로서는 재일수도 표현할수도 없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다양하며 심각한 사연들이 얹혀든다.

그런데 그 시연들속에는 금을 주고도 바꿀수 없는 고귀하고 성스러운것들이 있는가 하면 수치와 환멸을 자아내는 부끄럽고 혐오스러운것들도 있다.

그 사연의 고귀함과 수치스러움을 가르는 기준선은 사랑이다.

겉보기에는 거칠고 불미스러워도 지향된 내용이 조국과 인민에 대한, 참된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되고 그것을 위하여 생긴것이라면 그것은 무조건 아름다운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을 위해 겪는 그것이 설사 눈물과 슬픔, 죽음이라고 하더라도 고귀한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가슴속깊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추억도 해보는것이다.

인간이 체험과 경험, 투쟁을 통하여 얻어낸 이러한 기준선을 연희선생의 생활에 그어보면 지금 그의 생활에 엉켜든 사연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줄수 없는 쓰겁고 피로운것이며 고상하고 아름다운것과는 거리가 먼 수치스러운것이 아니겠는가.

어째서, 어디서부터 생기기 시작한 균열인가?

연희선생의 말을 들어보면 틀림없이 남편과 시

부모들에게 문제가 있는것 같았다.

함께 생활하면서 연희선생의 인간됨과 성품을 알고있는 나로서는 그 원인을 연희선생에게서 찾고싶은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속담에도 있는것처럼 천길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고 혹시 연희선생에게 내가 모르는 그 어떤 불손한 성품이 있어 남편과 시부모들의 노여움을 샤했을수도 있는것이다.

원인이 누구에게 있건 그것은 후에 론하고 우선은 결렬으로 나가는 연희선생의 그 걸음을 멈추어세우는것이 무엇보다 절박한 과제라고 나는 생각하였나.

《리해가 안됩니다. 학생들앞에서 가장 옳은것, 가장 량심적인것만을 가르치는 대학교원인 연희선생이 어떻게 그렇게 살수 있겠소? 만약 이 일이 끝내 즐겁지 못한것으로 종말을 짓게 되면 그 이유가 선생편에서 제아무리 뻔뻔하고 정당한것이라고 해도 어떻게 학생들앞에 얼굴을 들고 나설수있겠는가 말ियो. 그 정당함을 백사람, 천사람에게 다 설명해줄수야 없지 않습니까.》

《...》

《더 묻고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바로잡았으면 합니다. 길지 않은 한생에 큰 허물을 남기지 말기를 빌고 싶습니다.

대체로 부부가 서로 마음이 어긋나 극단으로 나가는 경우 사정을 따로따로 들어보면 두사람의 주장이 다 정당하게 생각되는 경우가 일쑤입니다. 연희선생! 자신을 리해하여주기만을 바라는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보다 중요한것은 함께 살며 일하는 사람들을 깊이있게 리해하고

그 정도에 맞게 행동하는것이 아닐가요. 남편을 좀더 깊이 리해하고 그에 맞게 선생의 행동을 결심해보았으면 합니다.》

연희는 폭 고개를 숙인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책상우에 떨어진 구슬같은 눈물방울이 어지간히 흥분되었던 나의 마음을 가라앉혀주면서 아프게 안겨왔다.

이윽고 연희의 짙 잠긴 목소리가 나의 귀전을 울렸다.

《선생님은 자기가 행복하니까 너무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역시 리해라는것도 체험밖에서 이루어질수 없는것이군요. 하지만 나는 오늘 큰 힘을 얻었습니다. 사회적가치와 존엄까지 양보하고 희

생하는것은 굴종이라고 하신 말씀을 정말 고맙게 들었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일어서는것이였다.

말문이 막혀버린 나는 마른침만 삼키며 멍하니 그를 바라보기만 하였다.

《가시지 않겠어요?》

쌀쌀한것 같으면서도 부드러운 물음이다.

그의 얼굴에는 뭔가 기대와 믿음을 상실당한 실망감이 가져다준 침착성으로 해서 퍼그나 랑정한 빛이 감돌았다.

《함께 갑시다.》

나는 그와 나란히 복도에 나서는 순간 문득 연희선생이 지금까지 자기 남편과 시아버지 그리고 시집의 그 어느 누구에 대하여서도 단 한마디의 불만도 표시한적이 없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하기에 나는 물론 다른 선생들 모두가 연희선생이 썩 행복하게 근심없이 살고있다고 믿어왔었다.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서 나는 소리는 집안에서 보다도 집밖에서 더 크게 울리는 법인데 그러고보면 연희선생은 사회앞에서 며느리로서의 립장을 너무 나도 잘 지켜오지 않았는가.

연희선생과 나는 가로동이 은은한 빛을 뿌리는 거리에 나섰다.

어느새 날이 어두웠는지 모르겠다.

사처에 설치된 각이한 모양의 네온장식등들이 다양한 무늬와 글자들을 수놓으며 밤거리를 화려하게 수놓고있었다.

어느 책에선가 낮에는 사람들로 하여 아름답고 밤에는 불빛으로 하여 아름다운것이 도시라고 쓴것을 읽은 기억이 났다. 그러나 그것은 피상적인 규정이다. 저앞에서 나란히 걷는 청춘남녀의 얼굴에 비친 웃음과 채잘대면서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걸음을 옮기는 저 어린것의 눈에 비친 천진스러움을 어떻게 불빛의 아름다움에 비하랴.

어느때 어디에서나 아름다움은 사람들에게서 뿜어나오기마련이다.

모두가 다정하게, 활기있게, 명랑하게 걷는데 연희선생과 나만은 침묵속에서 무거운 걸음을 옮기고있다.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매우 비정상적인 기분상태였다.

무슨 말인가 해야 하겠으나 입이 열려지지 않았다. 옆에서 걷고있는 연희선생을 살펴보니 미간에 주름이 패워있었다.

무척 피로운 모양이였다.

우리앞으로 떠들며 마주오던 여라문명의 청년들이 급작스레 조용해지며 우리들이 지나가도록 넓게 길을 띄워놓는다. 그들의 시선, 그들의 행동에서 부러움과 즐거움이 느껴진다.

그러나 우리 두사람은 이미 그들이 생각하는 감정세계에서 수업을 끝마친 졸업생들이나 다른 없는 사람들이였다.

청년들이 관심하고 부러워하는 그런것보다는 훨씬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를 안고 걷고있는것이다. 연희선생과 나는 서로 헤어질 때까지 종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피로운 침묵은 아픈 울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법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피로울 때면 어쩔수없이 침묵에 잠겨들며 마음속 부담을 스스로 더크게 만든다.

그런 부담을 겪고나면 왜서인지 자기가 남들보다 아는것도 리해하는것도 더 많아진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 아마도 그래서 침묵을 금값이라는말이 생겼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피로운 침묵이 싫다.

피로운 침묵은 될수록 과감한 행동과 실천으로 깨여 버리는것이 좋다고 주장하고싶다.

침묵이 금이라면 행동과 실천은 생명이다.

도대체 연희선생의 시집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떻게 하면 이 피로움을 풀수 있을까?

이튿날 출근한 연희선생의 얼굴에는 어딘가 푸른 빛이 감돌고있었다.

과연 연희선생과 남편사이에서 생긴 마음의 균렬은 어디서부터 오는것일까? 균렬치고는 너무도 가슴아프고 심각한것이였다. 나는 그 균렬이 이들을 수습할수 없는 불행의 나락속에 밀어넣지 않기를 빌고 또 빌었다. 그러면서도 연희선생에 대한 노여운 감정이 모닥불연기처럼 가슴 한구석에서 피여올랐다.

(일이 그지경이 됐을 때에야 말하다니... 좀 더 일찌기 알았더라면 어떤 대책이 쉴수있었겠는가!)

당생활총화때마다 모든 당원들은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생활하며 남들이 모르는 사소한 개인문제도 당조직에는 솔직히 다 말해야 한다고 토론들을 한다. 그 토론의 몇분의 몇이 실천에 옮겨지고있단말인가?

이것은 당조직과 개별적인 당원들사이에 생긴 보이지 않는 균렬이다.

사실상 이것은 개인생활에서 생긴 균렬보다 더 심각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이 균렬은 어디서부터 오는것인가! 나는 스스로 던진 이 물음앞에 무겁게 고개를 수그리지 않을수 없다. 내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우리 세포비서》가 되였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것이다.

해당 단위의 당조직책임자가 당원들에게 《동무는 왜 당조직에 속을 주지 않는가? 왜 보고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할 때, 그런 사람을 좋지 않다고 평정서에 글을 쓸 때 먼저 자신의 사람됨과 준비정도를 두고 돌이켜보아야 할것이다.

비록 자기를 키워주고 보살피는 어머니이기는 하지만 어머니가 체구실을 못한다고 인정했을 때 똑똑한 자식들은 어머니를 속이고 무시해버린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어머니가 되기는 쉬워도 어머니구실하기는 힘들다고 하는것이다.

당조직책임자와 당원들사이에 생기는 마음의 균열은 하나에서 열까지 당조직책임자의 가슴속에서부터 시작된다.

당조직책임자는 매 당원들에게 있어서 자기를 가장 믿어주고 사랑해주며 어떤 정황속에서도 보호해줄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지 못할 때 그런 일군은 《시끄럽게 통제만 하는 사람》으로, 《주대있고 똑똑한 당원보다 고분고분한 사람을 더 좋아하는 수준이하의 인간》으로 되어버리는것이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

연희선생의 생활에서 생긴 메꾸기 힘든 균열 그자체도 가슴아픈것이였지만 연희선생과 나와사이에 존속되어온 균열은 보다 더 치명적이고 눈물겨운것이 아닐수 없었다.

(다음호에 계속)

## 청춘의 값높은 시절

진철현

동트는 새벽에도  
남먼저 아침해를 맞이하고  
별뜨는 저녁에도  
군복은 이슬에 젖건만  
나는 오늘도 초소길을 간다

깊은 산중  
하늘나는 수리개  
연연 파도쳐간 산발들  
수도 먼 나의 초소

여기서  
피끓는 열혈 청춘들이  
총잡고 산다  
여기서  
나의 청춘시절이 흐른다

노래도 많은 시절이다  
꿈도 많은 시절이다  
누구에게나 한번은 오는 시절에  
누구나 함부로 지닐수 없고  
후회도 없는 그 이름을 지녔다  
청춘시절을 병사로 산다는 값높은 영예를

내 이 시절에 알았노라  
산악을 타고왔던  
겨불내와 땀맛이 어떤것인가를  
강행도하의 천막가에서  
야전가마의 국맛이 어떤것인가를

힘겹던 천리행군길에서  
속눈썹의 무게와  
배당과 장구류의 무게가  
어떤것인가를

오, 이 시절에 알았노라  
교과서에서만 읽던  
고난과 시련이란 말의 참뜻을  
숙영지 쪽잠의 가랑잎우에서  
언뱀을 씹던 험한 령길우에서

어찌 배움은  
교정에만 있다더냐  
파도쳐 설레는 숲속은  
그대로 병사의 강당인듯  
험준한 벼랑턱은  
그대로 교탁인듯

여기서  
병사격언도 알았고  
의지와 신념이 다져지고  
끝 끝한 청춘들로 자라 새 초소로 떠나가고  
여기서 팔팔한 교대자들이  
엄숙한 선서와 함께 청춘을 바친다

아, 평범한 날에 미처 몰랐던  
청춘시절을  
성스런 조국보위에 바친것으로 하여  
우리 당은 그렇듯 믿음의 첫자리에  
안아주고 빛내주는 삶

오, 먼 후날에도  
이 시절에 바친 그 삶으로 하여  
한생 몇몇이 머리 들고  
안아지킨 저 푸른 하늘을 바라볼수 있으리!  
마음 부끄럽지 않게  
조국의 대지를 걸을수 있으리라!

# 깃을 펴라

김승길

송학군의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인 석철은 어제밤 해안도시의 바다가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서 류숙하였다. 이틀동안 진행된 도당전원회의에서는 많은것이 총화되었고 앞으로 군들에서 집행할 사업방향들이 토의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석철은 버젓했다. 상반년기간 군에서 해놓은 일들이 좋게 평가되었던것이다. 특히 송학군에서 그렇게 애를 먹던 린회석광산이 개발되었고 송학산기슭에 조성한 수신평지의 약초밭과 뽕나무밭이 높이 평가되었다.

오래간만에 아버지의 집에서 발편잠을 잔 석철은 오늘아침 송학으로 떠날 준비를 해가지고 문밖을 나섰다. 마침 차정비를 끝낸 운전수가 마당으로 들어섰다.

《오래간만에 아버님덕에 오셨는데 하루 더 계시다가 떠나시지 않겠습니까?》

《무슨 소릴... 빨리 가지요. 회의에 참가해보니 우리 군이 할일이 정말 많소!》

대문쪽에 걸린 편지통에서 신문을 꺼내 펼치는 석철이의 앞으로 《에헴!》하고 마른 기침소리를 내며 새벽바다가로 낚시질을 나가셨던 아버님이 들어서시었다. 그런데 아버님의 온몸은 물에 흠뻑 젖어있었다.

《아니 왜 이렇게 됐습니까? 혹시 바다에...》

석철은 놀라며 아버님의 손에서 낚시대를 급히 받아쥐었다.

《아버님, 년로하신 몸에 주의하십시오!》

《입자나 주의하게!》 .

뜻밖에 아버님은 석철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통을 주었다. 그리고 마루방에 걸터앉아 담배를 꺼내물었다. 석철은 황급히 라이타불을 켜드렸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뭐가. 자네가 지도한다는 그 송학군의 은옥이라는 처녀교양원이 여기 바다귀신이 될뻔한걸 아나?》

《네?! ...》

석철은 은옥을 잘 안하다. 새로 개발된 린회석광산의 경쟁의 딸이다.

지난해 린회석광산을 개발할 때 석철은 늘 현장에 나가있었는데 많은 날을 경쟁네집에서 류숙했다. 동글사한 얼굴, 발그레한 앵두볼, 연한 눈썹밑에 오목히 박힌 눈동자, 그 눈동자에 늘 조용한 웃음이 새물새물 물결치는 처녀...

석철은 갓 대학을 졸업하고 교양원을 하고있는 은옥이가 집에 와서도 밤늦도록 애들의 수업을 위해 원심을 쓰고있는 모습을 눈여겨보며 그를

기특히 생각하였고 언제나 사랑해주었다. 은옥이도 석철을 무척 따랐다. 이러는 사이에 이들은 허물없는 사이가 되었다. 아버님은 불이 켜이도록 뻐금뻐금 담배연기를 들이마시며 혼자말처럼 입을 열었다.

《참 기특한 처녀야...》

아버님은 석철이에게 오늘 새벽에 바다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새벽바다는 언제나처럼 아름다웠다. 그 누구의 조화인지 살아 굴실거리게 한 곡선미 부드러운 물의 산맥이 동녘에 희뽕하게 밝아오는 노을빛에 번뜩이고 저 앞바다에 솟아세워둔 알섬의 기묘한 바위들이 새벽안개발을 하얀 목도리처럼 휘감은 모습, 펼쳐넓혀놓은 모래밭과 그우에 점점이 옷은 해당화, 꽃잎마다 알알이 돌아오른 예쁜 이슬들...새벽바다풍경은 청신한 자기의 절미로 로인의 가슴에 상쾌하면서도 장엄한 기백으로 안겨왔다.

바위코승이에 앉아 줄낚시를 당기는 로인의 등뒤에서 《어마나!》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니 난데없이 나타난 웬 애승이 처녀가 가슴우에 두손뼉을 딱 붙이고 물고기들이 푸들쩍거리는 다래끼안을 정신없이 들여다보며 감탄하는것이였다.

《아니 어디서 온 체넨데 새벽바다엘?...》

《아바이, 전 송학에서 왔습니다. 여기 도전기기 구공장으로 오는 길에 갈매기도 한마리 잡고 또 갈매기소리두 록음해가자구 이렇게...》

《음... 건 왜?...》

《네, 전 유치원교양원입니다. 우리 애들에게 보여줄려구 그러니다.》

《그러니 애들때문에 그 먼데서?...》

몇번이나 고개를 끄떡이는 로인을 향해 은옥은 물었다.

《그런데 갈매기가 언제 뜰니까?》

《이제 조금 기다리면 해가 불쑥 솟을걸세. 그때 여기저기서 갈매기들이 솟구쳐올라서는 저 알섬으로 모두 날아가버리지. 그때 록음하면 될걸세.》

이어 바다는 물결을 높여 커다란 불덩어리를 불쑥 떠밀어올렸다. 순간 불덩어리가 바다를 안았는지 바다가 불덩이를 안았는지 한 포옹에 무르녹는 장엄한 해돋이의 적광색의 빛발이 하늘과 바다의 전공간을 남김없이 한빛으로 덮었다. 처녀는 극치의 황홀경에 넋을 잃었다. 세상에 이런 기막힌 절경도 있는가. 또 보아라.

여기저기서 솟구쳐 오르는 무수한 갈매기들이 끼룩끼룩 합창을 하며 붉은해돋이를 향해 하늘가득날아올랐다.

아, 바다여! 해돋이여! 갈매기여!

처녀는 흥분으로 한껏 부푼 가슴을 터치며 격동에 찬 시를 목청껏 읊고싶었다. 하지만 그저야! 야! 말문을 토막치는 탄복속에 사방으로 시신을 뿌릴뿐이었다. 정녕 어느 시인이 말했던가. 조국의 아침바다는 무엇이랴 다 표현할수 없는 출중한 시인의 시어, 재능있는 작곡가의 선율, 이름난 화가의 붓끝이 무딘곳에 펼쳐진 노래밖의 바다, 시밖의 풍경, 명화밖의 절경이었다.

《체네, 뭇하나, 록음은 안하구!》

다급히 소리치는 로인의 목소리였다.

《아이 어찌나?!...》

처녀는 손가방에서 급히 록음기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바다는 벌써 조용했다. 처녀의 마음을 알길없는 갈매기들은 꿈속처럼 자기의 청아한 목청을 처녀의 귀전에 남긴채 아쉽게도 알섬으로 모두 날아가버린 뒤였다. 처녀는 울상이 되었다.

《체네, 너무 걱정말라구, 나두 늘 보는 바다지만 이자 그런 절경에 취해 잡았던 물고길 놓칠때가 많아. 래일아침 다시 나오게. 그때 록음하면 될텐데...》

자기를 측은하게 바라보며 달래는 로인을 향해 처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난 오늘중으로 가야 합니다. 래일 수업이 있습니다》

《그럼, 좋은수가 있네. 이제 10시경에 〈충성호〉가 저 알섬으로 낙지잡이 간다네. 거기 부탁하면 되겠네.》

《아이, 그럼 됐어요!》

실망에서 희망으로 엇바뀌는 처녀의 눈빛이 바다기슭의 한곳에 박히며 갑자기 반짝 빛났다. 손에 잡힐듯 몇걸음앞의 물가에 어린 갈매기 한마리가 동동 떠있었던것이다. 아마도 알섬으로 모두 날아가버린 그 갈매기무리들에서 혼자 빠져나와 노는것을 보니 자유주의가 탁없이 심한놈같다. 어린 갈매기는 자택질연습을 하는지 아니면 먹은것을 찾는지 매끈한 모래볼로 발랑발랑 손목잡고 기어오르는 애기과도들의 물결갈피에 머리를 정신없이 박으며 채통을 부리고있었다.

처녀는 갈매기를 향해 발뼉발뼉 다가갔다.

남시코에 먹이를 메워 바다 멀찌기 던지고난 로인은 처녀의 발치앞이 깊은 물끓이니 더 나가지 말라는 주의를 주려고 고개를 외로 드는 순간이었다. 《앗!》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처녀는 벌써 깊은 물속에서 허우적이고있었다...

《보게, 얼마나 기특한 처녀가, 자기 애들에게 산 갈매기를 보여주겠다구 그렇게 애타하는걸 보면 그래 임자 생각되는게 없나. 임자야 그 군의 호주가 아닌가. 집안의 세대주가 먼저 제집 애들

을 관심하듯이 군내사업도 마찬가지로. 군의 호주라면 마땅히 군내 애들을 가르치는 교육사업부터 먼저 관심을 두는게 옳은 처사지, 그런데 보니 그렇지 않은것 같거든. 오죽했으면 그 처녀가 예까지 왔겠나...》

뜻밖에 듣는 아버님의 질책이었다. 석철은 자기네 군교육사업의 실태를 생각해보았다. 송학군 교육사업은 몇해전 교육테제총화때 도적으로 꽤 참게 평가되었고 신문과 방송에도 나왔다. 산골도 깊은 산골인 송학군의 교육이 세상에 대고 큰 소리까진 못친다 보더라도 그만하면 부끄럽지 않게 얼굴을 들구 나설만한것은 사실이었다. 그런데 뜻밖에 은옥이가 송학군을 말밥에 올리고있다고 생각하니 지금 석철의 마음은 개운치 못하였다. 하지만 어쨌든 애어린 은옥이가 유치원애들을 위해 수백리길을 왔다니 그것만은 탄복할 일이었다...

경생호는 구불구불한 산협길을 누비고있었다. 승용차의 시창앞으로 마주 달려오던 산협의 싱싱한 꽃숲들이 달짝지근한 향기를 석철의 후각에 확-풍겨놓고는 승용차의 옆으로 날쌔게 빠져나갔다.

석철은 지금 보름전에 교육과장과 함께 읍유치원에 나갔던 일을 생각하고있었다. 이따금 유치원에 나오면 석철의 마음은 마냥 즐겁다. 조무래기들이 울망줄망 달려와 팔과 다리에 줄당콩들처럼 다람다람 매달린다. 음악실에 들어서서 콩알같은 애들이 저들보다 엄청나게 큰 악기들을 능란하게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 순간이라도 자기의 키를 압축시켜 애들속에 섞이고싶은 마음이 불쑥 동한다.

《허허, 그저 이렇게 한번씩 나와보면 아픈던 머리가 시원하거든. 교육과장동무, 어쩔소. 이만하면 우리 군내 교육설비들이 꽤 참지?...》

《네...》

석철은 흐뭇하였다.

그는 몇해전 교육테제총화를 계기로 온 군이 달라붙어 이렇게 꾸러주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그때 석철이를 비롯한 군내일군들은 학교와 유치원들을 하나씩 말아가지고 뛰었는데 정말 그때는 마치 온 군이 교육사업을 하나 놓고 부글부글 끓는것 같았다.

교육과장은 곁에 서있는 원장을 돌아보았다.

《원장동무, 준비가 다 됐겠지요?》

《네.》

원장은 위원장동지의 수업참관을 준비시킨 은옥이네 교양실로 먼저 달려갔다.

석철은 은옥의 수업을 참관한다고 생각하니 더욱 흥미가 있었다.

교단에 선 은옥의 모습은 정말 애송이였다.

동실한 어깨와 봉긋한 가슴을 비좁도록 뽐뿌히 감싼 진풀색 양복과 귀밀으로 약간 감아올린 머

리칼로 하여 처녀티가 좀 날뿐 그 머리우에 이제라도 리봉만 하나 올려놓으면 줄지에 아이가 되어버릴것 같았다. 그러나 은옥은 류창한 화술, 세련된 몸가짐으로 아이들의 수업을 곧잘 이끌어가고있었다. 교수내용은 유치원교재에 있는 《바다》였다. 은옥은 교탁우에 갈매기 박제품을 올려놓았다. 박제품은 몇해전 교육단체총화때 석철이가 바다에 나가 잡은 갈매기로 만들어 보내준 것이었다.

《어린이여러분, 자, 여길 좀 보세요.》

은옥의 지시봉은 갈매기박제품을 가리켰다.

《이 새는 바다에서 사는 갈매기라는 새입니다. 울 때는 끼룩끼룩 울고 날 때는 훨훨 납니다.》

어린이들은 수업에 집중했다. 그런데 뒤에 앉아 교수를 참관하고있는 석철이의 가까운 시야에 머리를 꼭 숙이고 무엇을 가지고 장난질하는 총각애하나가 밟혔다. 그애는 돌도리벌레에 수수깡대꼬마수레를 메워가지고 놀고있었다.

은옥은 자기가 배워준 교수내용을 아이들에게 물었다.

《자, 누가 대답해봐요. 이 갈매기는 어디서 살고 어떻게 날고 어떻게 읊니까?》

아이들은 저저마다 《예!》 《예!》 《예!》 하며 손을 끝추 세웠다. 봄이는 엉치까지 들었다.

《봄이어린이!》

은옥은 제일 어려보이는 처녀애인 봄이를 지명했다. 봄이는 또랑또랑 자신있게 대답하였다.

《갈매기는 바다에서 살고 끼룩끼룩 울고 훨훨 납니다.》

《예, 맞았어요. 잘 대답한 봄이에게 우리모두 박수를 크게 쳐주자요!》

아이들은 짹짹 박수를 쳤다.

이때 은옥의 눈길은 돌도리장난에 팔린 아이에게 멎었다.

《덕일어린이! 일어서요.》

총각애는 돌도리를 급히 손에 움켜쥐어 옆주머니에 쑤셔넣었다. 그리고 주먹으로 코밑을 한번 뺨 구고는 일어섰다.

《자, 이 갈매기가 어디서 살고 어떻게 날고 어떻게 읊어요? 어서 대답해봐요!》

덕일이는 지시봉이 가리키는 갈매기박제품을 이윽히 지켜보더니 큰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그 갈매기는 유치원에서 삽니다. 울줄두 모르구 날줄두 모릅니다!》

아이들은 까르르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석철이도 《허허허...》 하고 웃었다.

교육과장과 원장은 어쩔줄 몰랐다.

은옥은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허허허... 갈매기가 유치원에서 산다...》

수업참관을 마치고 마당으로 나서며 석철은 또 한번 크게 웃었다.

《저보다 거의 한살이나 아래인 봄이라는 처녀

애두 그렇게 잘 대답하는 문제를... 헛참... 그ئن 확실히 어딘가 좀 모자라는것 같습니다...》

교육과장의 말을 스치며 석철은 원장과 함께 서있는 은옥을 쳐다보았다. 귀방울이 빨개진 은옥은 얼굴을 들지 못하고있었다. 석철은 은옥의 마음이 헤아려졌다. 자기앞에서 한번 본때있게 해보리라고 마음먹었을 수업이였겠는데 일이 참 안되였다. 석철은 은옥을 위로했다.

《일없다. 오늘 그만하면 수업을 괜찮게 하더라!》

그리고 원장을 향해 입을 열었다.

《원장동무, 유치원교육설비두 괜찮게 꾸려졌는데 애들교양에 더욱 전심해야겠소!》

《네-》

이때였다. 은옥이 앞으로 봄이가 할딱거리며 달려왔다.

《선생님, 덕일이가 병아릴 몽땅 물에 빠뜨려죽였습니다.》

《네?! ...》

깜짝 놀란 은옥은 저도 모르게 두손을 포개여 퐁퐁 뛰는 가슴에 얹었다. 그리고 위원장과 교육과장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빨리 가보우!》

석철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은옥은 봄이가 이끄는쪽으로 달려갔다.

석철은 회억에서 깨어났다.

《...그렇다면 그 덕일 이란 애때문에 바다에 왔는가?...》

석철은 아리송한 생각을 안은채 운전수에게 물었다.

《운전수동무, 여기서 송학까지 얼마나 걸리오?》

《예... 빨리가면 시간반이면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수산사업소에 들렀다 가지요!》

차는 부두가에 멎었다. 차에서 내린 석철은 고무장화목을 반쯤 꺾어신고 철썹철썹 걸어오는 분홍샤쓰처녀에게 물었다.

《동무! 여기 송학에서 왔다는 유치원교양원을 못찾소?》

《못찾는데요.》

코맹맹이소리를 남기며 그 처녀는 가버렸다. 어딜 가서 이 처녀를 찾는다, 석철은 욕심껏 들이신 호흡으로 진폭이 한껏 커진 가슴과 어깨를 허물며

《후-》 하고 긴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망망한 바다로부터 오리알빛 허공으로 시선을 쭉 굽고는 한참이나 부두가에 말뚝이 되어 서있었다. 어쨌든 그저는 돌아설수 없는 걸음이었다.

...

석철이를 태운 차는 송학읍유치원마당으로 들어섰다.

《원장동무, 유치원사업에 무슨 애로가 없소?》



원장은 위원장의 심상치 않은 태도에 의아해졌다.

《없습니다.…》

《없으면 은옥교양원이 그 먼 바다에까지 나타났겠소. 은옥교양원이 갈매기를 잡으려다가 하마트면 잘못될 뻔했소!》

《네?!…》

원장은 놀랐다. 그러던 그는 잠시후에야 무엇이 짐작됐는지 이마에 차분히 내려앉은 머리카락을 가듬가듬 쓸어올렸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위원장동지, 그러면 알만합니다.… 위원장동지가 우리 유치원에 왔다가신 후에 있는 일입니다.…》

한주일전이었다. 은옥이가 한밤중에 원장네 집에 찾아왔다. 원장을 만난 은옥은 그냥 어깨를 들먹이며 흐느끼었다.

그리고 한참만에야 자기가 찾아오게 된 사연을 말하였다. …

은옥이가 봄이를 따라 식당쪽으로 달려가니 정말 어이가없는 일이 벌어졌다. 식당물통에 병아리두마리가 죽어 둥둥 떠있는게 아닌가. 식당아주머니가 몽둥이로 마당을 팡팡 두드리며 덕일이를 답새기고있었다. 덕일은 가슴에 턱을 꼭 박고 씩씩거렸다. 흡사 남북으로 빠져나온 덕일이의 앞뒤끝에 뿔이라도 하나 달아주면 당장 받아넘길 것 같은 기색이었다.

《글쎄 내가 머저리가 아니구야 어떻게 이런 짓을 하겠나. 응? 머저리가 아니구서야!》

덕일이는 더는 못참겠는지 턱을 들고 두눈을 콧콧이 세웠다.

《난 머저리가 아니예요! 머저린 병아리예요!》

《뭘라구! 이너석아!》

또한번 우악스러운 몽둥이가 마당에 팡하고 부딪혔다.

《챜!》

덕일이는 확- 몸을 돌려 총알같이 달아났다.

《이너석아, 못서겠니?…》

버럭 고함을 지르던 식당아주머니는 눈앞에 나타난 은옥을 보자 또 한바탕 수선을 떨었다.

《선생, 저걸 어쩌하문 좋겠소. 내가 저너석들에게 한알이라두 닭알을 더 먹여보자구 아 그 이십리나 되는 농장에까지 가서 병아리들을 가져다놓았는데 저너석이 이팔을 만들어놓았으니… 예구 저런 너석을 말은 선생의 속두 새까맣겠수다.》

은옥은 무엇이랴 입을 열수가 없었다.…

저녁이 가까와올무렵이었다.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졌다. 비옷을 걸친 은옥은 교양실을 나섰다. 덕일이네 집에 가는길이다. 도망친 덕일이가 아예집으로 가버렸는지 유치원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덕일이네 집은 유치원에서 얼마 멀지 않은 야산기슭에 있었다.

소낙비는 소낙비다. 은옥이가 덕일이네 집마당으로 들어서는데 비가 딱 멎었다. 덕일이의 엄마가 부엌문을 열고 달려나왔다.

《아이, 선생님 오십니까?》

가볍게 눈웃음으로 인사를 나눈 은옥은 비옷을 벗어들며 물었다.

《덕일이 있나요?》

《글쎄 덕일이때문에 오셨겠지요… 그녀석을 방금 내가 집에서 내쫓았어요!》

《아니 왜요?》

은옥이와 함께 방안에 들어선 덕일이의 엄마는 파자통을 내놓았다.

《글쎄 퇴근길에 식당아주머니를 만났는데 그녀석이 정말 머저리짓을 했더군요. 그런데 집에 오니 또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어항에 대구 낚시질을 하지 않겠어요. 얼마전에 도수산사업소에서 배를 타는 삼촌이 와서 줄낚시로 낙지잡는 애기를 한참 했는데 저도 크면 바다삼촌처럼 낙지잡는 어로공이 된다면 어제두 그따위짓을 해서 손바닥만한 금잉어를 두마리나 아깝게두 죽였답니다. 그래서 내 혼찌검을 냈는데 아, 오늘 또 그 짓이니 글쎄 맘만해두 그녀석이 제 정신이 있는애 같지않군요!》

못내 애타는지 한숨이 무너지는 덕일의 엄마를 향해 은옥은 물었다.

《혹시… 덕일이가 얘기때 심하게 앓은적이 없었나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가끔 왕청같은 일을 저지르군하니… 얼마전에도 두 군의 간부들이 참가한 수업에서 우리 덕일이가 웃음거리가 되었다지요.》

은옥은 그저 가볍게 웃어보일뿐이었다.

《됐어요. 난 덕일이가 집에 오지 않았나 해서 왔습니다.》

저녁을 먹고가라고 붙잡는 덕일이 엄마의 손을 뿌리치며 문밖으로 나서던 은옥은 아연해졌다. 글쎄 마당에 있는 꽃밭에 덕일이가 물조리로 방금 소낙비가 쏟아져 질척한 꽃밭에 물을 주다니… 아무리 철없는 애라도 저런짓은 하지 않을것이였다. 그런데… 너무도 어이없는 광경을 은옥이와 함께 목격한 덕일이의 엄마는 덕일이의 손에서 물조리를 와락 빼앗아 던졌다.

《이너석아! 너 자꾸 이렇게 머저리짓을 하겠나 응?! …》

덕일이는 엄마의 손탁에서 채빨리 벗어나 썩-하고 도망을 쳤다.

《덕일이…》

덕일이를 찾다가 맥없이 처지는 은옥의 어깨를 바라보던 덕일의 엄마의 눈가에 물기가 번뜩이였다.

《선생님, 아무래두 우리 덕일인 사람구실을 못 할것 같아요. 난 저렇게까지 머저리짓을 할줄은

물랐어요…》

이튿날 은옥은 제가 맡은 애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덕일이만을 교양실에 남겼다. 은옥은 코물이나와 쿨쩍거리는 덕일의 코를 손수건으로 훔쳐주며 조용히 물었다.

《덕일이, 하나 묻자요. 우린 왜 꽃밭에 물을 주나요!》

덕일은 별로 생각없이 대답했다.

《꽃들이 목이 말라할가봐 줍니다.》

옳은 대답이다. 이젠 머저리가 하는 대답이 아니다. 은옥은 재차 물었다.

《그런데 덕일인 어제 집에서 비물을 흠뻑 먹은 꽃밭에 물을 주더군요. 그러면 꽃들이 너무 물을 많이 먹어 체하지 않을까요?》

덕일은 자기 행동을 부정했다.

《헛, 난 꽃밭에 물을 주지 않았습시다. 그놈의 돌도리를 잡자구 돌도리구멍에 물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돌도리가 나왔습시다.…자… 이거…》

덕일은 염낭에서 사슴표성냥갑을 꺼내더니 열어보였다.

두마리의 돌도리가 갑속을 빠져나오려고 갑벽을 뽐뽐 긁으며 꿈지락거렸다.

《아니?! …》

은옥은 놀랐다. 기쁨인지 아니면 그 무엇인지 모를 충격이 세차게 은옥의 뇌리를 때렸다. 그렇다면? … 은옥은 또다시 물었다.

《그런데 덕일은 정말 머저린가요. 병아리를 물에 빠뜨려 죽이다니요?!》

덕일인 식당아주머니한테 옥을 먹던 생각을 했던지 올상이 되어 부르짖었다.

《난 머저리가 아닙니다. 머저린 뽐용입니다. 박박이오린 물에서 헤엄을 잘 치는데 뽐용인 헤염두 못치는 머저리입니다.》

《아니 그럼?!》

은옥은 순간 자기가 머저리가 아닌 참으로 엉뚱한 수재형의 어린이를 발견하고있다는 커다란 환희속에 휩싸여있음을 자감하였다. 은옥은 덕일을 와락 끌어안았다. 그리고 덕일이의 말큰한 불에 자기의 불을 마구 비볐다.

《그러니 덕일인 뽐용이가 박박이처럼 물에서 헤염치나 보자구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덕일은 꼬마입을 열어 《네!》 하고 대답했다.

《야! 그런걸 난…》

은옥은 그길로 덕일을 데리고 목장으로 갔다. 은옥은 오리가 왜 닭보다 헤염을 잘 치는가를 발가락사이에 있는 종이처럼 얇은 지간막의 원리를 통해 설명해주었고 청개구리도 하나 잡아 발에 지간막이 있기때문에 헤염을 잘 친다고 이야기해주었다.

목장에서 돌아오는길에 은옥은 마지막 하나 남은 수수께끼를 풀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덕일인 바다에 사는 갈매기가 어째

서 유치원에 산다구 했나요? 게다가 울줄두 모르고 날줄두 모른다고 했지요!》

덕일인 여전히 같은 대답이었다.

《유치원에서 삽니다!》

《네?…》

《우리 유치원에서 사는 갈매기는 병아리보다 더 머저립니다. 내가 털하나 뽑았는데두 날줄두 모르고 울줄두 모릅니다.》

순간 은옥은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그러니 분명 덕일이는 박제품갈매기- 그것을 본 그대로 대답했던것이다. 은옥은 덕일이앞에 죽은 갈매기- 박제품을 놓고 이 갈매기는 훨훨 날며 기특기특 운다고 몸짓 손짓 다해가며 목청을 높이던 일이 부끄러웠다.

《아!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은옥이가 덕일을 자기 집문앞에까지 데려다 주고 돌아설 때는 서산에 넘어간 해가 방금전까지 남겨두었던 한조박의 노을마저 죄다 걸어들이매였다. 은옥은 무슨 풀인지 모를 잎사귀 하나를 손가는데로 따서 입에 물고 잘근잘근 씹었다. 광막한 허공과 대지를 무겁게 내려덮는 어둠의 장막을 한번 불살라보겠다고 보잘것없는 그 조꼬만 불꽃 하나를 켜들고 대담무쌍하게 저물녘의 들길로 나선 반디불은 이제는 제가 하려는것이 너무도 엄두도 못낼 허황하고 어리석은짓임을 감득했는지 이번에는 은옥의 눈앞에서만 바지런히 뻗돌며 줄곧 반짝이였다. 홀로 피로움을 안고 걸어가느라 처녀의 적막한 밤길에 동무라도 돼주고싶은 모양이었다.

은옥은 가슴이 알알하도록 아파왔다.…

원장은 석철이앞에 계속 말을 이었다.

《…위원장동지, 자기를 심각하게 나무우친 은옥 선생은 지금 주어진 교육조건과 환경을 결정적으로 한계단 더 높일것을 제기해왔습니다. 보다 실제적인 교수가 되도록 유치원에 바다사관이란… 생동한 교육시설을 마련하자구 호소하였습니다. 은옥선생이 자진하여 사관을 만드는데 쓸 소형전동기를 구해오겠다구 하기에 제가 도전기기구공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갈매기를 잡으려 바다에까지 나갈줄은 저두 몰랐습니다.》

원장의 말을 듣고보니 석철의 뇌리에 며칠전 일이 불쑥 떠올랐다. 석철이가 새로 개발된 린회 석광산설비문제때문에 현지에 나가려고 사무실을 나서는데 은옥이가 복도로 급히 들어서고있었다.

《아니 은옥이가 어떻게 여길 다?!…》

의아해하는 석철이앞으로 은옥은 방글거리며 달려왔다.

《저 위원장동지, 우리 군에 쓸 전동기추가생산 계획이 오늘 도전기기구공장에 넘어간단지요?》

《응, 그런데 왜?…》

은옥은 한걸음 더 다가섰다.

《저… 우리 유치원 사관 만드는데 쓸 소형전동

기 서너대만 그 계획에 같이 물려졌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석철이를 바라보는 은옥의 눈동자는 빛난다. 기대와 믿음의 눈빛이었다. 석철은 유치원애들을 위해 모지름을 쓰는 은옥이가 여간만 애모쁘고 사랑스럽지 않았다. 그는 손가락으로 은옥의 볼을 가볍게 눌러주었다.

《허허허… 요건 그저 늘… 알겠다. 그렇게 하지!》

《고맙습니다!》

포롱 날아가버리는 새처럼 기쁨속에 목례를 하고 가벼운 걸음으로 돌아갔던 처녀가 그날밤 석철이네 집에 또 나타났다.

《아니, 어떻게 또?…》

늘 웃음이 바글바글 끓던 은옥의 눈매에 웬일인지 눈물이 가랑가랑 맺혀있었다. 은옥은 입술을 오무려 감쌀며 울먹이었다.

《방금 지도원동지가… 전동기추가생산계획을 가지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앗차!》

석철은 한손으로 자기 이마를 딱 쳤다. 그리고 은옥을 달래느라 찢찢 땀다.

《은옥아, 내 말한다는게 그만 깜박 잊었구나. 어찌겠나, 다음 분기계획에 넣기로 하자! 내 그뻔 꼭 잊지 않마. 그렇게 하지 응?…》

은옥은 알릴듯말듯 머리를 끄덕일뿐이었다.

그런데 원장의 말을 듣고보니 석철의 가슴은 후드득 뛰었다. 은옥이가 바다에까지 나가 일으킬만한 사고-이것은 따지고보면 석철이 자기때문에 생긴 일이었다. 솔직히 은옥이가 소형전동기 문제를 제기했을 때 석철은 은옥이에게 소형전동기는 무슨 소형전동기나, 지금 산골군치군 우리만큼 교육조건이 구비된데가 없다, 애들교육에나 전심해라-하고 타일러주고싶었으나 어린나이에 뭘 해보겠다고 뽀박질하는 모습이 그저 귀엽고 사랑스럽게만 생각되어 그냥 오냐오냐 했을뿐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스쳐버린 일이 이렇게 번져질줄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석철이가 자기 집 마당으로 들어서니 툭 툭 비꽃이 떨어졌다. 송학군의 날씨는 바다가의 날씨와 영 판판이었다. 아침에 떠날 때까지는 쾌청이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았다. 툭날같이 치솟아 하늘끝을 물고뜯는 험준한 송학산발이 흘러가는 누기찬 구름장을 죄다 모아 거머쥐었다. 그리고는 시꺼멓도록 무거워진 구름몽치를 한줄씩 꼭 쥐어쥔다. 그때마다 짹 짹 수천수억만 줄기의 비발이 쏟아져내렸다. 방에 들어서니 막내녀석이 텔레비존을 보고있었다. 석철은 이제야 점심때가 켜 지났음을 알았다. 간단히 식사를 끝낸 석철은 사무실에 나가려고 일어서는데 화면에서 이웃군인 영초군내 어느 인민학교를 찾았던 텔레비존기

자의 방문기가 소개되고있었다.

《음? …》

석철은 화면을 주시했다. 화면에 펼쳐진 그 인민학교 교육시설들을 보며 석철은 놀랐다. 참으로 훌륭한 설비들이었다. 몇해전까진 영초군 교육실태는 송학군에 대비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석철은 가슴이 답답했다. 발전하는 현실은 잠시나마 자만과 자족을 허용하지 않는 법이다. 잠깐 걸음을 멈추고 허리를 펴는 사이에 어느새 까마득히 앞서가는것이 현실이다. 확실히 석철이네는 담보하고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퇴보했다. 석철은 영초군교육실태를 목격하며 피땀 달리기경기를 했다는 토끼와 거북이의 우화를 생각했다. 자만과 자족의 병집인 그 《토끼》란놈이 어느새 머리속에 들어와 슬그머니 틀고있었는가… 석철은 무거워지는 머리를 세팔게 털며 문밖을 나섰다. 교육과장을 만나야 했다. 그가 비에 젖은 우산을 접으며 교육과장의 방문을 여는데 원장이 와있었다. 그런데 원장의 안색이 좋지 않았다.

《무슨 일들이 있었소?…》

원장은 좁전에 도착한 열차편에 은옥이가 꼭 오게 돼있었는데 역에 나가보니 은옥이가 도착하지 않아 걱정하고있다는것이였다.

《음… 그러니 갈매기를 못잡았는가?…》

이때였다.

똑똑똑… 누가 교육과장의 방문을 두드렸다.

《네-》

교육과장의 대답이였다. 웬 낯선 중년배가 들어섰다.

《저… 유치원 원장동무가 여기에 왔다기에…》

원장이 의아해하며 일어섰다.

《네… 접니다. 그런데 누구신지?…》

《네, 전 여기 중암목재공장의 인수원입니다. 출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여기 읍유치원 은옥이라는 교양원동무와 함께 차를 탔습시다…》

은옥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진 석철은 문가에 서있는 인수원을 의자에 앉게 하며 물었다.

《그래 그 동무가 어떻게 됐단 말이요?…》

라이트불까지 켜대며 권하는 담배를 송구스럽게 받으며 인수원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인수원은 출장지에서 일을 마치고 열차에 올랐다.

웬 처녀가 앉아있는 열차자리가 비여 찾아가니 발놓는곳에 웬 함통이 놓여있었다.

《처녀동무, 이 함통을 당반에 올려놓지 않겠소, 다니기 말썬구만!》

그런데 그 처녀는 몹시 당황해하였다.

필경 함통에 말 못할 그 무슨 사연이 있는게 분명하다고 생각한 인수원은 그 처녀에게 조용히 물었다.

《말하라구. 뭐요? 내 비밀을 지켜주지.》

초면이지만 믿음이 가는지 처녀는 인수원에게

함통의 비밀과 함께 갈매기를 힘겹게 잡던 이야기까지 죄다 하였다...

바다에서 돌아온 은옥은 해안도시에 있는 도전 기기공장의 기사장인 아저씨를 만나 소형전동기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었다. 공장에서는 유치원에 쓸 전동기라고 하니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아끼겠는가고 하며 곧 추가생산하여 이달안으로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제는 부두로 나가 충성호선장을 만나야 했다. 부두에 나온 은옥의 눈길은 오가는 선원들속에서 지나가던 어떤 아주머니한테 들은 하늘색 잠바를 찾고있었다. 류달리 풍덩하도록 푹크게 해입은 그 하늘색 잠바가 《충성》호의선장이라는것이다. 《충성》호가 이제 곧 알섬으로 낙지잡이 떠난다니 이 배편에 함께 나가 갈매기를 잡아올 결심이였다. 《충성》호의 갑판쪽에 시선을 돌리던 은옥은 저도 모르게 마중오는 어떤 청년과 부딪쳤다. 배의 취사원인듯한 청년이 배를 내밀고 아름이 별도로 안고선 생채통에서 호박하나가 푹 떨어져 데그르르 잔교우로 굴러갔다.

《아니 이 동무가?!... 눈이 없소?!》

은옥은 아차하면 바다밑에 떨어질뻔한 호박을 찹싸게 안아냈다. 그리고 버럭 고향을 지르고는 푸르딩딩해 서있는 취사원청년의 생채통에 호박을 올려놓으며 사죄하였다.

《아이 미안해요...》

꽤나 바쁜 모양인지 취사원청년은 은옥의 사죄의 말을 들었는지 못들었는지 가타부타 없이 생채통을 안은 허리와 몸집을 좌우로 요란히 흔들며 갑판쪽으로 툽기적툽기적 걸어갔다. 취사원청년의 그 모양이 하도 우스워 피씩 저도 모르게 웃던 은옥의 시야에 하늘색 잠바가 나타났다. 자세히보니 바다바람을 몽땅 잡아넣으려는지 그지없이 풍덩하게 입은 하늘색 잠바인 선장이였다.

은옥은 날듯이 그가 서있는 충성호의 선미쪽으로 달려갔다.

《저... 선장동지죠?...》

《예... 왜 그러우?》

선장은 해풍에 청동같이 끄슨 얼굴을 돌렸다.

《저는 송학에서 온 유치원교양원입니다. 아이들의 수업에 쓸 갈매기 한마리 잡아가지구 왔습니다. 이제 충성호가 곧 알섬으로 떠난다지요? 같이 나가 갈매기 한마리 잡아오자구... 그래서 좀 도와달라구 그러니다.》

처음은 난데없이 나타난 처녀가 무슨 말을 꺼내는가 하고 듣던 선장은 은옥의 말을 다 듣고는 어이가 없는지 허거픈 웃음을 웃었다.

《선장동지, 그렇게 해주시죠?》

가만보니 약간이라도 틈을 주었다간 집요하게 찹잡고 들어서며 여간 시끄럽지 않게 굴 잡도리였다. 이런 처녀에겐 처음부터 아예 범접을 못하게 딱 잘라내리는것이 상책인것이다.

《동무, 바다가 동무네 유치원마당갈소, 징검돌을 놓고 건너다니는 개울인줄 아는가 말이요. 바다요 바다, 사정을 모르는 검푸른 바다. 정말 셸판을 모르는구만!》

《그래두 꼭 잡아가야 합니다.》

《그건 동무네 사정이구...》

선장은 은옥이와는 더는 상관이 없는듯 일별하며 선채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은옥은 달려가 선장의 앞을 막았다.

《야! 선장동지!》

숫덩이같은 눈섭을 꿈틀거리며 선장은 두눈을 부릅떴다.

《차아, 이 동무가 정말 애를 먹이누만.》

《아이, 바다사람들은 모두 통이 크다구 하던데... 그런데...》

《그런데 어쨌단 말이요, 통이 병아리엄통같이 찼찌하단 말이지요?... 흥... 어쨌든 안되오!》

벽창호같은 이런 선장을 대하고보니 기대의 산악이 허물어짐과 동시에 욕- 하는 반발심이 은옥의 가슴속에서 송곳처럼 치솟았다. 더는 마주서기 싫다는듯 통바람을 일으키며 달아나버리는 선장의 떡판같은 등판을 한참이나 야속하게 바라보던 은옥은 무엇인가 결심을 내린듯 아래입술을 꼬옥 깨물었다...

충성호는 알섬을 향해 달렸다. 식당의 부엌칸에서 취사원청년이 흥얼흥얼 코노래를 부르며 칼도마우에 호박을 놓고 큼직큼직하게 썰고있었다. 이때 뒤에서 하얗고 보동보동한 손이 칼도마질하는 청년의 손을 살그머니 감싸쥐었다. 청년은 와 뜰 놀라 돌아보았다. 아니 그런데 이게 누군가. 부두가에서 부딪쳤던 그 알미운 처녀가 생긋 웃으며 자기의 말쑥한 손가락을 도톰한 입술에 곧 추세우는게 아닌가!

《췌! 조용하세요... 이거 미안하게 됐어요!》

밟다니까 깨꼬한다구 지그시 접어드는 모양이 여간 패썹하지 않았다. 하지만 웃는낫에 침을 못 뱉구 떼질이 사촌보다 낫다구 푹박새같은 취사원청년의 마음에두 생금이 가기 시작했다.

《동무, 그런데 도대체 어데서 왔소?》

《저 송학읍유치원에서 왔어요.》

《뭐요? 송학읍유치원에서?!...》

취사원청년은 놀라운 눈길로 은옥을 바라보았다.

《네, 우리 애들에게 산 갈매기를 좀 보여주자구... 더우기 제가 맡은 반에 덕일이란 애가 있는데 그랜 아주 영뚱한 애랍니다. 이제 크면 자기 삼촌처럼 어로공이 되겠단나요... 그런 애에게 바다에서 훨훨 나는 산 갈매기를 꼭 보여주고싶어서 이렇게...》

취사원청년은 갑자기 은옥의 손을 와락 거머쥐었다.

《아, 그래서 왔단 말이요. 동무, 바로 내가 덕

일이 삼촌이요!》

《네?!》

뜻밖이었다. 은옥은 저도 모르게 아프도록 거머진 청년의 거울진 손아귀에서 자기손을 조용히 뽑아 주물며 기쁨을 금치 못했다.

《야, 그런걸… 호호호…》

덕일의 삼촌을 만났으니 이젠 됐구나 하는 안도의 웃음이었다.

그런데 이때였다. 갑판우에서 갑자기 싸이렌소리가 요란히 울었다.

이것은 비상소집신호였다.

은옥은 겁이 덜컥 났다.

《어마나, 이게 웬 소린가요?》

취사원청년이 식당문밖을 내다보며 입을 열었다.

《동무가 허가없이 탔기때문인것 같소!》

《그럼 어쩌나요?》

무슨 수를 생각하는지 커다란 두눈을 섬뚱이며 울상이 된 은옥을 잠시 지켜보던 취사원청년은 급히 취사장구석에 놓인 통뚜껑을 열었다.

《자, 동무, 우선 여기 숨구보우. 갈매기는 내가 꼭 잡아줄테니 마음을 놓소.》

《네… 고마워요!》

통속에서 비릿한 냄새가 확 풍겼다. 하지만 그걸 가려볼새 있는가.

은옥은 황급히 무슨 통인지 모를 그속에 쑥 들어갔다.

선장은 비상소집된 선원들앞에서 입을 열었다.

《여기 우리 배에 송학에서 온 교양원이 탄게 분명하오. 빨리 찾아야겠소!》

통안에 숨어 선장의 말을 듣는 은옥의 마음은 조마조마했다. 뒤이어 취사실로 들어서는 선원들의 발자국소리가 났다. 은옥은 속이 깨알만해지며 숨도 크게 못쉬었다.

그런데 이때 그의 한쪽손을 무엇인가 갑자기 껍물고 늘어졌다. 《아아아!》 은옥은 저도 모르게 새된 비명을 질렀다. 누가 급히 통뚜껑을 벌컥 열었다.

《아아, 이 동무가 여기 있구만!-》

겁에 질려 울롱해진 처녀의 두손을 내려다보는 사람은 그 벽창호같은 선장이었다.

《허허허… 그놈의 심보 교양한 털게란놈이 숨박곡질 잘하는 선생을 알아볼타이 없지!》

선장은 맥살이 두껍게 앉아 돌덩이같이 굳어진 자기의 그 집게같은 손가락으로 처녀의 손을 피가 지도록 물고 늘어진 털게를 조심히 뜯어주었다. 주변에 어깨성을 쌓고 모여든 신원들이 《와하하》 하고 웃음통을 터뜨렸다.

《자, 교양원동무,… 아가는 정말 안됐소!》

《네?! …》

은옥은 당장 내리라고 호통을 칠줄 알았던 선장의 뜻하지 않게 부드러운 억양에 놀랐다.

《물에서 무전이 왔는데 우리 수산사업소 지배인동지가 동무의 요구조건을 무조건 들어주라는 거요. 아마 동무네 군의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동지가 부탁했다는것 같소!》

《네?!-》

《자, 동무들! 조금 있다 운반선이 떠난다는데 빨리 갈매기를 잡지요. 이 동문 오후 첫차로 가야하오!》

갈매기를 잡아넣은 함통을 안고 은옥은 렬차에 올랐다. 자기의 발밑에 갈매기함통을 놓은 은옥의 마음은 몹시 불안했다. 렬차규정에 생물을 가지고 오르는것이 절대 엄금되었다는것을 은옥이도 잘알고있었던것이다…

은옥의 말을 들으며 인수원은 못내 감동하였다.

《음, 유치원애들을 위해 그런 일을 했다니… 정말 감동이 되누만… 마침 잘됐소. 나두 송학군에 사는 사람인데 길동무가 생겨 좋구만, 허허… 이러구보니 거 뭐드라, 소설을 각색한 영화있지. 응. 옹지, 영화 <새 세대>! 우리가 마치 그 영화의 주인공들 같구만, 어쨌든 좋소. 이제 우리앞에 무슨 <난관> 과 <시련> 이 들이닥치겠는지 알겠소. 함께 용감히 뚫고나갑시다. 이게 다 우리 유치원애들을 위한 길인데…》

《호호호…》

우연히 만난 인수원의 익살에 은옥은 오래간만에 즐거운 웃음을 터뜨리었다.

이때 앞에 불쑥 나타난 렬차원이 함통을 가리켰다.

《이게 어느 손님집니까? 치웁시다!》

《아, 아니요. 이건 깨질 물건이 돼와서… 이렇게 여기에 놓고가야 합니다.》

갑자기 당황해하는 은옥이에 앞서 인수원이 렬차원앞에 나서며 시침을 떼는 말이었다.

렬차원이 지나갔다.

그런데 은옥이가 안도의 숨을 내쉬기 바쁘게 뜻밖에 일이 벌어졌다. 글썽 지금까지 켜소리하나없던 갈매기가 갑자기 함통에서 푸드득거리며 끼룩거리는것이였다.

《야, 좀 가만 있으려무나!》

은옥은 당황하여 함통을 끌어안았다. 그러나 그냥 갈매기는 끼룩거렸다. 난데없이 렬차안에서 울리는 갈매기소리에 승객들이 웅성거렸다.

은옥은 인수원을 애타게 바라보았다.

《아저씨, 이게 왜 갑자기 이럴가요?》

《그놈이 답답해 그러겠지. 바다가 좁다고 날으는 놈이 오죽이나 답답하겠소. 아, 배가 교파그럴수 있지!》

《참말 그럴것군요!》

은옥은 급히 갈매기의 먹이감인 잔새우, 까나리파위들을 넣은 유리병을 꺼냈다. 그리고 갈매기를 꺼내려 함통의 뚜껑을 조심히 열었다. 이때

었다.

화다닥-죽지를 치며 갈매기가 함통박을 날아올랐다. 은옥은 아연실색하여 소리를 질렀다.

《아야! 저 갈매길 좀 잡아주세요!》

렬차안은 갑자기 수라장이 되었다. 려객들은 갈매기를 놓쳐버린 은옥의 애라는 마음과는 아랑곳없이 뜻밖에 려차안에 나타난 갈매기를 보는 신기함에 흥분하여 저마끔 갈매기를 잡는다구 복새판을 피웠다.

인수원이 소리쳤다.

《여보시오. 빨리 창문부터 닫소. 창문부터!》

여기저기에서 창문들을 다급히 내렸다. 끼룩거리며 려차의 천정을 향방없이 날으던 갈매기가 환히 트인 창밖을 향해 쏜살같이 꽃히다가 유리창에 부딪치며 미끄러졌다.

순간 인수원이 갈매기를 덮쳐안았다.

《후유! 이놈아! 왜 나와가지구 이 소동이나, 엉?!》

인수원이 몇대의 깃털이 아깝게도 뽑힌 갈매기를 품에 안았다. 이때 아뿔싸 은옥의 시야에 려차의 출입문쪽에서 좁전에 지나갔던 그 려차원이 표표히 다가오고있었다.

...

석철을 태운 차는 하늘과 땅사이의 엄청난 공간을 채운 대줄기같은 비발을 끊으며 쏜살같이 내달고있었다. 갈매기때문에 도중역에서 내린 은옥을 마중가는 길이다. 비발은 더욱 세차게 시창을 때렸다. 시창에 부서지는 비방울을 닦아내느라 부지런히 좌우부채형을 그리던 비물담개가 인제는 제할일을 다 잊고 시창을 덮는 비물의 바다속에서 헤어나오려 무진 애를 쓰며 허우적이었다.

석철은 대지를 채찍같이 두들겨래는 이 험악한 비속을 헤치며 걸어올 은옥을 생각하니 얼굴을 들수가 없었다. 바다가... 알삼... 려차에서 있었던 은옥의 그 모든 일들이 다 석철이 자기때문에 빚어진 어린 처녀의 힘에 부친 일들이었다. 은옥을 생각할수록 석철의 자책은 컸다. 아버님의 말씀이 백번 옳았다. 부모는 자식교양에 등한하는 법이없다. 그도 새자식을 키우면서 아무리 바빠도 그들의 숙제장에 자기의 수표를 빼놓은적이 없었고 학부형회의에도 빠진적이 없었다. 그런데 석철은 한가족의 호주만 아닌 온 군의 호주이다. 하다면 군의 호주로서의 근간에 군교육사업을 놓고 그 무순자랑할만한 일을 해놓은게 있는가. 지난 몇해를 돌이켜보면 석철은 군내 크고작은 일들을 모두안고 주물며 구두뒤축이 닳도록 동분서주하였다. 목재공장 건설, 린회석공장 건설, 부암산협곡으로부터 석두세마루까지 린회석광을 운반할수 있는 삭도까지 번듯하게 놓았다. 비련천 기슭과 버들골등관에 새로 꾸린 방목지에는 황소작같은 돼지들이 특한 주둥이로 흙을 쿡쿡 박으며

닥치는대로 투저먹는것들이 꿀맛이라고 꿀꿀대고 계사니, 오리들은 저희들도 알과 고기생산에 단단히 한몫을 하니 알아달라는듯 그 물음표같은 목을 빼들고사방을 향해 꺾꺾거린다. 그리고 싱싱한 청초들을 실컷 뜯어먹은 젓소무리들이 배부른 자루같은 젖통을 흔들며 한가롭게 새김질을 하고있다. 더우기 래년부터는 수십정보의 뽕밭에서 닭알같은 고치들도 따들이게 된다. 석철은 이런 성과들앞에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왜선지 가슴속 한구석에 허전한게있는것이 무엇 일가 하고 골몰한적이 없지 않았는데 그 수수께끼같던 빈구석의 그늘이 은옥이가 일으키는 뜻하지 않은 한점의 불꽃방전에 의해 밝혀질줄이야 어떻게 알았으랴. 확실히 은옥은 더 높은곳으로 교육수준을 올려놓기 위해 아글타글 뛰고있다. 그런데 나는 무엇을 도와주었는가?...

후회란 항상 실책을 느낀후에 생기는 법이며 실책이란 왕왕 자기 사업과 직무에 대한 자각을 잊었을 때 생기는 법이다. 석철은 비로소 근년에 교육에 무관심했던 자기를 자각했다. 일이 바빠돌아치다가 여가가 생길 때 잠시 군내 교육망을 돌아본 일들이 있지만 그것은 돌이켜보면 땀을 들이는 휴식이였고 목적이 뚜렷치 않은 유람이었다. 손톱굼는건 알아도 염통 굼는줄 모른다고 군내 교육사업을 지금처럼 그냥 무관해나간다면 몇해후에는 어떻게 될것인가. 한편 석철은 교육과장이나 교육부문을 직접 담당한 일군들의 뉘까지 지금 다 걸어안고 자기가 지나치게 모대기고있지 않는가 하고도 생각했다. 그러나 이것은 가슴후련치 못한 위로였다. 그는 순간에 그것을 일축했다. 어쨌든 교육부문의 일군들은 자기 사업의 본업으로부터 위원장 자기보다 더 직접적인 관심을 들것은 당연한것이다. 문제는 군의 책임진 일군들이 교육사업을 군내 전반사업에 어떻게 비례하며 어떤 위치에 놓고 내밀어주는가에 결정적으로 기인되는것이며 아이들을 교육자의 눈동자가 지키는것처럼 그 교육자들을 우리 일군들이 어떻게 세심한 눈길로 지켜보고 도와주는가 하는 그것이였다.

석철은 저도 모르게 사그러져가는 가슴속의 채무지를 들추는 불꼬치가 되어준 은옥이의 소행이 고마왔다. 그리고 그 불꼬치가 들추어준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결에 일어번지기 시작한 자각의 물길이 다시는 꺼지지 않기를 기원하였다.

비는 계속 내렸다. 석철은 지금 역수의 비가 교육과 후대들앞에 저도 모르게 타성적이었던 자기의 심중속에도 쏟아져내리고 있음을 감각했다. 마음의 벽에 앓은 티와 먼지를 말끔히 씻어내리는 비였다.

내리는 비속에 차는 달리고 달리는 차속에 비는 멎었다. 멎은비, 띵 띵 띵 비누물거품처럼 갈라지는 구름, 드문드문 구름장들사이로 반갑게

드러나는 깨끗한 하늘, 운전수가 차창밖을 내다 보았다.

《위원장동지, 그 동무가 혹시 오늘밤 려관에서 묵는게 아닙니까?... 아직 안보이니...》

《아니요. 꼭 올게요!》

확신에 넘쳐 대답하던 석철은 갑자기 《가만!》 하며 차를 세웠다. 얼마멀지 않은 내가에서 웬 처녀가 잠자리날개같은 연분홍빛 수건을 펴들고 물고기를 몰아가고있었던것이다. 자세히 보니 은옥이었다. 아마 갈매기먹이를 건지는 모양이었다. 석철은 저도 모르게 기쁨에 넘쳐 소리쳤다.

《은옥아!》

비구름의 가늉새로 빠져나온 저녁해빛이 무수한 거울조각들처럼 부서지는 수면의 눈부신 반사속에 이마에 손채양을 얹으며 고개를 드는 처녀의 모습은 마치 한쪽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송학에 도착한 석철은 그이튿날 긴급협의회를 송학읍유치원에서 가지도록 포치하였다. 그리고 협의회의에 앞서 은옥교양원의 교수참관을 조직하였다.

은옥은 어린이들앞에 록음기의 단추를 눌렀다.

썩-쳐질썩-파도소리와 함께 끼룩끼룩, 끼르르-하는 갈매기의 울음소리가 교양실을 팍 채웠다.

어린이들도 교수를 참관하는 군내일군들도 모두 바다에 온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은옥은 길게 늘인 실로 발끈을 잡아맨 갈매기를 함통안에서 꺼내 허공에 날렸다.

푸드득!

희한한 갈매기가 끼룩끼룩 목청을 돋우며 자기몸에 비해 갑절이나 큰 죽지를 활짝 펼치고 훨훨 날아올랐다.

《야!-》 아이들은 환성을 질렀다.

은옥은 갈매기를 다시 건어 함통에 넣으며 덕일이의 이름을 불렀다.

《덕일어린이, 대답해봐요. 그래 이 갈매기가 어디서 살고 어떻게 울고 어떻게 날아요?》

덕일은 벌떡 일어서더니 크게 대답했다.

《선생님, 바다에서 날아온 그 갈매기는 끼룩끼룩 울고 훨훨 납니다!》

《맞았습니다.》

아이들은 덕일의 대답에 박수를 쳐주었다.

석철이도 만족하였다.

은옥이가 덕일이의 이름을 부를 때 이번에도 또 왕청같은 대답을 하여 웃기면 어찌나 하고 가슴을 조이던 교육과장도 안도의 숨소리와 함께 손바닥이 아프도록 박수를 쳤다.

그런데 대답을 마친 덕일이가 앓을념을 하지 않았다.

석철은 은옥이와 함께 긴장해졌다. 아니 그만했으면 아주 잘 대답했는데 저너석이 무슨 똥판지같은 일을 또 저지르려구 저럴가?

덕일은 석철이나 은옥이, 원장, 교육과장의 조

마조마한 마음에는 아랑곳없이 쟁쟁한 목소리로 또 자기 식의 대답을 엮었다.

《선생님, 갈매기 발가락을 보니 박박이오리처럼 발가락사이에 얇은 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매기도 오리처럼 해염을 잘 칩니다. 선생님, 난 갈매기가 훨훨 날며 끼룩끼룩 우는 우리 나라 바다가 제일입니다. 난 크면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삼촌처럼!...》

순간 교양실이 떠날듯 와그르르 박수폭포가 쏟아졌다.

《아, 저너석이 저런 대답까지 하다니?!》

너무도 예상치 않던 덕일이의 훌륭한 대답에 눈굽을 뜨겁게 적시는 은옥을 바라보는 석철의 심정은 지금 무엇이라 형언할수 없는 감동과 충격속에 목이 짝 메였다.

저것이다. 저것이야. 저것이 우리 수령님께서 것처럼 바라시는 가장 훌륭한 산 교육이다. 저 은옥의 교수는 사회주의교육학의 본성과 우리 후대들의 인식과정의 합법칙성에 철저히 기인되는 사회주의교육체제에서 밝힌 실물교육과 깨우쳐주는 교육의 참된 진리의 생동한 확증이며 이것으로 하여 학생들의 자립적이며 창발적인 사고능력의 정당성을 직관적으로 실감있게 보여주는 본보기적수업의 화폭이다.

...

교수참관을 끝낸 석철은 군내일군들앞에서 격동에 넘쳐 발언하였다.

《보았을겁니다. 은옥교양원의 교수를! 그리고 아이들의 대답을! 은옥동무는 어린이들의 저런 훌륭한 한마디 대답을 위하여, 그리고 또 그 대답이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우리 후대들이 당과 수령께 드리는 영원한 충성의 대답이 되도록 그 먼 수백리길을 달려가 산 갈매기를 가져왔습니다.오늘 동무들앞에 저부터 비판하겠습니다. 저는 몇해전 교육체제총화때 박제품갈매기 하나를 만들어 이 유치원에 보낸적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은옥동무는 산 갈매기를 놓고 수업했습니다. 죽은 박제품갈매기와 산 갈매기! - 이것은 교육사업에 만족했던 나와 순간도 만족을 모르고 더 높은곳으로 비약하는 은옥교양원과의 차이였습니다. 정말 은옥교양원이 안고온 산 갈매기! - 그것은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어버이수령님과 당의 뜻으로 사는 은옥교양원의 심장속에 나래편 훌륭한 마음의 깃이며 충성의 날개인것입니다. 동무들, 우리 일군들도 이런 것을 답시다. 이런 나래치는 것을 달고 또다시 달려붙어 군교육사업을 한계단 더 높임으로써 모범교육군의 영예를 꼭 지닙시다. 여기서 내가 우선 군의 호주로서 앞장설것을 동무들과 약속합니다!》

군내 일군들은 석철이의 호소를 가슴깊이 새겼다. 그리고 마음의 깃을 펴고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기에 오늘의 우리 조국이 있고 우리 인민의 행복과 존엄이 있으며 보다 휘황찬란한 미래가 있습니다.》**

이즈음에 와서 전 조선인민군 중군기자 《비전향장기수》 리인모로인의 수기가 실린 신문은 자주 마음을 당기군한다. 읽을수록 정의와 진리 앞에 열렬한 한 인간의 고결한 정신세계와 그 정신이 이룩한 삶의 가치에 대한 깊은 사색이 가슴속에 따뜻한 흥분과 함께 자리잡혀진다. 그것은 경모의 감정일것이다. 그 감정속에 그가 헤쳐온 험치 않은 자옥들을 산 체험처럼 더듬노라면 왜선지 자주 고향마을 동구에 솟아있는 느티나무가 되살아나군한다. 독특한 형상적련상이라는 심리가 작용한탓이라 하겠는지 ...

어쨌든 음미해보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처음으로 굳센것에 대한, 무한한 활력으로 강해진것에 대한 류다른 감각을 그 나무에서 받은때문일것이다. 수백년은 실히 자랐을 그 나무밑에는 사철 정가로운 샘물이 솟고있었다. 어린시절 우리는 거기서 자주 놀러다녔다. 거기에서 우리는 씨름 놀이에 열중하기도 했고 가슴이 찡-하니 열리는 샘물을 마시면서 세상 온갖 현상에 대한 엉뚱한 의견을 두서없이 나누기도 하였다.

어느해인가, 나는 울렁이는 마음을 안고 그 나무와 샘줄기를 오래도록 찬찬히 생각깊게 여겨본 적이 있었다.

간밤 폭우를 앞세운 거대한 태풍에 한쪽 땅귀가 몽청 꺼져내린 나무밑에서였다. 크고작은 돌들이 엇갈려 놓인 땅속에 굵직하게 뻗어내린 뿌리가 드러나있었다. 어딘가 땅속 깊은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샘물이 쉬임없이 뿌리를 적시고있었다.

뿌리중턱에 간밤 굴러내린 돌에 짓이겨진 생신한 상처자리기 눈을 아프게 찔렸다. 그 상처자리로는 뿌리가 빨아올린 샘물이 방울져 맺혀있었다.

상처는 그뿐이 아니였다. 자세히 더듬으니 여거저기에 해묵은 상처자리가 보였다.

나는 가벼운 전율을 느꼈다. 툭-툭- 불거진 상처자리들에서는 오랜 세월 힘겨운 시련을 거듭하

여 이겨온 자옥이 여실히 감득되었던것이다.

수억만년 풍상에 다져진 땅을 치뚫으며 한치한치 줄기를 내린 뿌리, 바위가 나서면 바위를 안아부스고 상처를 입으면 샘물을 빨아올려 피같은 진으로 바꾸어 아물구며 또다시 묵묵히 뻗어내린 뿌리,내 마음에는 그 뿌리가 샘줄기가 시작되는 깊은 땅속에 한끝을 두고있는것 같았다.

그로 하여 어마어마한 태풍에도 끄떡없었을거라고... 또한 것처럼 굳세지기 위하여 바위도 굳은땅도 에움이 없이 줄기차게 샘줄기를 향해 뻗어내린게라고...

잔풍에 나무가 설레일 때마다 뿌리가 행기워지면서 우쩍-우쩍-하는 소리를 내었다.

그것은 억척같은 힘들이 뒤엎키는 소리였다.

그와 함께 뿌리를 적시며 굶주리던 샘줄기가 크게 열렸다. 나는 가만히 손을 내밀어 샘물을 떠올렸다. 손가락짚으로 새어난 수정같이 맑은 샘물이 뿌리에 부서져내리며 경롱한 빛을 발산했다. 그빛은 나의 마음속에 살결처럼 박혀 아픔비슷한 환희를 자아냈다.

나는 다시 손을 뻗쳐 샘물에 축축히 젖은 뿌리를 잡아보았다. 차고 묵직한 힘이 손을 통해 심장에 마쳐왔다. 왜선지 눈물이 핑-돌았다.

그 어떤 진실한 믿음이, 인간적인것에 가까운 믿음이 가슴속에 진동하였다.

그때부터 나의 마음속에는 맑은 샘물을 마시며 자라난 느티나무가 정의로운 거인의 형상으로 자주 환상되군하였었다. 꽃이 피고 새 우짖는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 장수샘물을 한껏 들이키고 불구름이 황황 타번져 타래쳐오르는 속을 강잉히 헤쳐가는 형상으로...

어린날 느티나무에서 받아안았던 그 형상이 오늘날에 이르러 통일애국의 불굴의 전사 리인모로인의 영상으로 되살아오르는것은 무엇때문인가,

34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남모르는 옥중속에서 갇은 고초를 다 겪으며 신념을 고수해온 비상한 그의 인생행로-거기에는 토심깊이 내린 뿌리의 힘겨운 로동과 류사한 점이 있는것이다.

아니 그보다 자연적인 생존만을 위한 수목의 로동과는 달리 불의와 악의 압박속에서 지조를 지켜낸 인간의 투쟁은 그에 대비할수 없게 더더욱 가렬처절한것이다.



인생의 거의 전부가 흐른 그 시공간속에 그가 뿌린 피는 얼마이며 그가 이겨낸 시련의 언덕들은 그 얼마일것인가.

뼈를 깨고 살을 물어뜯는 잔인스러운 교형리들의 고문행위, 얼음이 드리운 차디찬 감방벽에 기대어 뜬눈으로 새웠을 무수한 겨울밤들, 심장을 비틀리워 오열을 짜내던 전우들의 최후의 순간들, 인간의 사유기능을 열백번도 더 질식시키고도 남을 심연같이 지독한 고독의 순간들, 대바르고 지성있는 인간들이 가장 참기 어려운 무지한자들의 구타... 불속과 얼음속, 무덤같은 고독, 살륙의 란무장... 그 모든것을 이긴다는것은 그야말로 보통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것이다.

나의 귀가에는 그 나날에 조국과 생활과 인간들에 대한 아름다운 찬가를 지어 읊조리던 그의 정겨운 속삭임소리가 들리는듯싶다.

그와 함께 혈육들에게 더없이 다정하고 전우들에게 다감했던 착한 눈매의 그의 모습도 눈앞에 보이는듯싶다. 첩첩한 독가시밭을 헤쳐나오며 온몸이 터지고 찢기였어도 조금도 거칠어지지 않은 순결무후한 감정을 지닌 인간...

금세기 어느 한 부르조아문필가는 자기 저서에서 인간에게서 초보적인 삶의 조건을 박탈하면 그인간은 야수가 된다고 하였다.

한마디로 인간의 생은 조건적이며 정상적인 상태에서만이 건전한 리성을 지닐수 있다는것이다.

그러나 그처럼 생사기로의 최악의 상태에서 지나간 세월을 살아오면서도 인간 리인모로인은 조금도 이지러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아름답고 고상한 인간으로 인생을 완성하였다.

그 힘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사랑이었다. 조국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의 감정, 신념으로 승화된 사랑의 감정이었다.

조국, 그것은 리인모로인에게 있어서 한뼘 눈물랐던 어머니의 얼굴에 피어난 밝은 웃음이며 살뜰한 안해와 귀여운 딸자식에게 퍼붓던 시름없는 애무의 세계였다. 또한 혈육같은 제 나라 제 고장사람들을 위해 진정을 바쳐 일하며 가슴 적시던 기쁨과 더없이 무궁한 번영이 약속된 민족의 광망한 앞날을 그려보던 겨웁도록 황홀한 꿈의 세계였다. 정녕 모든것이 눈부시게만 보이고 한포기의 풀, 하나의 조약돌에까지 사랑과 정을 쏟아붓고싶도록 보배로워진 땅, 땅도 하늘도 바다도 다 인민의것으로 된 나라, 착취도 압박도

없고 모든것이 인민의 행복으로만 꾸러지고 안겨지는 나라... 지난날의 아픔이 진하며 더 아끼고 사랑하고 한생토록 받들고싶어진 새 나라, 새 생활, 이것이 바로 그의 가슴속에 새겨진 조국이었다.

바로 그러한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리인모로인으로 하여금 어떤 역경속에서도 배신을 모르는 강의한 의지를 낳게 하였으며 열정을 주었고 산협을 감돌아내리는 시내처럼 맑고 정갈한 감정을 준것이다.

진정한 조국에 대한 사랑, 이것이 바로 그를 불굴의 전사로 정의롭고 참된 삶을 살아오게 한 마를줄 모르는 의지의 샘으로 된것이다.

그 샘으로하여 그는 우리의 인생길에 아지를 펼치고 허공을 떠받든 한그루의 기상넘친 푸른 거목으로 설레이는것이다!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고결하고 의로운 인간으로서의 참된 생을 안겨주는 영생의 샘!

그것만 있으면 인간은 바위밑에 묻어놓아도 바위를 깨고 일어설것이며 천리만리에 뿌리위나갔다가도 웃으며 불바다를 헤쳐올것이다.

정녕 우리 혁명의 길에는 그 마를줄 모르는 영생의 샘을 지닌것으로 하여 값높은 삶의 이름으로 청사에 길이 빛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의 눈앞에는 또다시 고향마을 동구에 우뚝 솟아 설레이던 느티나무의 정정한 자태가 우뚝이 떠오른다. 영원히 마를줄 모르는 생명소를 부어주며 솟아오르는 샘줄기에 뿌리를 둔 나무다.

그로 하여 태풍의 광란속에서도 가지 하나 날리지 않은 강직스러운 모습이다.

별안간 눈굽이 뜨거워난다.

나는 어린날의 그 마음이 되여 불굴의 전사, 원추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한 통일애국의 로병리인모로인의 마디센 손을 가슴속에 당겨 안아본다. 그러자 뜨겁고도 박진적인 힘이 묵직하게 없혀지는듯싶다. 위대한 조국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은 영생의 삶을 낳는다는 삶의 법칙을 다시금 우리의 가슴속에 깨우쳐준 귀중한 손,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이 된 내 조국에 대한 무한한 숭양심을 복돋아주는 보배로운 손이다.

그 손을 통해 그의 내부 깊은곳에서 쉬임없이 뛰는 힘찬 박동이 내 가슴을 끝없이 울려준다. 영생의 샘, 진리의 샘을 영양소로 하여 더더욱 높이뛰는 그의 심장의 박동이...

# 그도 아버지다

리정택

나의 아버지라면  
이다지도 못견디게 그리울가  
창밖에 찬바람 스쳐도  
문득 이 마음 달려가  
그의 침상에 따뜻한 온기되어 지키고싶고  
더운 물이라도 한모금 끓여드리고싶은  
리인모로인이여

그에게도 남못지 않은 딸이 있고  
그에게도 정깊은 안해가 있다  
수십여년 헤어져 있었어도  
한시도 잊은적 없는...

그때문인지  
더욱더 혈육의 정 더해지고  
내 아버지 모시듯이  
그처럼 편히 모시고싶은 이 마음

잠들면 꿈결에 찾아가노라  
잠깨도 빼없이 생각나더라  
언제 한번 뵈온적 없건마는  
그가 바친 청춘이  
그가 떨친 인간의 신념이  
내 심장에 불굴의 화신으로 자리잡았기에

이런 밤이면  
그 흰머리가 눈에 밟혀와  
내 아버지처럼  
그결에 자식되어 지키고싶은  
이 마음이어

누군들 이런 생각 없으랴  
철에 맞게 나이에 어울리게  
그의 옷을 지어놓은 이웃들도 있어라  
그 혈육의 정이 스민 옷을 입고

저 대동강기슭에 손자들을 이끌고  
산책의 저녁길도 걸었으면...

허나 어제와 다름없이  
이제는 년로하신 그 몸으로도  
통일애국성전에 바치는 삶  
조국을 위해 한번 떠난 길  
철창도 고문도 눈바람도 헤치며  
백발을 날리며 오늘도 가고있는  
불굴의 인간이어

아, 내 걷는 걸음걸음앞에  
의지의 인간, 신념의 인간으로  
문득문득 근상처럼 찾아오는 모습이어  
그처럼 살고싶은 내 한생을  
앞서 걸으며 이끄는 통일애국투사여

아, 아버지처럼  
옛말 아닌 옛말을  
아이들에게 들려주며  
비싼 값을 치른 그대의 인생에서  
아버지- 하며 찾는  
딸자식의 행복에 겨운 속삭임  
언제면 아침저녁 기쁨 넘친 가정에  
노래처럼 울리게 될가

나도 잠을 덜자고  
나도 뛰고 달리며  
그대의 짐을 내가 더 질수는 없는가  
언제면 안해와 딸과 손주들이 기다리는  
저 햇빛넘친 제집에 들어서라

오, 통일  
통일만이 그 길을 열어주리라

## 과학환상소설의 특성과 예술적품격

황정상

과학환상소설의 특성을 잘 알고 작품에 구현하는 것은 창작실천에서 매우 중요하다.

과학환상소설은 과학환상문학의 일반적 특성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다.

이 특성을 옳게 살려나갈 때 과학환상소설은 문학으로서 자기의 품격을 가지게 된다.

과학환상소설문학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앞날에 펼쳐질 생활을 서사적묘사방식으로 전개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소설의 특성을 잘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설에서는 소설의 특성에 맞게 더 전개할 것은 전개하면서 뒤생활을 잘 파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설은 생활을 전개하여 보여주는 문학의 한 형태이다.

소설에는 사회와 인간생활, 자연의 모든 내용들이 펼쳐질 수 있으며 력사와 미래가 펼쳐질 수 있다.

과학환상소설작품들에는 정치와 경제, 문화와 도덕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가 반영되며 등장인물들의 생활, 그들의 뒤생활이 그려지게 된다.

여기서 일반소설과 다른 특성은 등장인물들의 생활, 과학환상이 펼쳐지는 앞날의 그 시대의 생활을 그린다는 점이다.

일반소설에서는 정치와 경제, 문화와 도덕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가 반영되며 등장인물들의 오늘의 생활뿐 아니라 어제날의 생활도 보여준다.

물론 래일의 생활도 보여주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상의 수법에 의한 국한된 생활을 펼쳐보일 뿐이다.

과학환상소설에서는 래일의 생활, 과학환상이 펼쳐지는 그 시기의 생활을 기본으로 그 시기에 맞는 정치와 경제, 문화와 도덕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가 반영되게 된다.

창작실천은 과학환상소설에서도 어제날과 래일의 생활을 그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과학환상소설에서 그리는 어제날의 생활은 일반소설에서 취급되는 그런 어제날의 생활이 아니며 그런 래일의 생활이 아니다.

중편과학환상소설 《푸른 이삭》에서는 어제날의 생활이 오늘 우리 시대, 로동당시대의 창조물들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것으로 그려짐으로써 21세기 말엽에 가서도 그의 가치와 위용을 자랑하며 바로 그에 토대하였기에 더 큰 비약, 작품에 반영된 그런 창조물로 가득찬 생활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이 작품에서는 조선에 류학온 스티븐슨이 자기의 스승인 연구사 광원이가 몇년을 애써 연구한 귀중한 자료를 고스란히 넘겨주자 너무도 놀랍고 걱정이 차올라 자기 숙소로 돌아와서 쓰라린 어제날을 회상한다.

그의 눈앞에 펼쳐지는 S 종합대학의 실험조수로 일하던 생활, 자기의 피땀으로 무르익은 논문이 하루아침에 빼앗겨 남의 이름으로 출판된 것을 보고 몸부림치던 일 등은 오늘날 약육강식의 법칙이 작용하는 자본주의 사회상을 그대로 펼쳐보임으로써 작품에서 펼쳐지는 생활이 오늘 우리 시대의 생활이 아니라 앞날에 있을 생활임을 감각적으로 느끼게 한다.

작품에서 본 것처럼 과학환상소설에서 펼쳐지는 생활은 일반소설에서 그려지는 생활과 질적으로 다르며 그 특성은 생활을 다방면적으로 폭넓게 전개할 수 있는 큰 형식의 과학환상장편소설들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과학환상소설에서 앞날에 펼쳐질 생활을 전개하여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작가가 생활을 환상의 나래를 펼쳐 객관적으로 그린다는 사정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과학환상소설은 작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생활을 객관적으로 그리는 묘사방식의 특성으로 하여 묘사대상을 여러 시점에서 다면적으로 전개하여 그릴 수 있다.

과학환상소설작품에는 작가의 객관적인 시점을 통하여 일반소설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환상적인 생활을 등장인물들의 각이한 시점에 비쳐진 실로 다양한 생활이 펼쳐진다.

과학환상소설문학은 또한 시간적인 제약과 무대적인 제약을 받는 과학환상극문학과는 달리 주인공을 비롯한 인물들의 뒤생활과 그들의 내면세계까지도 다 펼쳐보여줄 수 있는 우월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앞날에 펼쳐질 생활을 작가의 직접적인 서술로 객관적립장에서 자유롭게 펼쳐보이는 과학환상소설은 인간의 전모를 리해할 수 있게 하는 우점을 가지고 있다.

묘사범위의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과학환상극문학에서 제한받는 뒤생활이 과학환상소설문학에서는 뒤생활로 되지 않게 된다.

과학환상극문학은 무대위에 앞날의 생활을 그려보일 것을 전제로 하는 문학이다.

과학환상극문학의 이러한 무대적조건성은 생활을 반영하는데서 고도의 극적 집중화와 집약화를 필수적요구로 하며 등장인물들의 극적관계속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본질적이며 정수적인 극적극면들만 정면에 내놓고 이어의 생활들은 생략할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과학환상극문학에서는 주인공의 성격발전에서 부닥치게 되는 다양한 앞날의 생활들이 적지 않게 뒤생활로 깔리거나 생략되게 된다.

과학환상소설문학은 과학환상극문학에서 깔리거나 생략된 뒤생활을 정면에 끌어내어 주인공의 성격의 전모를 리해할수 있도록 펼쳐보여주는 전개력을 가지고있다. 때문에 과학환상소설문학에서는 작가가 묘사대상에 감성적으로 침투하면서도 객관적인 묘사방식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감동적으로 그려낼수 있게 됨으로써 서사적 묘사방식의 가능성을 보다 전면적으로 활용할수 있는것이다.

전개된 묘사야말로 과학환상소설의 가장 중요한 특성의 하나로 된다.

중편과학환상소설들인 《바다밑에 솟아난 땅》과 《두개의 화살》은 극적집중화와 장면설정들을 잘주면서도 그 뒤생활을 끌어내어 전개함으로써 성장하는 주인공성격의 전모를 리해할수 있게 비교적 묘사를 잘하였다.

중편과학환상소설 《바다밑에 솟아난 땅》에서는 서해바다밑의 땅을 인공적으로 솟아나게 하여 8만평방키로메터의 광활한 새땅을 얻어내려는 주인공 철수와 숙희의 탐구적환상이 유능한 선배과학자들의 영향과 지도를 받아 나래를 펴게 되는 장면이 소설적으로 전개되어있다.

이 장면은 작품의 주제사상과 인물성격들의 초기상태를 제시하고 리해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중학시절부터 푸른 꿈을 키워온 철수와 숙희는 자주 해변가 높은 언덕우에 올라서서 사나운 들짐승처럼 날뛰는 바다를 어떻게 하면 길들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몰아간다. 하던중 그들은 그 숭고한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벌써 조사측량하고있는 학자들을 만나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으며 자기들도 꼭 그 위업에 직접 참가하리라는 결심을 다지게 된다.

이 장면은 앞으로 과학탐구에 모든것을 다 바쳐가려는 주인공들의 마음의 충동을 진실하게 제시해주고있다. 이리하여 작품에서는 첫머리에서부터 아직 탐구의 사나운 풍랑을 헤쳐가기에는 너무도 연약하고 어린 그들이었지만 인민들의 식생활을 위한 과학탐구에 한생을 바친 부모들의 유언과 시대의 절박한 요구가 그들로 하여금 위험이 뒤따르는 자연과의 힘겨운 투쟁의 파도를 넘어 자연의 정복자로 되게 하였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작품은 사상주제적과제를 소설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주인공의 생활을 전면적으로 전개하면서 그 뒤생활까지 끌어내다가 소설적으로 전개하고있다. 바다탐사에 나갔다가 그 어떤 알수 없는 《물체》의 강력한 빛에 의해 실명하게 된 주인공

철수가 침대우에서도 오로지 8만평방키로메터에 달하는 새땅 연구에만 몰두하는 장면과 결정적인 시각에 무엇이 자기를 연구에서 떼내게 하였는가 하는 생각으로 몸부림치는 그의 정신상태를 소설적으로 전개하였을뿐만아니라 철수를 비롯한 연구소집단의 성과가 눈에 뜨이게 나타나자 그를 시기하는 실장을 리용하여 파괴음모를 꾸미는 미제의 고용간첩과 잠수함을 타고 기여든 원수들의 책동을 흥미진진한 생활로 펼쳐보이고있다. .

이 장면에서는 숙희의 소박하고 아름다운 마음, 동지인 철수의 눈이 어떻게 되겠는가, 시력을 다시 찾게 되겠는가, 아니면 완전히 실명하겠는가 하는 불안에 떠는 심정과 함께 중요한 연구사업의 주역을 놀던 그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면 연구사업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생동한 형상으로 묘사되어있다.

이와 함께 힘겹지만 보람찬 연구과정에 있었던 가지가지의 생활을 펼쳐보이면서 그들앞에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위험천만한 일을 예고하며 드디어 놈들의 검은 흉계에 부딪치고야마는 시련의 나날들에 있었던 생활을 형상적으로 살림으로써 주인공들의 뒤생활이 소설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리하여 작품의 사상주제적과제와 그것을 구현하게 될 성격들의 초기상태를 다각적으로 깊이 리해할수 있게 하였다.

실례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과학환상소설문학은 묘사범위에서 제한성을 받지 않으며 다른 과학환상문학형태들에서 전개할수 없는 생활까지도 자유롭게 전개할수 있는 특성을 가진다.

묘사범위에서의 이러한 특성은 인물들의 과학적세계관 형성과정을 폭넓고 깊이있게 보여줄수 있는 가능성을 주면서 사람들에게 미래의 과학생활과 폭넓고 깊은 과학지식을 주며 그들의 과학탐구열의를 적극 불려일으키게 된다.

과학환상소설문학은 언어를 수단으로 과학생활을 반영하는 묘사의 문학이다.

과학환상소설문학이 묘사의 문학이라하는것은 그것이 앞날의 생활을 화폭적으로 제시하는 문학이라하는것을 의미한다.

과학환상소설에는 언제나 생활화폭이 펼쳐지며 인간성격들의 산 모습이 구체적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여기서의 생활화폭이나 인간성격은 일반소설문학의 그런것이 아니다.

과학환상소설에서의 생활화폭은 현시대의 생활화폭이 아니라 작품에 반영된 과학환상적내용을 부각하고 안발침할수 있는 생활화폭이며 인간성격도 보다 과학환상적인 내용의 요구에 맞게 그려지게 된다.

더우기 과학환상소설은 일반소설문학의 예술적 묘사수법을 다 가지고있으면서도 환상의 나래를 펼칠수 있는 가능성이 크므로 생활을 종횡무진으로 깊숙이 파고들어 모든 생활의 의미와 색깔, 음향, 향기 등을 더 자유분방하게 표현하게 한다.

과학환상소설에서 묘사의 폭과 깊이는 한계가

없으며 묘사하지 못할 그 어떤 대상도 있을수 없다.

과학환상소설이 과학생활과 그 탐구를 위한 인간을 객관적으로 묘사한다고 하여 단순한 기록으로 되게 하여서는 안된다. 자칫하면 과학기술적내용을 동반하는 문학이라는데로부터 감동성이 없는 묘사, 기록적인 묘사, 단순히 과학기술적내용을 전달하는식의 묘사 아닌 묘사를 그릴수 있는데 그런 묘사는 과학환상소설로서의 사명을 다할수 없게 한다.

때문에 과학환상소설작가는 일반문학의 묘사대상보다 취급하기 어려운 대상 즉 미지의 과학환상내용을 묘사하면서도 그것이 생활적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수 있고 감성적으로 받아들일수 있게 묘사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 해득하기 힘든 기계구조나 작용원리를 알기 쉽게 묘사하는 기량을 부단히 숙련하는것, 이것이 과학환상소설가의 임무이며 과학환상소설가로서의 존재가치를 규제하는 척도로도 된다.

이로부터 과학환상소설가는 묘사의 능수가 되기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과학환상소설문학의 다른 문학형태들과 구별되는 특성은 그것이 환상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생활을 반영하며 과학기술적내용을 논리적으로가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을 통하여 반영한다는데 있다.

과학환상소설문학은 과학환상적인 이야기의 문학이며 이 문학적이야기를 통하여 인간성격을 창조하고 앞날에 펼쳐질 생활을 일반화하는 문학이다.

과학환상소설에서 인간성격은 과학환상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그려지고 해명된다.

따라서 과학환상적이야기의 전개과정은 곧 성격을 해명하는 과정으로 된다.

과학환상소설은 일반소설보다도 이야기를 다양하게 전개하고 해결할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것은 소설이라는 측면에서 인간관계설정상 거의 아무런 제한성을 받지 않을뿐아니라 거기에다가 환상의 수법이 적극 도입되어 생활을 자유분방하게 펼칠수 있기때문이다.

과학환상소설에서는 새로 탐구되는 환상적인 복잡한 기계구조와 원리, 그를 둘러싼 인간들의 생활과 사회현상을 기계적으로 라렬하지 않으며 주체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평가하여 재구성한다.

과학환상소설작가의 이 분석과 평가에 의한 객관적 사물들과 현상들은 앞날에 펼쳐질 생활의 가장 본질적인것을 반영하는것으로 하여 생활의 객관적론리에도 부합되며 서사문학의 한 형태로서 과학환상소설의 특성도 살리게 되는것이다.

과학환상소설이 발전해온 역사를 놓고보아도 흥미있는 과학환상적내용들을 이야기식으로 전달

하는 과학환상이야기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이것을 전제로 하여 발전하여왔다.

17세기 하반기 기상학의 창시와 원자설 및 천문학의 발전과 더불어 처음 구두로 전달되여오던 과학환상이야기가 18세기를 거쳐 19세기에 이르러 과학환상소설의 체모를 갖춘 사실을 놓고보아도 그렇고 우리 나라에서 처음 과학환상문학작품들이 창작되기 시작하던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출판된 《저축되는 태양열》, 《얼음의 힘》, 《미래의 여행》, 《전분합성공장》 등을 비롯하여 과학환상이야기들만 보더라도 그것은 모두 사건과 이야기줄거리가 뚜렷한 작품들이었다.

이야기식과학환상작품은 사물과 현상, 사건발전의 객관적론리를 단순히 전달하는데 그치므로 독자들의 흥미와 탐구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킬수 없었다.

이로부터 사건과 이야기보다 인간성격묘사를 통한 과학환상을 흥미진진하게 보여주는 작품을 지향하게 되었다.

과학환상이야기가 점차 성격창조를 위주로 하는 과학환상소설로 발전하면서도 여전히 일정한 사건과 이야기줄거리를 무시할수는 없다.

그것은 과학환상소설에서 성격창조가 이야기를 숨씨있게 짜는 구성의 기교와 밀접히 련관되여있기때문이다.

아무리 기발한 과학환상내용을 담은 소설일지라도 만약 사건조직과 감정조직을 잘하지 못하고 이야기를 능숙하고 숨씨있게 전개해나가는 구성작업을 잘하지 못한다면 인간성격도 진실하고 깊이있게 보여줄수 없으며 작품을 위어나갈수 없다.

과학환상소설은 일정한 사건과 이야기줄거리를 전제로 하는 문학의 한 형태이므로 특성을 잘 살려 앞날에 펼쳐질 생활을 부단한 변화발전과정에서 보여주면서 인간성격을 다각적으로 밝혀야한다.

과학환상소설은 또한 단편, 중편, 장편 등 그 형식에 따라서 일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작품형식에 따르는 특성은 소설일반에서 제기되는 특성과 일치하면서도 그것이 과학환상적인 생활과 인간형상을 창조한다는데서 구별되는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고찰을 피한다.

우리의 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다. 과학기술의 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 문학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려면 작가들이 과학환상소설창작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고 가치있는 과학환상소설들을 창작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특히 마치고 과학환상문학은 아동문학의 범주에만 속하는것으로 간주하는 그릇된 견해를 없애는것이다. 우리는 과학환상소설이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는 위력한 수단이라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이 분야에서 창작적양양을 일으켜야 할것이다.

## 집안의 유산

고려때 함유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서리로서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싸움에 여러번 참가하여 큰 공훈을 세우곤하였다. 이를 높이 평가하여 왕은 그를 무관으로, 궁궐을 호위하는 무관벼슬에 등용시키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왕이 군사들의 무술훈련을 보려 궁궐밖에 나왔다가 큰 상을 걸고 무관들에게 활쏘기경기를 선포하였다.

이 활쏘기시험에는 궁성안의 모든 무관들이 다 참가하였다. 여기에 함유일도 끼여있었다.

남달리 어려서부터 무술을 꾸준히 익혀온 그는 이번에 높은 기술로 1등을 하여 상으로 많은 금과 여러필의 비단을 받았다.

거리에 나왔다가 이 소식을 듣게 된 함유일의 아들딸 오누이가 나는듯이 집으로 달려와서 어머니에게 전하였다.

《어머니, 우리 집안에 경사가 났어요!》

《아니, 경사라니 무슨 경사말이나?》

《아, 글썽 아버지가 왕이 참가한 무술시험에서 1등을 했대요. 그래서 많은 금과 비단천을 받았대요.》

《그게 정말이야?》

자기들의 말을 믿지 못해 묻고 또 물어보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덧붙이었다.

《지금 온 거리는 그 이야기로 부쩍 끓고있어요.》

《너희들이 잘못 듣지 않았니?》

《아니예요. 분명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말했어요. 그러구 우리를 보고 〈너희들이 유일의 아들딸이 아닌가〉고 하면서 얼마나 좋겠는가구 했어요.》

《그래?》

《그러구 또 뭐라고들 하셨는지 알아요. 〈너희 아버지는 정직하고 근면하구 오직 군사일밖에 모르더니 하늘이 알아보구 그런 혜택을 내리게 한 제로다.〉 라구 말하던데요.》

《그러고 또 감돌네 할머니는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너희들이 훌륭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어 세상에 부러운게 없겠다. 그 금에 그 비단필이면 몇대를 두고 놀고먹어도 못다 쓰겠다.〉 라고 부러워하시던데요.》

오누이가 승벽내기로 번갈아 거리에서 들은 이야기를 자초지종 전하자 함유일의 안해도 어느정도 믿음이 들었다.

《그게 정말이란말이지. 이제야 우리 집에 복이 들어오려는게구나.》 하면서 눈가에 고인 눈물을

흘치었다.

《어머니 또 우시나?》딸애는 어머니품에 안기며 귀염스레 물었다.

《아니다. 너무 기쁘니 눈물이 저절로 나오는구나.》

《체, 어머니 언 올보야. 전번엔 오빠장가들일 재산이 없다고 걱정해 우시더니 오늘은 금과 비단필이 생겼다는데두 우시네. 참!》

《하긴 내가 눈물이 헤쳐졌구나.》

《어머니, 이젠 우시지 마세요, 오빠 장가갈 밑천이 생겼는데!》

《어찌 오빠 장가뿐이겠냐. 네 시집보낼 재산도 있지 않느냐.》

그 말에 딸애는 손뼉을 치며 《내것두, 아이 좋아.》 하며 어머니주위를 빙 돌았다.

어머니앞에서 응석을 부리는 재롱스러운 동생을 바라보던 오빠는 허구프게 웃고나서 동생에게 편잔을 주었다.

《야. 왕이 뭐 우리 시집장가보내는데 쓰라구 아버지에게 상을 내리신줄 아니. 그런 소리 말아.》 그리고는 어머니에게로 다가오며 어른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가 받은 상으로는 아버지, 어머니 옷부터 지어입으셔야 해요. 난 우리 아버지가 늘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시는게 창피해죽겠어요. 그래도 궁궐에 드나드는 관린데 뭐가 부족해서 남들처럼 화려하게 못입으시나 말이에요.》

《옳다, 네 말도 옳아.》

《그러구 우리 집도 좀 크게 짓구요. 말도 여러필 두고 남들처럼 땅도 사두자요.》

《그래, 그러자구나.》

《사실말이지 아버지가 벼슬을 할 때 재산을 늘여야지 이모양대로 살다간 우린 앞으로 알거렁뱅이신세밖에 안될거예요.》

함유일의 안해는 밖이 어두워지자 아이들에게 그 문제는 아버지와 의논하기로 하자 하고 저녁준비를 서둘렀다. 그러자 아들은 프락을 말끔히 쓸고 딸애는 방안을 깨끗이 정돈하기 시작하였다.

뒤산에 해가 지고 저녁노을이 비껴무렵, 함유일이가 대문으로 들어섰다.

《아버님이 오신다!》

프락을 거두던 아들이 방안쪽에 대고 소리치자 안해와 딸이 뛰어나왔다. 아들딸은 아버지에게 큰절을 하였다.

《아버님의 큰 영광을 축하합니다.》

《너희들도 소식을 들은게로구나.》

함유일도 기쁨에 넘쳐 절하는 아들딸을 일으켜  
량팔에 꺼안았다.

《정말 집안의 대경사이와요.》 안해가 트랙으로  
나서며 반기였다.

《나도 뜻밖에 그런 큰상을 받았소.》

모두 방안에 둘러앉아 식사를 마친후에 호기심  
을 이기지 못한채 아들이 먼저 물었다.

《아버지, 오늘 상품이 대단하였지요?》

《그럼, 내 일생 그런 큰 상품을 받긴 처음이다.  
많은 금과 비단필을 받으니 모든 사람들이 부러  
워하고 감탄을 금치 못했으니까.》

《언제 가져오시나요?》

《그건 집에 가져오는것이 아니란다.》

온 가족이 의아한 눈길로 그를 쳐다보았다.

《아버지가 받지 않으셨나요?》 딸이 물었다.

함유일은 그 철없는 말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한참 담배를 말아피우다 이렇게 말하였다.

《허 그건 내가 받았어도 내가 가지면 안되지.  
그래 나는 금을 팔아 군사들의 변변치 못한 화식  
기재들을 일신시키게 하고 그 비단필을 팔아서  
우리 군사들의 의복과 군사위장을 다시 갖추기로  
했다.》

《?...》

그 말에 식구들은 억이 막혀 말을 못했다. 갑  
자기 식구들의 기색이 일변하자 함유일이 말했  
다.

《아니, 왜들 이러나. 아버지가 한 처사에 마땅  
치 않아하는 모양이구나.》

그리자 눈물이 헤폰 안해가 울음섞인 말로 대  
답했다.

《너무하외다. 아이들이 살림밀천이라도 장만하  
자구 마음쓰는데 당신은 어쩌면 집안일에 아이들  
보다 못하시우? ...》

《허 허... 그래서였구만.》

함유일은 식구들을 둘러보고나서 말을 이었다.

《여보, 당신도 아다싶이 나는 원래 빈한 가정  
에서 태어나서 여직 누구의 방조를 받지 않고 살  
아오지 않았소. 다만 근면하구 정직하게 살면서  
애국애민의 뜻만 잃지 않고 산다면 어찌 빈곤함  
이 걱정되겠소. 내 자식들에게 집안의 재산을 넘  
겨주지 못할 걱정보다도 이런 뜻을 심어주지 못하  
가봐 걱정될뿐이요.》

《...》

가족들중 누구하나 대답이 없이 그 말의 의미  
를 새기는듯하였다.

《애들아, 이걸 명심해야 하느니라. 나라를 지킬  
군사가 강하지 못하면 그 상으로 우리가 몇대를  
두고 잘 살아도 우린 죽은 목숨이야. 언제나 한  
가정보다 나라를 생각할줄 알아야 하느니라. 알  
겠느냐?》

아이들도 미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따르지 못  
한데 대해 뉘우치면서 머리를 끄덕이였다.

이날 저녁, 함유일을 축하하러 찾아온 그의 동  
료들과 이웃들, 군사들도 감동되어 돌아갔다고한  
다.

김정철

## 판문점

(총련) 강명숙

모르는 일이에요  
여기서부터 오른쪽을 북이라고  
여기서부터 왼쪽을 남이라 하는데  
보세요 이렇게 돌아서면  
오른쪽이 남이고 왼쪽이 북인걸요

어떻게 가르나요  
어디서부터가 북쪽하늘이고  
어디서부터가 남쪽하늘인가요  
우러르면 가없이 파아란 하늘  
어디에 38선 그으면 되나요

달리 들리나요  
어느것이 북쪽 새의 지저귀이고  
어느것이 남쪽 새의 지저귀인가요

아무리 귀담아 들어봐도  
하나의 노래 부르는것 같은데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하늘의 구름도 부는 바람도  
흐르는 강물마저 저렇게 자유로운데  
우리만이 우리만이  
여기를 오고가면 죄가 되나요

왜 말이 없어요  
왜 대답을 못해요  
무서운 얼굴로 《서계시는》  
멀리 외국에서 《오셨다는》  
총을 멘 《군대꼭두각시》

# 황지에 꽃은 피어나리

(남조선) 박봉우

남과  
북으로 나누어 산지도  
오래 되었다

녹슨 첼로우에  
진달래만  
서글프다

어떤이는 절실히  
통일을 부르짖고 갔지만  
력사는 잔잔하다

언제 서로 만나고  
살것인가  
조국은 아프다

오늘  
우리가  
서로 만나는것은

고향과 자유와 평화를  
목마르게 부르짖는  
절규다 진통이다

나는 남  
너는 북  
량단된 가슴팍에  
서로의 비극은 뼈아프다

나비들은 나비들은  
철조망을 오고가고 하는데  
답답한 벽은  
언제 무너질것인가  
누구의 힘으로 무너질것인가

한피줄  
한겨레가  
온통 합창하는 날  
남북이 서로 마음 터놓고 만나는 날...

녹슨 첼로우에  
진달래는 피어 웃으리라

그때 내 조국은 무궁하고  
력사는 아지랑이같이 다시 피어나고  
우리는 가난하게 산것을  
후회하지 않으리라